

옹진섬 민요집

- 근해 도서편 -
(북도 · 덕적 · 자월 · 영흥면)

The Folksongs of Ongjin-gun, S.Korea
(Bukdo · Deokjeok · Jawol · Yeongheung myeon)

By Sora Yi



옹진문화원
Ongjin Cultural Center



발 간 사



웅진섬 - 백령, 대청, 연평면 - 민요집에 이어 북도, 덕적, 자월, 영흥 편을 묶어 근해도서편으로 발행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웅진군민들의 삶은 고도孤島의 심연에서 거친 풍랑과 세찬 해풍에 맞서 삶을 개척해온 숭고崇高한 생존 현장의 산 증인이십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두레 정신으로 농사일, 바다일 하면서 저 깊은 가슴 속 애환을 소리로, 노래로, 만담으로 구전口傳되어 오던 것을 편편히 녹취 하여 향토색鄉土色 짙은 음성을 되살려 체계적이며, 예술적으로 문자화 하고 음표를 작성하여 후손에게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엮어 출판 하였습니다.

여기 녹취에 임하신 어르신들! 당신의 소리로 향토의 혼魂을 남기신 님의 맑은 영혼 앞에 이 작품을 헌정하며 이미 고인이 되신 어르신들의 혼령에 고하며 안식을 기원합니다.

웅진 섬 민요집이 나오도록 귀한 자료를 공유共有하게 허락하신 나요당羅謠堂 이소라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향토민요의 발굴 누림을 마중물로 하여 아직도 향토 속에 묻혀 있는 값진 문화유산의 발굴, 공연, 전시 등 문화 누림의 소임을 다 하도록 힘써 일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깊은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며 편달은 제도적 틀로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군민들이 나날이 각양의 문화를 누리시며 일상의 삶 속에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웅진문화원 원장 태 동 철 올림.



머 리 말



[옹진섬 민요집] - 백령 · 대청 · 연평면 편 - 에 이어 근해도서편을 집필하였다. 3개면 편이 황해도와의 교섭이 많은 곳이고 평안도 민요의 유입도 보이는 곳이라면, 근해도서편은 경기지방과의 교섭이 두드러지고 충남지방과의 접촉이 보인다.

영흥면 내4리 이른바 〈버드니 농요〉의 만물매기 긴소리는 선소리꾼의 부름에 대해 산신령님한테, 서낭님한테, 좌상님한테 올렸다는 대꾸나, 두패로 나누어 긴 받음구를 받는 등, 개성적이면서 근해도서적인 얼굴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고로 한판을 짜서 옹진섬의 농요로 길이 보존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길놀이에서는 내4리 집들이농악의 개성적인 가락들을 활용하기 바란다.

자월도의 자월2리 동촌에서는 시집을 가면 동네사람들이 광목 앞치마며 버선을 만들어 가져왔다. 초상이 나면 집집마다 떡을 해 오고 막걸리를 담아 갔다. 동촌은 농악이 활성화되어 있어 선달그믐의 우물굿과 정월보름까지 집들이 농악, 열나흘날의 외양간 풍년점 및 음정월 15일 낮에 짚으로 엮은 ‘배송 배’ 하나를 바다에 띄워 보내며 새해의 모든 액운을 멀리 멀리 실어가기를 소원했던 인정스러운 민속마을이었다.

근해도서편은 1987년과 1988년에 필자가 방문 녹음한 자료를 주축으로 하였고 그 당시에는 영종도와 용유도도 옹진군 관할이었으나 현재는 인천광역시 중구로 편입된 관계로, 그 채보한 일부를 부록 편에 실었다.

오래 묵혀둔 자료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태동철 원장님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김경협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식구들의 지혜와 추진력에 힘입은 바 크다.

옛 기억을 되살려 녹음에 응하신 수많은 가창자들과 협조자들 및 관계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본서의 음원 일부도 같은 기간에 CD로 제작한다고 하니, 들어보셔요.

2019년 11월
나요당(羅謠堂) 이 소 라

contents

발간사	03
머리말	05
일러두기	08
1. 개관	12
1.1 배경	12
1.2 웅진섬 근해도서편 민요의 분류	17
1.3 가창자	18
2. 웅진섬 근해도서편 민요의 특색	27
3. 농요	36
3.1 영흥면 버드니 농요	36
3.2 모심기	39
3.3 논매기	40
3.4 밭매기	41
3.5 소 부림 말	42
3.6 삼삼기, 벼들노래	43
4. 나무꾼소리, 터다짐소리	44
5. 어로요	46
5.1 노젓는 소리, 그물당기는소리	46
5.2 굴 따기	46
5.3 배치기	47
6. 동요	48
6.1 동물요	48
6.2 다리헤기	50
6.3 자장가, 애기 어름소리 등	50
7. 흥민요	52
7.1 꼬닥꼬닥, 담방구, 범벅타령, 군밤타령	52
7.2 변강수 타령	53

옹진섬 민요집

The Folksongs of Ongjin-gun, S.Korea

7.3 곱새치기	53
7.4 청춘가, 창부타령 곡풍, 노랫가락 곡풍, 방아타령, 뱃놀이, 남물이 들었네, 도라지, 아리랑, 석탄백탄, 양산도 등	54
7.5 난봉가, 동기동 내사랑, 박연폭포, 몽금포타령, 어랑타령, 산염불	57
8. 의식요	60
8.1 비손, 고사소리	60
8.2 상부소리	61
(1) 초혼, 방안 운구, 널액막음소리 등	61
(2) 발인축	62
(3) 하직소리	62
(4) 운상소리	63
(5) 달구소리	65
(6) 봉분 가래	67
(7) 뗏간	67
* <사진> 색인	
<사진 1~32> 가창자	21
<사진 33~38> 근해도서의 논	33
* <그림> 색인	
<그림 1> 옹진군 근해도서편 (북도 · 영흥 · 자월 · 덕적면) 위치	14
<그림 2> 북도면 녹음지역 참고, <그림 3> 영흥면 녹음지역 참고	15
<그림 4> 자월면 녹음지역 참고, <그림 5> 덕적면 녹음지역 참고	16
* 악보 게재	
<옹진 1 ~ 116>	70
<부록 1 ~ 28>	251
* 악보 차례	284
* CD 차례	289
* Index	291



일 러 두 기

(매) 매김선율, 매김소리

(반) 받음선율, 받음소리

C.P (같은 음조식에서의 위치 변경) 또는 T.P 이조점(移調点)

C.O (음조식 변경) 또는 m.p 전조점(轉調点)



14. (토민) (土民)

15. 素96-11-4B
MD 99-8-30

16. <SR>

1, 2 내재박(內在拍) 또는 내재마디

3, 기준길이보다 짧은 음

4, 기준길이보다 긴 음

5, 기준길이보다 약간 긴 음

6. 약한 요성(遙聲)

7. 음의 끝을 끌어내리며 점점 사라짐(退聲)

8. 굴리면서 내려옴

9. 곧게 뻗다가 요성함

10. 제자리에서 굴러내는 음(轉聲)

11. 속소리

12. 미묘하게 약간 낮은 느낌의 음

13. 미묘하게 약간 높은 느낌의 음

14. 토박이(해당지역에 태어나서 계속 거주해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

15. 필자 소장 녹음테이프 번호

16. 나요당(羅謠堂) 이소라의 해석 및 교정 악보

* 맥받형식 : 맥이고 받는 가창방법. 매김소리꾼이 매번 가사를 바꾸어 맥이는 대로
받음소리꾼들은 매번 같은 받음구로 받음.



선법의 명칭과 약문자 例

선 법	약문자	구성음관계	선 법	약문자	구성음관계
도 선 법	D1	도레미솔라	미 선 법	M1	미솔라도레
	D2	도 미솔라		M2	미 라도레
	D3	도 미솔		M3	미 라도
	D4	도레미솔		M4	미솔라도
	D5	도(레)미솔라시	모선법	P	증3도+단3도
	D6	(기타)	모노래선법	PD	모선법과 도선법의 공존
* 약문자 6은 해당 선법의 기타 구성관계를 표시		PM		모선법과 미선법의 공존	
		PDM		모선법과 도선법, 미선법의 공존	
솔 선 법	S1	솔라도레미	레 선 법	R1	레미솔라도
	S2	솔 도레미	육자배기선법	Y1	미솔라시도(레)
	S3	솔 도레		Y2	미 라시도(레)
	S4	솔 라도레	라 선 법	L1	라도레미솔
	S5	솔(라)도레미파		L2	라 레미솔
	S6	(기타)		L3	라 레미

※ S3, L3, R3은 서로 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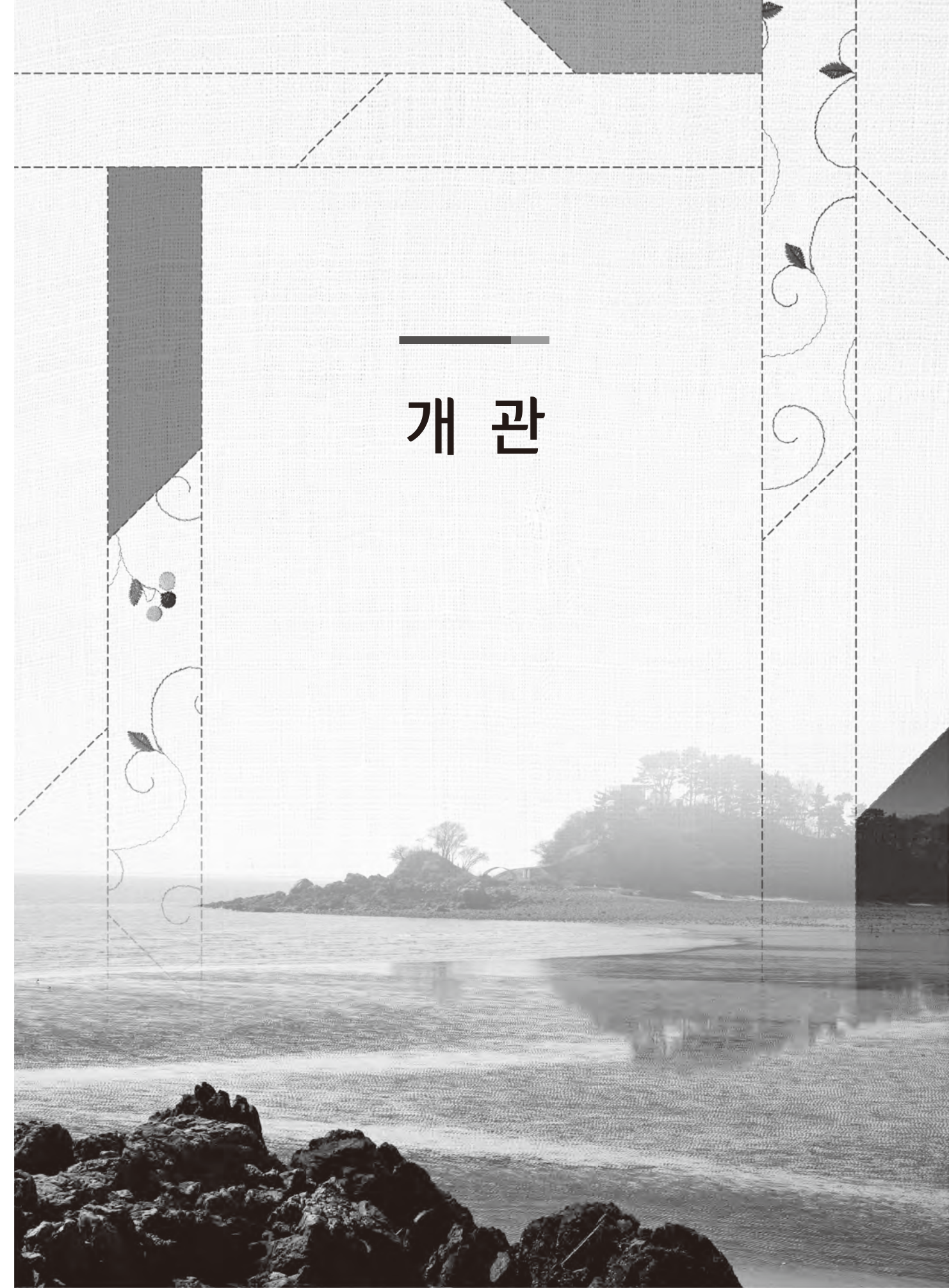
※ S4와 R4는 상통한다.

t1 : 기음중지 t4 : 4도윗음중지 t5 : 5도윗음중지 t5g : (5도윗음중지 단 퇴성함)

t쫓대4 : 쫓대음으로부터 4도윗음중지

v1 : 기음요성 v4 : 4도윗음요성 v5 : 5도윗음 요성

개 관



1. 개관

1.1 배경

현 웅진군의 도서들은 6,000년 이전에 마식령산맥(덕적군도, 자월도, 장봉도, 영흥도 등)과 멸악산맥(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의 말단부에 속하여 육지부로 남아있다가 해수면의 상승으로 바닷물에 잠겨 육지로부터 격리되었다고 한다.¹⁾

백령도를 제외한 옛 웅진군 지역은 모두 북한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현재 남한에는 해방 이전의 웅진군 영역은 없으며, 해방 이전까지 웅진반도의 원 웅진군의 역사는 지금의 웅진군과 직접 관련이 없다.²⁾

[웅진 섬 민요집](근해도서편)은 황해도 서쪽 바다의 현 웅진군 소속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과 영흥면 지역의 민요를 주 대상으로 한다.

현 웅진군 지역은 오랫동안 침식을 받은 노년기 지형이라 고도가 낮은 구릉성 산지가 대부분이다. 이들 도서들은 가운데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으며, 산봉우리의 높이는 100~150m가 많다. 가장 높은 산이라야 자월면 선갑도의 선갑산(351.6m) 정도이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큰 하천이 없다.

그간의 고고학적 업적에 따르면 웅진군지역은 B.C.3500~B.C.3000년 이후, 신석기인들의 거주가 추정된다.³⁾

백제의 고이왕이 236년 강화도에서 사슴 40마리를 잡았다고 하는 바, 강화도와 가까운 근해도서편의 지역들은 3세기 이전에 백제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짐작받고 있다.⁴⁾

웅진군지역에 관한 확실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에 관련한 기록인 7세기 부터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무열왕 7년(660년) 6월 21일에 태자 김법민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덕물도(덕적도)에서 소정방을 맞이한다.

고려시대에 북도면은 진강현, 영흥면 · 덕적면 · 자월면은 남양부 소속이었다

김방경과 몽고의 송만호가 이끄는 여몽연합군이 영흥도에서 삼별초군과 싸웠다(18C)⁵⁾.

웅진군 지역이 유배지로 이용된 것은 유검필이 곡도(백령도)로 유배왔던 고려초 부터이다. 이후 백

1) 2012년판 웅진군군지편찬위원회 편 [웅진군지](이하 [웅진군지]) 상권 p.71.

2) [웅진군지] 상권 p.3,5,11.

3) [웅진군지] 상권 p.10. [영흥도 외1리 패총](한양대 박물관,2005), [덕적군도의 고고학적 연구](최몽룡외, 서울대 박물관 1999), 인천시립박물관의 [덕적군도종합학술조사](2002년) · [서해도서종합학술조사보고서](2003년) · [서해도서종합학술조사](2005년)

4) 이하, 웅진군의 배경에 대하여는 [웅진군지] 상권 p.13~28참조.

5) [고려사]권 104. [열전]17.김방경

령도 · 대청도 · 영흥도 등이 계속 유배지로 이용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장봉도와 신도는 강화도호부에, 영흥도, 소홀도(자월도)와 덕적도 등은 남양도호부에 속했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소속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 덕적도가 1486년(성종 17)에 남양도호부에서 인천도호부 관할로 바뀐다. 소홀도(자월도)는 1486년에 안산군에 소속되었다가 1519년(중종 14)에 다시 남양도호부로 환원되었다. 1652년(효종 3)에 덕적진, 1717년(숙종 43)에 장봉진, 1872년(고종 9)에는 영흥진을 설치하여 서해안 방어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1894년 갑오개혁 때 모두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많은 도서에 국영목장을 두어 말이나 소를 키웠다. 장봉도와 시도, 신도, 덕적도, 소홀도(자월도), 이측도(이작도), 승황도(승봉도)나 영흥도 등지에도 국영목장이 있었다. 그러나 목장을 경작지로 개간해 나간 탓도 있어 조선후기로 가면 폐목장이 많이 생겨났다.

1895년 23부제 개편 때에 승봉도는 인천부 덕적면 관할이 되고, 남양부의 자월도 · 이작도 · 영흥도 등이 영흥면으로 편제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남양군의 영흥면과 인천부의 덕적면을 부천군으로 이관하였으며, 강화부 소속의 제도면을 북도면으로 개칭하고 부천군 관할로 하였다.

1945년 해방당시 현재의 웅진군 지역은 모두 38선 이남이었으나 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를 관할하던 장연군과 연평도 · 소연평도를 관할하던 벽성군의 대부분 지역이 38선 이북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38선 이남의 이들 지역을 웅진군으로 재편성하고, 웅진군의 소속도 황해도에서 경기도로 바꾸었다. 그러나 1950년 6.25사변의 결과 38선 대신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웅진군은 관할하던 웅진반도와 벽성군 지역을 상실하고, 서해 5도만을 거느리게 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이후 다시 부천군의 영종면 · 북도면 · 덕적면 · 영흥면 · 대부면의 6개면과 장봉 · 무의 · 자월의 3개 출장소가 웅진군에 편입되었다. 이리하여 웅진군은 백령면과 송림면(현 연평면)에 새로 편입한 6개면을 합하여 8개면과 4개의 출장소를 관할하였다. 1983년 2월 15일에는 영흥면 자월출장소와 덕적면 승봉리를 통합하여 자월면을 신설함으로써 웅진군은 10개면 3출장소를 관할하였다.

1989년 1월 1일에는 영종면과 용유면을 인천직할시 중구로 편입하였다. 1994년 12월 26일에는 대부면을 안산시에 이관함으로써 7개면 2출장소로 축소되었다. 이때까지는 웅진군이 경기도 소속이었으나, 1995년 3월 1일부터는 인천광역시 소속이 되었다.

2019년도 웅진군 제공 토지지목별 현황에 의거하여 논면적을 보면, 영흥면은 2,590,094평방미터로 4개면 중에서 가장 많다. 다음은 북도면(1,830,164), 덕적면(약 1,208,427), 자월면(649,915) 순이다. 밭면적도 영흥면(1,810,416평방미터) > 북도면(1,713,675) > 덕적면(약 1,469,188) > 자월면(1,053,634) 순이다. 각 면별 전면적에 대한 임야나 논밭의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임야의 면별 전체비율은 덕적>자월>북도>영흥 순으로 낮다. 논비율은 북도>영흥>자월>덕적 순으로 적어진다.

〈표 1〉 면별 총면적에 대한 임야와 논밭의 비율 (2019년도 통계연보)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임야	64.7%	88.2%	84.8%	56.7%
논	10.4	3.3	3.7	9.7
밭	9.7	4.0	6.0	6.8

참고로, 필자의 방문 때인 1988년도 북도면 제공 통계자료에는 총면적이 1,719ha, 논면적은 185ha 이라 논비율이 10.8%되는 고로 1988년에 비해 논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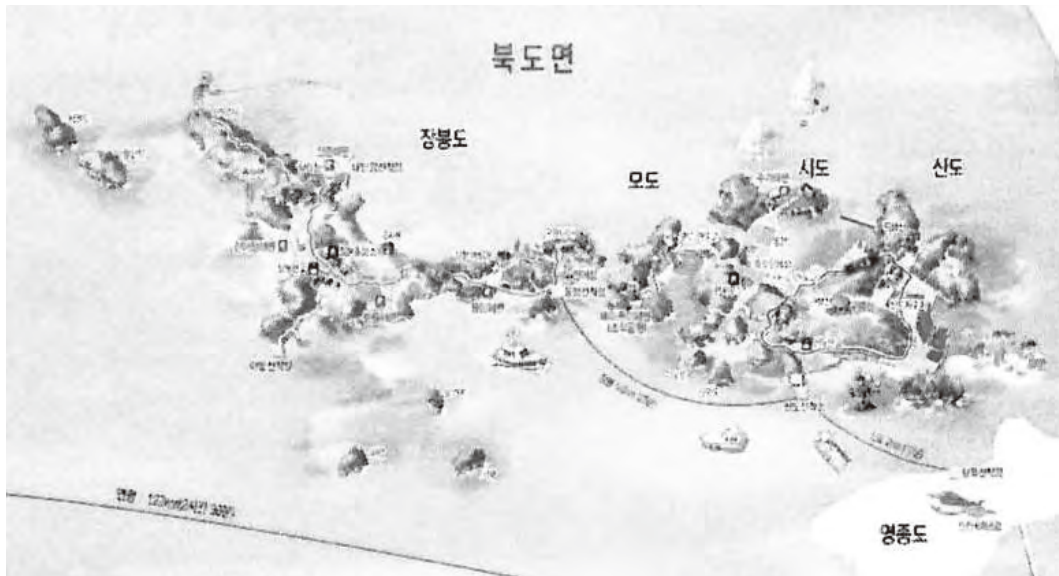
필자는 웅진섬 녹음을 주로 1987년과 1988년에 실시하였던 관계로 대부도와 영종도 및 용유도 민요도 녹음하였다.

대부도는 안산시 민요의 집필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하기로 하고, 영종도와 용유도는 부록으로 본서에 실었다. 이들의 논매기소리도 녹음하였으나 따로 묶을 기회가 있기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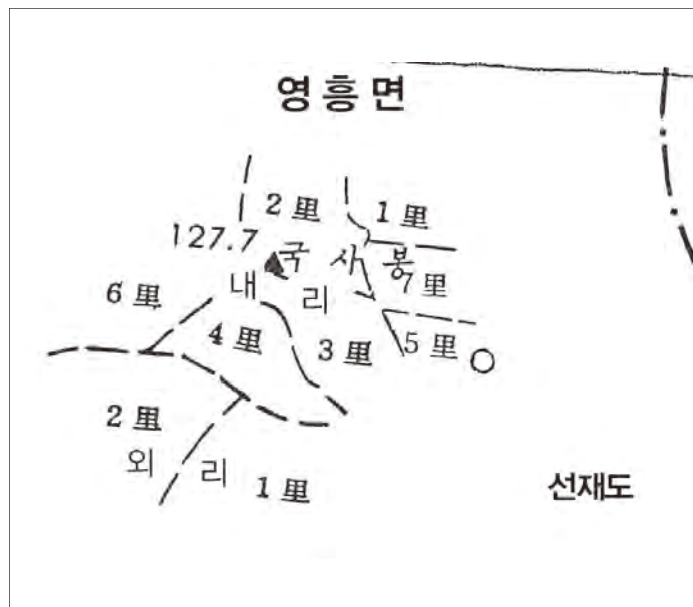
녹음지역은 〈그림 1~5〉와 〈표 1〉을 참조.



〈그림 1〉 웅진군 근해도서편 (북도 · 영흥 · 자월 · 덕적면) 위치



〈그림 2〉 북도면 녹음지역 참고



〈그림 3〉 영흥면 녹음지역 참고



〈그림 4〉 자월면 녹음지역 참고



〈그림 5〉 덕적면 녹음지역 참고

1.2 웅진섬 근해도서편 민요의 분류

노래의 역할, 쓰임새로 보아 단순히 친목을 도모한 여흥이나 자기 자신의 흥을 위한 심심풀이에 지나지않는지(음악 내적內的 기능), 그 외에 다른 쓰임새(음악 외적外的 기능)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일차적으로 흥(興)민요와 외적 기능요로 나눈 다음, 후자에 대해 다시 쓰임새의 종류에 따라 노동요·놀이요·의식요로 구분함은 본서에서와 같이, 기능(機能)에 의한 민요 분류에 속한다.

가창자가 노래부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무얼하면서 부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한 분류방법에는 기능에 의한 분류가 적격이다.

농업노동의 결실로 얻은 산출물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작업인 길쌈노래나 제분(製粉)노래를 농요의 범주에 넣어 다룰지 또는 별개의 노동요로서 분류할 지는 분류자의 필요에 따라서 달리 될 수 있다. 필자는 비교민요적 차원에서 여러민족의 농요를 특별히 연구해오고있는 필요상, 때에 따라서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여 광의의 농요로 다룬다.

웅진섬 민요를 기능별로 분류하자면, 우선 대상을 기준으로 향유 주체 또는 객체가 어린이인 민요를 전래노동요로 묶어 일반 민요와 구별한 다음, 음악외적(外的) 기능 여부에 따라 흥민요와 외적 기능요로 대별되며, 외적 기능요는 노동요·놀이요·의식요로 나누인다.

노동요란 노동(勞動; 육체적 노력을 들여 일을 함)에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예; 배치기)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노동요는 그 일의 종류에 따라 농요, 어로요, 임업노동요 및 잡역요로 나누인다.

의식요는 의식 노동요(운상소리, 회다지소리, 원앙소리, 줄땀소리)와 의식 풍속요(고사소리, 지신풀이, 독축, 액막이소리 등)로 나누인다.

곱새치기는 놀음놀이요에 속하지만, 백령도나 대청도 사람들은 주로 장례 전날에 모여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는 경우가 많아 3개면 책자에서는 의식요의 시작부분에서 다루었지만, 본서에서는 흥민요란에서 다루었다.

웅진군의 근해도서편 사람들의 민요로는 모심기·논매기·밭매기·소부림말 <웅진 1~4, 6~12①, 13~16 20~22, 23②, 모심을 때의 25, 44②>을 일반 농요로 묶었다. 사촌성님 <웅진 21, 22>은 시집살이 노래로 흥민요 편에 분류하기도 하지만, 본서에서는 여성들이 밭매면서 흔히 읊조리게 됨을 감안하여 밭매기소리로 다루었다. <웅진 25>는 자월도에서 상쇠가 고사소리 끝에 부르지만, 모심을 때 부르기도 한다고 하여 이곳에 포함시켰다.

길쌈노래인 삼삼기와 베틀노래 <웅진 12②, 24>는 광의의 농요로 다루었다.

<웅진 28~32>는 해주 부근 동광면에서 북도면으로 피난온 분의 가창이고 북도면 지역의 고유한 농요가 아닌 고로 따로 묶었다.

임업노동요로서는 나무꾼소리〈웅진 5, 17~19, 26, 27, 43②〉가 수집되었다.

어업요로는 노젓는 소리〈웅진 33〉·그물을 당기는 소리〈웅진 34〉·굴 딸 때의 민요〈웅진 26, 42, 43①, 44①〉·배치기〈웅진 35~41〉가 나왔다.

그밖에 동요 류〈웅진 45~58, 59②, 60〉, 흥민요 〈웅진 59①, 61~92〉 및 의식요〈웅진 93~116〉를 실었다.

1.3 가창자

웅진섬 근해도서편의 가창자는 아래와 같다.

〈표 2〉 웅진섬 근해도서편(영흥·덕적·북도·자월면)민요 가창자 (나요당 이소라 조사)

素(음원)	읍면(마을)	가창자(출생년도)	1.모내기 2.논매기 3.어로요 4.기타 일노래 5.동요 6.흥민요 7.의식요 8.기타
87-8-11②AB	자월면,용유면	강준여 (1996. 여. 자월출생. 용유로시집움)	1,4,5,6
87-8-25①B	자월면(이적), 대부도(북2)	김화분 (19280이적도출생. 여. 1967년경 북2리 이주)	6.
87-8-25①B	영흥면(내4)	김인환 (1914. 남. 토민)	2, 8(대담)
87-9-14①A	영흥면(내4)	김인환 (1914. 남. 토민) 김기선 (1926. 남. 토민) 박상석 (1934. 남. 6세부터거주토민)	1, 2, 4, 6, 7
87-9-14②	덕적면(서포2)	김현쇠 (1912. 남. 토민)	7
“	“	문인예 (1909. 여. 토민)	3, 4, 6
“	“	문분김 (1910. 여. 토민)	5, 6, 7
87-11-13①	덕적면(서포2)	오정금 (1910. 여. 토민)	1, 2, 4, 5, 6, 7
“	“	인권옥 (1922. 남. 서포2출생)	3, 6
“	“	이재운 (1900. 남)	4
87-11-13①B	덕적면(북2)	정유성 (1915 소아리출생. 남. 27세때 북2이주)	6
“	“	이정열 (1922소아리출생. 여. 정유성 부인)	6
“	“	최윤열 (1913. 여. 토민)	4, 5, 6
“	“	김태심 (1913. 여. 토민)	6
87-11-13②A	덕적면(북2)	문송준 (1919. 남. 토민)	3, 6, 7

87-11-13㉔A	덕적면(소야)	서재옥 (1920. 여. 서포출생)	6
“	“	서윤예 (1915. 여. 토민)	3, 5, 6
“	“	배병윤 (1927. 남. 토민)	3, 7
“	덕적면(진2)	이운호 (1932. 남. 토민)	3, 4, 6
“	덕적면(서포1)	장석진 (1939. 남. 토민)	7
88-7-12㉔AB	북도면(장봉)	박명규 (1925. 남. 토민)	3, 4, 6, 7
“	“	김창식 (1919. 남. 토민)	2, 3, 6, 7
“	“	김재환 (1915. 남. 토민)	5, 6
88-7-12㉔B	“	임성복 (1923. 해주부근인 동강면 덕현리 출생. 남. 피난음)	1, 2, 4, 6, 7
88-8-1A	“	“	6
“	북도면 (시도)	최원식 (1939. 남. 연백군 청용면 용매도 출생. 남. 16세에 연평도로 피난갔 다가 시도 이주)	3, 5, 7
88-8-1A	북도면(시도)	백탐실 (1914. 여. 토민)	5
“	“	백광식 (1917. 남. 토민)	3, 7
“	“	백기열 (1912. 남. 토민)	3, 6, 7
88-8-1AB	“(신도2)	라만석 (1932. 남. 토민) 전원실 (1900. 남. 토민)	2, 6, 7
88-8-1B	“(신도2)	김봉윤(1917.남.토민)	1, 2, 6, 7
88-8-2A	“	“	6, 7
92-1-31B	연평도, 덕적도	이정옥 (1949. 해주시 출생. 여. 2세에 연평도 피난. 덕적도 이주)	덕적도 배치기(김포노트3-26에채보
2019.4.11	자월도 (자월2리 동촌)	천용우 (1937. 남. 토민) 남진섭 (1931. 남. 토민) 김영민 (노인회장)	1, 7, 8(대담)
“	“	배춘난 (1927)작도출생 .여. 동촌으로 시집옴)	5
“	“	김요지 (1942. 여. 토민)	5,
“	“	최종열 (1931)덕적도출생. 여. 19세에 동촌 시집옴)	5,
2019.5.28	영흥면(내4)	임평택 (1944. 남. 토민)	5, 7(널 액막음 등).
“	“	태동철 (1939.남.내4출신)	5.

2019.5.28	영흥면 (외2리, 내4리)	김기수 (1948외2리출생. 남. 21세에 내4리 이주)	6, 7.
2019.9.18	승봉도	김인화 (1937. 남. 토민)	7(초혼, 운상, 달구, 뗏간), 8(대담)
“	“	정귀진 (1937. 남. 토민) 정인수 (1937. 남. 토민) 김인국 (1940. 남. 토민)	7(운상, 달구)
“	“	김월랑 (1935. 여. 토민)	3, 4, 6.
“	“	강기열 (1936. 여. 토민)	5.
		강금숙 (1943. 여. 토민)	5, 6.

〈부록〉

87-5-22A	옛 웅진군 영종면(문서8)	차연환(1930.남.토민)	1,2
“	“(운남5)	김기안(1913.남.토민)	1,3,6
87-5-22B	옛 웅진군 용유면(을왕2)	정소아(1920.여.장연군출생.16세에해안면 시집-33세에 백령도 피난-을왕2거주)	1,4,7
87-8-11①A	“	“	3,4,5,6,7
87-8-11①B	용유면(을왕3)	이의강(1918.남.토민)	1
87-8-11②B	용유면(을왕3)	이인강(1916.남.토민.이의강의 형)	1,2,4
88-8-1A	인천 도림동, 선학동	최옥순(1919도림동출생.여.17세에 선학동 시집옴)	5,6.
“	인천 선학동	공용덕(1918.남.토민)	6,8(모내기,운상 대담)



사진1. 영흥면 내4리 가창자와 녹음협조자들(1987년)
좌측에서 이상원 면장, 김인환, 김지선
박상석, 김기순 총무계장



사진2. 영흥면 내4리(1987년)
김인환(74세때, 시계 찬 분)
김지선(62세때)



사진3. 영흥면 외1리에서
김종만(73세때)



사진4. 영흥면. 2019년 가창자들
태동철(모자), 김기수, 임평택



사진5. 영흥도



사진6. 북도면 장봉도에서. 오른쪽 끝이 임성복
(흰고무신), 중간에 모자 쓴 분이 박명규,
뒷줄에 모자쓴분과 모자쓴분사이 김창식



사진7. 북도면 신도리에서
전원실



사진8. 북도면 신도리에서
김봉윤(모자 안쓴분), 라만석(밀짚모자),
최원석



사진9. 북도면 신도와 시도 사이에서



사진10. 북도면 시도에서(1988.8.1)



사진11. 덕적면 소야리에서
배병윤(61세때)
임배진 부면장(키작은분)



사진12. 덕적면 소야리의 지계를 지고 호미를 든
녹음협조자



사진13. 덕적면 소야리 배계출씨덕에서
서재옥(68세때)
서윤예(73세때)



사진14. 덕적면 서포2리에서
가창자 김현쇠와 임배진 부면장



사진15. 덕적면 서포2리에서
인권옥



사진16. 덕적면 서포2리에서
문인예(키작은 분), 문분김(수건쓴 분),
오정금



사진17. 덕적면 북2리의 가창자
문송준



사진18. 덕적면에서, 녹음협조자들



사진19. 덕적면 서포2리(1987년도)



사진20. 덕적면의 굴뚝(1987년)



사진21. 자월면 자월2리 동촌 가창자들
(좌로부터 김영민 노인회장, 남진섭
천용우)과 문화원 김도영 이사



사진22. 자월면 동촌 자택앞에서
김요지(2019.4.12)



사진23. 자월면 동춘회관에서
배춘난



사진24. 다리허기동요 시연
왼쪽이 김요지, 최종열



사진25. 자월면 이적리 출신
김화분



사진26. 자월면 출신
강준여(여)



사진27. 승봉도 마을회관에서(2019.9.18)
김인화 노인회장



사진28. 가창자들(김인화, 정귀진, 정인수)과
김경협 국장



사진29. 승봉도의 여성 가창자들
왼쪽부터 강금숙, 강기열, 김월량(모자)



사진30. 김월량



사진31. 강기열



사진32. 강금숙

2. 웅진섬 근해도서편 민요의 특색

(1) [웅진섬 민요집](백령·대청·연평면 편)(이하, 3개면 편)에서는 어로요의 비중이 높았음에 비해 [근해도서편]에서는 농요의 비중이 조금 커졌다. [근해도서편]의 어로요로는 노젓는소리와 그물 당기는 소리, 굴따기 및 배치기소리를 수집하였다. 굴 딸 때 흔히 청춘가 곡풍으로 가창함은 근해도서의 한 특징이다.

(2) [근해도서편]의 <웅진군 영흥면 내4리 농요> 즉, <웅진섬 버드니 농요>는 비지정 무형문화재로 길이 보호할 만하다. 농요는 그 지역의 개성있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우선 쉽게 알 수 있는 계보로는 김인환-김기선-박상석이 될 것 같다. 버드니 농요는 모심는소리와 논매는소리 및 나무꾼소리로 구성된다.

모심는소리는 하나류의 나열형에 속하나 열소리 형의 영향도 보인다.

논매기소리에는 호미 매기 때의 덩어리 류와 만물 때의 긴소리·상사·몬돌소리가 있다.

논매기 서두에 “군방네 -”를 찾으먼, 논매기꾼들 중에서 처음부터 응답을 하되 첫 번째는 “산신령님한테 올릿시다-”로, 두 번째는 “서낭님한테 올릿시다-”, 세 번째는 “좌상님한테 올릿시다-”로 화답함이 특별하다. 호미매기 첫소리의 받음구 예는 “에 헬쭈 덩어 리야”이며, 두 번째 소리의 그것은 “얼카 덩어리야”이다. 얼카덩어리 류는 서부 충남이 문화중심이며 충남지방의 대표적인 논매기소리로, 남부 경기도에까지 전파되어 있다. 문화중심권의 느린 얼카덩어리 류가 본 모습이지만, 내4리의 경우는 잦은 얼카덩어리 류에 속한다.

만물 매기의 첫소리인 <긴소리>는 유장하여 어려우므로, 서두에 선소리꾼이 “군방네 -”를 찾아 3회 화답을 들은 다음, “골라 서라!”하고 소리 잘 받는 사람 몇을 두 패로 따로 내세우는 점이 호미매기 때와 다르다. 메김소리꾼이 “- - - 신농씨의, 농사 - 로다”하고 맥이면, A패가 “에 헤 - 이, 이 에- 에라”로 받고 이어서 B패가 “아 - 이, 이에 - 에라”로 잇는다. <긴소리>는 내4리의 개성적인 논매기소리이다.

한 배미를 다 매갈 즈음이 되면 메김소리꾼이 상사소리로 들어간다. 받음소리꾼들은 “에렐렐 넬넬 상사 디야/ 에 레엘넬 상사 디야”하고 굿거리 2장단으로 받고 선소리꾼은 1장단씩 맥여간다.

다른 배미로 넘어가기 전에 동그랗게 모여들며 에음을 싸면서 몬돌소리(받: “에이여라 몬돌”)를 부른다. 끝은 “에이 여라 휘이 휘이-”로 맺는다. 이는 서부 경기도 <우야소리>의 영향인 새쫓는 소리이며 풍년을 구가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메김소리꾼이 속도를 늦추어 ‘에이’를 소리내면 받음소리꾼들도 알아차리고 나머지 ‘여라 휘이 휘이-’를 제창하면 될 것이다.

막간에 김인환(1914년생. 남. 내4리 토민)이 오래 친구들과 나무하러가면서 부르곤 했다는 경쾌한 나무꾼소리<웅진 5>를 넣으면 더욱 좋은 짜임이 될 것 같다.

(3) 영흥면 내4리의 논매기소리 이외에도 근해도서엔 방아소리 류의 느린방아 형<웅진 2>과 짜른방아 형<웅진 3②, 11>이 분포한다. 북도면의 “에이여라 상사데야”는 상사 류 중에서도 ‘상사’의 앞에 ‘에이여라’라는 결말이 붙은 앞결말상사 형에 속한다.

근해도서 중에서도 특히 덕적도에서는 부인네들이 논도 매고 나무하러 지게를 지고 다녔다. 내륙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웅진 14>처럼 여자들이 논을 매며 신세자탄 류를 불렀던 예가 나왔다. 진도같은 섬에서도 부인네들이 논매기에 참여했던 것을 보면, 남정네들이 배를 타는 경우가 많은 섬지방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백령면 등 3개면의 (논)김매는소리로는 모두 외부지역 유입소리인 예용소리와 자진 난봉가, 어화나등등, 및 청춘가 곡이 불렸다.

(4) 영흥면 이외의 근해도서지역의 모심는소리에서도 하나 류의 나열형이 보이고 북도면<웅진 8>의 경우처럼 조금 더 수를 세는 모습도 보인다. 육지에서도 모심는소리는 16세기 이양법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발생하고 보급되는 경향이 있어, 가족단위로 모심는 정도에서는 노래가 없는 곳이 더러 있는 것처럼 근해도서지역에서도 북도면 신도2리에서와 같이 모심는 소리가 없거나, 자월면 자월2리 동촌처럼 고사소리에 이어 불렀던 농사노래를 활용하기도 하고, 창부타령이나 청춘가 등을 흥얼거렸던 것으로 나타난다.

백령면 등 3개면에서는 피난자로부터 수집될 뿐, 자체의 모심는소리는 불리우지않은 것으로 보였다.

(5) 백령도 등 3개면에서는 발갈이 때에 저리소를 부렸지만, 근해도서에서는 호리소를 부리므로 소부림말은 이라, 어더 어더, 위 - 등 통민요적이다. 소달구지를 타고 오며 불렀던 감내기소리가 피난자로부터 수집은 되지만, 근해도서지역에 전파는 되지않았다.

(6) 백령도에서는 평안도 특색의 물레타령, 서부 황해도 지역의 망질소리, 지정류와 지점 류의 집터다짐소리가 수집된데 비해, 삼삼는 지역인 자월면 출신자로부터 잠이 와서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삼삼기노래와 유성기관 보급으로 인한 일반 유형의 베틀가를 수집하였고, 영흥면에서 경기도가 본고장인 지경류의 집터다짐소리 흔적이 나왔을 뿐이다.

(7) 자월면 등 근해도서지역에 춘향살이 놀이는 보급되지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물요로는 전봉준을 소재로 한 새쫓는 소리와 잠자리 동요를 실었다. 잠자리 명칭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바, 자월면에서는 ‘잠자리’라 칭하였다. 서울의 예는 ‘짹아’임에 비해 표준어인 ‘잠자리’는 함평·장성·보성군·광양시 일부와 같은 전남지역에서 확인된다. 자월도·이작도·송봉도와 같은 자월면에서의 잠자리 동요는 “잠자라 꿈자라, 앓안 깔 지장 깔, 구암마루 밥숫갈”이며, 내륙에서의 “앓으면 살고 서면

죽고, 멀리 멀리 가면 똥물먹고 죽는다”는 유형은 나오지 않았다.

다리헤기 동요는 이거리 류와 한알대(한올대) 류가 나왔다. 전자는 전국적으로 보다 다양한 지역에 분포함에 비해, 후자는 경기도 지역에 비중이 간다.

백령도 등 3개면에서는 자장가의 특수형인 ‘잠네 잠네’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보였음에 비해, 근해도서편에서는 ‘잠네’형은 나오지 않았고, ‘자장자장’으로 말 문을 여는 경우가 다수였다.

애기어름소리로 달강 류와 불아 류는 통민요적이며 시작말에 따라 지역적인 분류가 되고 있는데, 웅진섬의 애기어름소리는 자장가와 결함을 보이는 등, 육지로부터 전파의 끝인, 변두리적 양상을 띤다.

(8) 본서의 흥민요 중에서 북한지역이 문화중심인 곡은 난봉가 류와 어랑타령, 몽금포타령 및 산염불인 바, 전2자는 근해지역 토민들로부터, 후2자는 피난은 가창자로부터 녹음하였다. 이에 비해 백령면 등 3개면에서는 후2자가 토민들에게도 전파되어있었다.

꼬닥꼬닥은 꽃 중에서도 제일 고운 진달래 꽃이 말라 비틀어진 모습을 띄우는 것을 자기의 신세에 비추어 창부타령 곡풍에 얹어 한탄조로 나간다.

담방구는 ‘동래나 울산(월선, 월산)’의 담방구(담바구)를 읊은 담배를 소재로 한, 일반형이 수집되었다. 말미에, 딸이 있거든 날 사위 삼으라고 나이 어린 딸을 둔 할머니께 수작을 건 가창자도 있다.

범벅타령은 1925년경에 지어 불려오는 중부 경기지방의 노래로 서방있는 여인네가 바람을 피워 훗 낭군인 이도령 잡술 월별 범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술선법의 창부타령 곡풍으로 가창하였다.

군밤타령은 첫 행의 중간과 끝머리에 ‘오냐’라는 대귀를 넣는 점이 경기지방 신민요로 분류되는 일반 군밤타령이나 [웅진섬]3개면의 것과 다르다.

임성복 창 변강수타령은 서도식 변강수타령이다. 처음은 변강수의 심사가 고약함을 읊고 두 번째는 잘 생긴 아내와 사이좋게 노는 장면을, 세 번째는 산으로 나무하러 가는 장면이고, 네 번째는 산에서 내려와 신세자탄하는 대목이다. 중부 경기지방 음조적인 술선법(S1.v1,4,5,6.t1)을 취하지만, 4도윗음요성(v4)이 혼함은 가창자가 해주 부근에서 피난온 자임을 상기시킨다.

상주를 위로할 겸, 장례 전날에 친지들과 동네사람들이 상가에 모여 밤을 새우기 위해 놀았던 일종의 투전놀이 노래인 곱새치기를 대청면과 백령면에 이어 북도면과 덕적면에서도 녹음하였다. 이는 경기도 김포시나 강화군, 충북 괴산군. 강원도 정선군의 곱새치기(곱사치기) 및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싸시래기(싸시랭이)나 강원도 태백시의 사스랭이와도 상통한다.

굴을 따면서 청춘가 곡풍으로 이따금 흥얼거림은 웅진군 내에서도 근해도서 지역의 한 문화적 특색이다. 청춘가 곡풍은 통민요 적이며 나무꾼소리로도 애용된다. 청춘가 곡의 특징인 제3행 끝박에 ‘좋다’가 붙은 예도 있지만, 본서에서는 ‘좋다’ 대신에 바로 앞박의 토씨를 반복한다거나, ‘에루화’ 등

을 넣기도 하였다.

창부타령 곡은 경기도의 굿판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그 가락의 흥겨움과 유성기관의 보급으로 인해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애창된다.

노랫가락은 본래 경기도굿에서 부르던 노래였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소리꾼들에 의해 다듬어져 성창되었다. 전국적으로 전파되었으며, 흔히 나무꾼소리로도 활용된다. 자월면 승봉도 토민의 창은 육이오 사변을 소재로 한 특수형이며, 비(非)계단식 종지를 한다(t4).

학문적으로 방아소리와 구별되는 방아타령에는 <논김 방아타령>과 <니나누 방아타령> 및 <우거라 방아>가 있다. <우거라 방아> 형은 <니나누 방아타령>에서 '나니가'이하가 생략된 형태를 가리킨다. 이들의 메김구는 흔히 “엣다 좋구나”류로 말문을 연다. <웅진 66②>에서는 “노자 지영구나”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방아타령>은 경기지방에서만 논매기소리로 활용된다. <66②>는 홍민요로 수집되었으며, <우거라 방아> 형에 속한다.

현장에서 가창자들이 양산도라고 일컫는 곡에는 크게 세가지 부류가 있다. 그 하나는 화순형 논매양산도이며 “에 헤기나 양산도로구나”처럼 받음구에 ‘양산도’라는 어휘를 가지고 있다. 그 둘은 논김양산도이다. 파주나 연천군, 고양시, 포천군, 광명시와 같은 경기도에만 분포한다. 파주나 연천군은 KA형이며 고양시와 포천군 및 광명시는 KB형인데, KA형의 받음구 끝인 ‘호 호우오-’가 생략된 모습이다. 화순형 논매양산도나 경기지방 논김양산도도 그 메김소리는 일반 홍민요 양산도와 동류이다. 본서의 수집 예에는 받음구가 없어 일음 일반 홍민요 양산도로 배정한 바, 그 선율은 홍민요 양산도의 “아서라 말어라 -”와 같은 반복부분을 닮았다.

뱃놀이 <웅진 77②, 80①> 곡에 대해 이창배는 ‘에야노 야누’ 같은 후렴구가 다분히 일본말에 가까운 구호인 고로 “어기가 디여차”로 바꾸었다고 하였는데, 근해도서편이나 백령도 등 3개면 편에서는 바꾸지않고 불렀다. <남물이 들었네>는 뱃놀이 곡에 잘 나오는 가사이다. 석탄백탄은 서울 근교에서 불리어지던 신민요 사발가(砂鉢歌)의 대표적인 사설의 하나이다. 수집한 아리랑은 북도면 토민으로 부터의 것으로, 1926년에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주제가로 인해 널리 보급된 일반 아리랑(나운규 아리랑, 영화 아리랑)이다. 본서의 도라지 타령은 경기지역 신민요 계통이다.

북도면과 덕적면의 토민들로부터 황해도가 문화중심지역인 잣은난봉가와 박연폭포와 같은 난봉가류를 녹음하였다. 이들의 후렴구 예는 4마디중 첫마디가 ‘에헤’계통이고 두 번째마디는 ‘어 어허’ 또는 ‘어야로다’ 세 번째 마디는 ‘어야 어야 디야라’, 넷째마디는 ‘내 사랑아’ 류이다. 근해도서편에서는 두 번째마디 이하가 가창자의 재량에 따라 여러 어휘로 바껴 있다. 12/8박의 본문선율 4마디에 후렴4마디로 짜여진다.

어랑타령은 함경도의 대표적인 민요로 꼽히는 바, 승봉도 토민으로부터 수집하였다.

뭉금포타령과 산염불을 해주 부근 동강면에서 북도면 장봉도로 피난온 임성복 창으로 수집하였다. 산염불은 황해도 민중의 대표적인 민요 중의 하나로 흥민요로도 부르지만, 운상(運喪)하면서도 불렀고, 황해도 봉산 출신 김유경 처럼 추수하면서도 불렀다. 강화군이나 김포시에서도 산을 오르며 운상할 때의 소리로 수집이 된다.

(9) 의식풍속요로는 삼신비손과 고사덕담소리, 사람이 죽었을 때의 초혼과 장례 당일의 발인축을 실었다. 그밖에 승봉도의 뗏간 풍속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자월도의 자월2리 동촌과 영흥면 내4리에서는 정초부터 정월보름까지 원하는 집에 가서 풍장을 울려주면서 고사덕담소리를 하며 놀았다. 내4리의 고사덕담소리를 보면,

자월2리 동촌처럼 국태민안에서 이씨 한양 등국시를 읊으나, 영흥의 모씨댁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길다. 이어서 호구별상 손님마마가 첨가되고 아기가 대천바다 물밑 듯이 덩굴밑에 호박 자라듯 커서 글을 배우고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를 쓰고 금의환향한다는 것과 딸아기도 축복한 후, 살풀이로 이어진다. 열두달 액풀이도 하고서는 여러 가지 생업을 위한 장사 풀이로 들어가며, 농사풀이로 단락을 짓는다. 여기까지는 일반 고사소리처럼 몇구절 말하듯한 억양으로 읊은 다음, 농사풀이에서 가창자들은 벼(자채벼, 메따래기, 유기찰, 사발벼, 검불벼, 정근벼, 노인벼, 흘짜벼, 돼지찰, 팔성벼, 다마금, 광주 문원에 사발베, 마당쓰레기 건물베, 회다질 때 닳는 베, 환갑 진갑에 노인 베)와 보리(올보리, 갈보리, 올사보리, 살살보리, 중매보리, 육모보리), 콩팥(올콩 줄콩, 주너니콩, 푸르데콩, 흘애비콩, 강남콩, 검정콩, 적두팥)을 종류별로 읊고 있다. 자월2리 동촌에서는 상사소리를 받음구로 하여 권농가사로 노래하였는데, 내4리에서는 염불조의 노래로 맺는다.

승봉도의 뗏간 풍속은 묘를 쓰고 산에서 내려오며 행하는 드물게 수집되는 헛상여 풍속이다. 연평도의 너시랑소리, 제주도의 원님놀이나 경북 예천군·의성군 일부지역, 경남 하동군과 밀양시 일부지역, 전남의 광양읍이나 보성군 벌교읍, 담양군의 용면 추성리와 무정면 칠전리의 헛소리 등도 헛상여 풍속에 속한다.

(10) 의식노동요로는 방안 운구나 널 액막음소리, 상여를 올려멜 때와 내릴 때의 신호, 하직인사할 때의 어름소리와, 평길운상소리, 오르막 운상소리, 봉분 가래질소리 및 묘터 달구질소리가 이에 속한다.

영흥면 내4리에서 방안에 뒹눴던 널을 들면서 “구천 길 -”외친다거나 문지방 나갈 때의 “남세”소리는 근해도서편의 지역적 특성으로 보인다. 자월2리 동촌에서는 문지방 나가면서 “슬근슬근 툽질

이야”로 외치는 바, 툇질 류의 널 액막음소리가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천안시, 세종시 및 괴산군에도 분포한다. “남세-”라는 용어는 상여를 올려뒀 때와 내릴 때의 신호로도 쓰이고, 영흥면에서 처럼 오르막운상소리로도 쓰인다. 하직인사할 때의 어름소리 받음구로는 “에 에-이, 이여-오 에-”(영흥면), “나무아미타불”(자월2리), “어-허이 넘차하이 너어로다”(덕적면 소야도) 등의 예가 있다.

북도면 토민들의 평길운상소리는 너호 류가 우세하며, 덕적면 서포리의 그것은 노화 류이다. 자월면 승봉도도 “어이,어히 어히 어이”와 같은 비(非)넘차류임에 비해 영흥면과 자월도 자월2리 및 덕적면 소야도의 경우는 넘차 류에 속한다. 넘차류는 경북지방에 많으나 상주를 비롯한 서부 경북과 충남지방은 비(非)넘차류를 선호한다. 경기지방은 한마디소리가 우세하며, 두마디소리 중에서도 넘차류가 비넘차류에 비해 우세하다.

오르막 운상소리로는 덕적면의 소야리·북2리·서포2리에서 녹음한 ‘중화’류가 흥미롭다. 충남 지방의 개성적인 마을길소리로 드물게 수집되는 ‘중해’류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봉분 가래질소리로는 자월도와 덕적면 소야도에서 가래 류의 느린 가래소리가 나왔고, 영흥면 내4리에서는 “어하” “자하”로 받는 잣은가래소리가 나왔다. 달구질소리로는 영흥면 내4리에서 본격적인 회다지기에 들어가 기전의 아웁소리가 이채롭다. “에이여리 다알고”와 같은 달고 류의 한마디소리로 받으면서 보통은 3채를 다진다. 매채의 끝엔 “에이 여라 휘 휘”로 단락을 짓는 바, 이는 경기지방에서 새가 고인의 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상이 표현된 <우야소리>의 영향으로 보인다.

(11) 육지의 부인네들은 대개 다른 지역에서 시집을 와서 사는 이들이 많아 그 지역 토민의 음조적을 분석할 때는 제외하곤 하는데, 본서의 웅진섬에서도 백령면 등 3개면에서와 같이 그 섬의 토민들인 부녀들이 분석 대상이 되곤 함도 지역적 특색이다.

토민의 음조적을 보기위해 분석되어있는 몇곡을 주⁶⁾에 종합해 본다. 주(註)에서 보면 분석한 토민

6) 영흥면 내4리 호미매기<웅진 1④> ; S1.t4. 잣은 덩어리<웅진 1⑤> ; S2+L1.t1.
 영흥면 내4리 상사,문돌<1②③> ; L1.t4. 청춘가<26,27,42,43①> ; S1.(음역 11도,9도)
 창부타령 <73②> ; S1.v1,4.(음역 9도) 북도면 토민의 자진 난봉가<68> : S2.(v4).t4.
 평길운상 영흥면 내4 박상석 등<99②> ; M1.v4.t1.
 평길운상 영흥면 내4 김기수 등<102③> ; M4.v4.t1,4.
 다리건너기전 긴 운상 영흥면 내4 김기수 등<102①> ; S1.v4.t1.
 평길운상 자월면 승봉 김인화 등<104②> ; 출현음-솔도레.v1,4.t1.
 평길운상 덕적면 소야 배병윤 <106③> ; S4.v1,4.t1-2.
 평길운상 덕적면 북2 문송준 <107②> ; 출현음-솔도레.v1,4.t1,4.
 평길운상 덕적면 서포2 김현희 <108②> ; S1.v1.t1-2g.
 평길운상 덕적면 서포1 장석진 등 <109①> ; S1.v1,4,5.t1.
 평길운상 북도면 신도2 라만석 등<110①> ; 출현음-미라도. v1,4.t1
 평길운상 북도면 신도2 전원실<111①> ; (L4.v1)+(M3.v1,4.t1)

들의 선율엔 술선편(S)계통이 많다. 자진난봉가는 황해도가 문화중심인 곡이며 백령면 등 3개면 편에서는 이른바 서도민요적 선법인 수심가토리가 농후한데 비해 북도면 토민이 부른 경우<웅진 68>는 술선편 계통(S2)이다. 평길운상소리는 미선편(M)계열의 비중이 술선편 계통에 비해 절반을 넘는다.



〈사진 33〉 자월 초등학교 앞의 논 (2019.4.12.)



〈사진 34〉 자월2리 동촌 김요지 맥 부근 논 (2019.4.12.)



〈사진 35〉 영흥면의 논 (2019.5.28.)



〈사진 36〉 승봉도의 논(2019.9.19)



〈사진 37〉머리숙인 벼(2019.9.19.승봉도)



〈사진 38〉덕적면 소아리 (드물게 있는 논,1987.11.14.)

3. 농요

3.1 영흥면 버드니 농요

웅진군 영흥면의 내4리⁷⁾는 예전에 ‘버드니’라 불렀다고 한다(김인환). 영흥면은 예전에 서산이나 당진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로의 중간 기착지였다(김기선). 버드니 농요는 모심는소리와 논매는소리 및 나무꾼소리로 구성된다.

내4리에서는 물을 품지않았다. 타작 때는 여럿이 작업하더라도 별소리가 없다. 자리개질도 했었다.(김인환)⁸⁾.

(1) 모심는 소리 <웅진 6>

<웅진 6>은 영흥면 토민인 김기동(1916년생,여) 제보이다. “여기도 하나 심었네/ 저기도 하나 심었네/ 올해는 대석이요/ 내년엔 ()석이요”라 일러주었다.

<웅진 6>은 하나류 중에서도 나열형 계통⁹⁾으로 보인다. 위의 ()속을 나열형 계통 예로 매꾼다면, 양석이요의 ‘양’이 적합하다.

김인환<사진 2>은 내4리에서 모심을 때 40명도 심고 60명도 심었으며, 여자들이 유행가를 부르기도 하였단다. 한움큼 모를 쥐고 자기 방향대로 심으면서 하나,둘...세어서 100까지 셀 수도 있고, “하나간데 둘 못가랴” “둘 간데 셋 못가랴, 셋 간데 넷 못가랴”하면서 혼자 세어나가기도 한다고 하였다(素87-9-14 ①B).

김인환의 제보에서 ‘셋 간데 넷 못가랴’가 눈에 띄인다. 이렇게 계속 수를 세어 열까지 갔다가 ‘새로 하나’로 돌아와 다시 반복하여 세어나가는 것이 열소리 형이다. 논배미의 크기에 따라 일곱까지도 세고 아홉까지도 센다. 재현할 때는 내4리 논배미의 크기를 감안하여 <웅진 6>에 이어 세어나가고 ‘새로 하나’로 반복하면 될 것 같다.

(2) 논매는소리 <웅진 1>

<웅진 1>에서 보면, 영흥면 내4리의 논매기소리에는 호미 매기 때의 덩어리 류<웅진 1④⑤>와 만

7) 내4리의 1987년도 일반현황을 보면, 총면적은 290.3ha. 논면적은 61ha.로 그 논비율이 21.4%나 된다. 밭비율은 6.3%. 임야는 44.8%된다. 농가는 76호. 비농가는 23호였다.

8) 내4리에선 줄다리기가 없었다. 씨름은 있으나 노래가 없으며 송아지를 상으로 탔다.

9) 이소라,[경기도 모심는소리의 양상과 민요권](下)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2008.345쪽.

물 때의 긴소리·상사·몬돌소리<웅진 1①②③>가 있다.

i. 호미 매기 <웅진 1④⑤>

영흥4리 논은 논바닥이 모래땅이 돼서 힘들었다. 영흥도에서도 외1리 같은 경우는 논맬 필요가 없었지만(김종만), 영흥4리에서는 호미질 할 때 “덩어리”소리 해가며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논을 땀다(김인환).

호미 매기 때에도 <1①> 서두에서와 같은 “군방네 -”를 찾았을 것 같다.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회다지소리 때는 선소리꾼이 서두에 군방네를 찾되, 일반 달구꾼들은 두번을 불러도 대답하지않다가 세 번째야 비로소 응답함을 종종 볼 수 있는 바¹⁰⁾, 내4리에서는 논매기소리 시작 때에 군방네를 찾으며, 논매기꾼들 중에서 처음부터 응답을 하되 첫 번째는 “산신령님한테 올릿시다.”로, 두 번째는 “서낭님한테 올릿시다.”, 세 번째는 “좌상님한테 올릿시다.”로 화답함이 특별하다.

만물 매기의 첫소리는 유장하여 소리 받을 줄 아는 사람을 따로 내세우기 위해 선소리꾼이 “골라서라!”하고 소리 받을 사람 몇을 내세우지만, 호미매기 첫소리는 어렵지않은 고로 따로 골라세울 필요가 없어보인다.

호미매기 첫소리<웅진 1④>의 받음구 예는 “에 헬쭈 덩어 리야”이다. 메김소리(메)와 받음소리(받)가 각각 12/8박(3소박4박) 1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씩이되 그 1음보는 4자~6자 구성이다.

호미매기 두 번째 소리<웅진 1⑤>의 받음구 예는 “얼카 덩어리야”이다. (메)와 (받)이 각각 6/8박(3소박2박) 1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4자~6자 구성이되, 4자 구성이 많다.

얼카덩어리 류는 충남지방의 대표적인 논매기소리이다. 충남에서도 서천군엔 전파되어있지 않으며 문화중심은 홍성, 서산, 당진 등의 서부 충남지역이다. 전파권이 넓어 남부 경기도지역에도 전파되어있다. 문화중심권의 느린 얼카덩어리 류가 본 모습으로 보인다. 내4리의 경우는 잦은 얼카덩어리 곡에 속한다.

<웅진 1④>는 술선법(S1)이며 기음의 4도윗음에서 종지(t4)한다. <웅진 1⑤>에서는 술선법(S2)과 라선법(L1)이 공존하며 기음종지(t1)한다.

ii. 만물 매기 <웅진 1①②③>

내4리의 만물매기소리는 긴소리<1①>와 에렐넬 상사<1②> 및 몬돌소리<1③>로 구성된다. 내4

10) 이소라,[고양 민요론]고양문화원,2007.p.372서두.

리엔 방아호 라는 받음소리가 없으며, 점심시간 등 시간 알림은 징을 침으로써 대신했다(김인환).

논매기꾼들이 눈에 들어서면 메김소리꾼이 “군방네 - ”해서 불러모으고, 일행들의 화답을 들은 다음, “골라 서라”(또는 “굴러서라 -”)고 지시하면 받을 줄 아는 일꾼들이 따로 나오되 두패로 나누어 선다.

처음에 메김소리꾼이 먼저 “에헤이 - ”하고 상여소리 하듯 나가다 똑 끊어지며 다함께 “이이여 - 어아”하고 소리를 먼저 놓은 다음 가벼이 숨을 쉬고는 “아 - 이, 이에- 라”하고 받는다.

메김소리꾼이 “ --- 신농씨의, 농사 - 로다”하고 맥이면, A패가 “에 헤 - 이, 이에- 예라”로 받고 이어서 B패가 “아 - 이, 이에 - 예라”로 잇는다.

한 배미를 다 매갈 즈음이 되면 메김소리꾼이 상사소리로 들어간다. 받음소리꾼들은 “에렐렐 넬넬 상사 디야/ 에 레엘넬 상사 디야”하고 굿거리 2장단으로 받고 선소리꾼은 1장단씩 맥여간다.

다른 배미로 넘어가기 전에 동그랗게 모여들며 에염을 싸면서 몬돌소리를 부른다. ‘몬돌’이란 모여 돈다는 의미이며 에염쌀 때의 동작을 형용하였다. 받음구 예는 “에이여라 몬돌”이다. 메김구로는 ‘안반’몬돌, ‘둥근 달’ ‘짜리’ ‘마늘’몬돌 하면서 여러 가지 모여싸는 형태를 읊곤 한다. 굿거리 1장단씩 맥이고 받는다. 김인환은 논맬 때 마지막에 돌르면서 “얼른 매구서 넓적배미로 가라”니 “마늘배미로 가라”니 노래가(메김구가) 많다고 하였다(素87-8-25①B).

끝은 “에이 여라 휘이 휘이-”로, 새쫓는 소리이며 풍년을 구가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메김소리꾼이 속도를 늦추어 ‘에이’를 소리내면 받음소리꾼들도 알아차리고 나머지 ‘여라 휘이 휘이-’를 제창하면 될 것이다.

몬돌소리는 김포 · 고양 · 안양 · 화성시를 연결하는 일대가 문화중심을 이루는 경기지방의 잦은 논매기소리이다.¹¹⁾

상사소리와 몬돌소리는 라선법(L1.t4)을 보인다. 긴소리의 안정적인 부분을 보면 라쫄대선법¹²⁾이 보인다.

(3) 나무꾼소리 <웅진 5>

<웅진 5>는 내4리 토민인 김인환(1914년생.남)이 또래 친구들과 나무하러가면서 부르곤 했다는 소리이다. 2분박적으로 촘촘히 엮곤 한다.

11) 이소라,〈몬돌소리 考〉[인하 어문연구 제4호]최인학정년기념논문집1999.pp.509-528.

12) 기음인 라 아래에 등장하는 음이 있으나 미미함.

(4) 호미걸이

마지막 논매고 집에 돌아오면서 소타고 들어오는 장면은 없었지만, 호미걸이를 하였다. 농악이 동네마다 있을 때 함께 모여 8월 추석때 노는 것이 호미걸이이다. 제일 선상두레(선생두레)가 앞장 서가고, 아홉두레가 농악치며 함께 놀았다. 노래는 없지만 기싸움이 있었다. 깃발이 땅에 안닿게 일곱 번 돌려야 하며, 징이나 팽과리를 뺏기곤 했다. 화장실에 갈 때는 징수가 좋은 징을 뺏기지않으려고 들고갔다.(김인환, 素87-8-25①B)

3.2 모심기 <웅진 6~8, 25>

<6>은 영흥면, <7>은 자월면 출신, <8>은 북도면의 모심는소리 예이다. 또한, 영흥면 외1리 토민인 김종만(1915년생.남)은 모심는소리의 예로 “여기 저기두 심어두 양석자리로 심자”를 일러주었다(<웅진 2>의 서두 참조). 앞의 3.1.(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하나류의 나열형에 속하나 영흥면 내4리 토민인 김인환(1914년생. 남)의 제보를 보면 하나류의 중부 경기도 형인 열소리 형의 영향도 보인다.

<25>는 자월면 자월2리¹³⁾ 동촌마을의 상쇠 배계완(30년전에 75세 때 작고)이 선달 그믐부터 정월 보름에 이르기까지 집돌이 농악을 울리며 고사를 지낼 때 고사소리<웅진 94>에 이어 불렀던 농사노래이다. 동촌 토민인 천용우(1937년생), 남진섭(1931년생) 등이 배계완을 따라 익혔던 가락을 불러주었다. 동촌엔 논매기 소리가 없으며, 모심을 때 <25>를 가창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김영민 노인회장이 필사하여 간직하고 있는 자월 고사 가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5>는 상쇠가 굿거리 4장단을 독창하고 나면 다함께 “에헤, 에헤 에헤 여루/ 상 사 디 여”의 후렴을 2장단 부르고 이어서 사물 악기만 2장단 들어가기를 반복한다. 음조식은 술선법(S2.v8.t4)이다.

북도면 신도2리 토민인 전원실(1900년생.남)은 모심는소리가 없다고 하였다.(素88-8-1AB).

해주 부근인 동강면¹⁴⁾ 덕현리에서 북도면 장봉도로 피난나온 임성복(1923년생) 창 의 모찌기(<웅진 27> 찢네 류)와 모심기·논매기소리(<웅진 28~30> 해용 류)는 본서의 지역에 전파되어있지 않다.

덕적도 서포리 출신 오정금(1910.여)은 대부 옆에 있는 여흥(영흥)에 나가살면서 모심었을 때, 여자들이 많이 심었는데, 창부타령¹⁵⁾을 많이 불렀고 모찌면서는 청춘가 등을 불렀다.

13) 자월도는 자월 1(큰말) · 2 · 3리(사슴개)로 나누인다. 2리(동촌)의 농악이 가장 활발하였다고 한다.

14) 이소라, [웅진섬 민요집](백령 · 대청 · 연평면 편)웅진문화원, 2019.10월, p.11<그림 1>참조.

15) “열씨구나 줄구나 기화자 좋네 아니나 놀지는 못허리라, 모를 한다 모를 해여 이배미 저배미 모를 찢다가 이배미 저배미 다 심기고 장구배미루나 넘어 가네, 열씨구 좋네 기화자 좋네 아니 아니 놀지는 못허겠네”. 김을 맬 때는 열댓명이 함께 일했다.

3.3. 논매기 <웅진 1~3, 9~11, 14>

근해도서편의 논매기소리로는 내4리 긴소리<웅진 1①>와 방아<웅진 2, 3②, 11>, 얼카덩어리 류<1④, 1⑤, 3①>, 상사<1②, 9, 10>, 몬돌<1③, 2서두 해설>, 우야훅훅 흔적<1③끝>, 신세자탄<14> 류가 나왔다. 영흥면 내4리의 논매기소리<웅진 1>에 대하여는 전술 참조.

i. 방아<웅진 2,3②,11>류가 영흥면 외1리 토민인 김종만(1915년생.남) 창<웅진 2>과 영흥면 토민인 김기동(1916년생.여) 창<웅진 3②> 및 북도면 신도2리 토민인 전원실(1900년생.남) 창<웅진 11>에서 나왔다. 발음구 예는 <표 3>과 같다.

<표 3> 방아 류의 발음구 예

<웅진>	지 역	가창자(출생년)	발음구 예	비고
2	영흥면 외1	김종만(1915)	에헤-이,이여-라,바앙아	느린 방아.t4g.v1,3,4
3②	영흥면	김기동(1916)	에이여라 방아야	짜른 방아
11	북도면 신도2	전원실(1900)	에이여라 방아로다	짜른 방아.S4.t4.v1,4

<표 3>에서 보는 바와같이 <웅진 2>는 느린방아 형이며, <3②, 11>은 짜른방아 형이다. 방아타령 류와 방아소리 류는 구별된다. 후자를 긴방아, 느린방아, 중거리방아 및 짜른방아로 나눈다면 <웅진 2>는 쉽표로서 세 토막을 내고있으므로 느린방아 형¹⁶⁾에 속한다.

<웅진 2>의 영흥면 외1리에서는 호미로 논을 매지않았다고 한다. 선율을 보면, 3음만 출현하여 R(라선법)인지 M(미선법)인지 구별이 되지않는다. 영흥면 내4리에 비해 요성을 많이 쓰고 있다.

<웅진 11>의 북도면 신도2리에서는 15~20명이 함께 논을 맷는데 이와같은 짜른방아 형을 호미로 맷 때나 손으로 훔칠 때나 두루 불렀다. 전원실의 증조부께서는 강화도로부터 입도하였다. 강화군의 농요¹⁷⁾에서는 교동면에서만 방아소리 류가 수집된 것을 보면, 강화도로부터의 영향이기보다 옛 영종도 방면과의 교류에 더 무게가 실린다.

북도면 장봉도에서도 예전에 호미로 논을 맷다 (김재환; 1915년생.남.토민. 素88-7-12②A).

<웅진 3②>는 기억을 살려 가볍게 읊은 것이라 참고용이다.

16) 이소라,[경기도 논매소리 자료총서](제4권)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2006.p.237.

17) 이소라,<강화 민요>[강화사]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2003.p.801.

ii. 얼카덩어리 류(1④,1⑤,3①)는 홍성·서산·당진 등의 서부 충남이 문화중심임은 전술하였다. <3①>은 영흥면 토민인 김기동(1916년생.여) 창인 바, 호미질할 때의 소리 예로 “얼카덩어리 잘넘어간다”를 단지 한 구절 가창하였다. 따라서 전체를 받음구로 봐야할지, 또는 (받)“얼카덩어리”, (메)“잘넘어간다”로 해석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얼카덩어리 류의 문화영역에서는 “얼카덩어리 잘넘어간다”를 받음구로 부르는 지역들이 있으며, 그 문화중심은 청양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덕적면 서포2리 김현쇠는 김멜 때에 얼카덩어리소리를 못 들었다고 하였다.

iii. 상사 류(1②, 9, 10)의 받음구를 보면, 후2자(9, 10)는 북도면의 경우로서 신도2리(9)와 장봉도(10) 모두 “에이여라 상사데야”이다. <1②>는 영흥면 내4리의 경우로 그 받음구 예가 “에렐렐 넬넬 상사 디야/ 에 레렐렐 상사 디(야)”이다. 경기도의 상사 류 논매기소리는 (받)이 굿거리 1장단임이 일반이며 ‘네렐렐’계통과 ‘얼렐렐’계통으로 나누이고¹⁹⁾, 전자가 보다 경기도적인 색채를 띤다. <1②>는 전자에 속하나 (받)이 2마디임이 다르다.

북도면의 “에이여라 상사데야”는 상사 류 중에서도 ‘상사’의 앞에 ‘에이여라’라는 겹말이 붙은 앞 겹말상사 형에 속한다. 울산지방에서는 상사 류를 가장 널리 논멜 때에 부르는 바, 울산지방의 앞 겹말상사 형 중에서는 에이여루 계통이 얼렐렐에 비해 우세하다.²⁰⁾

iv 신세자탄(14) 류는 덕적면 서포리 토민인 오정금(1910년생.여) 창이다. 선율은 솔선법(S1, v1, t4)의 음조직을 보인다.

덕적도에서는 내륙과는 달리 남자들은 배를 탔던고로 여자들이 나무하러 가고 논도 밟았다. <14>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시집간 부인네들이 호젓이 밭을 매며 신세자탄하던 소리이다.

3.4 발매기 <웅진 4, 14~16, 20~22, 23②, 44②, 79④>

<4>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여성 가창자 들이다.

<4>는 영흥면 내4리에서 논멜 때의 상사 곡과 동류이다. 가창자 김인환은 노래시작 전에 “목동들아 -, 콩밭(매러가세)”하고 외쳤는데, 그의 나무꾼소리<웅진 5> 때도 “나무꾼들아 나무가세-”하고 운을 떼는 것을 보면, 습관적인 외침으로 보인다. 그당시 발작물로는 조,서수,수수,콩,보리,고추 등이 있었다.

18) 이소라,장동호,변정민[충남지방 논매기소리 총서(하권)] 민족음악연구소와 공주대학교,2015,p.655.

19) 이소라,[경기도 논매소리 자료총서](제4권)앞의책.216쪽.

20) 이소라,장동호,변정민[경남지방 논매기소리 총서(하권)] 민족음악연구소와 공주대학교,2017,p.605.

〈14〉는 동일 곡을 논김 땀 때나 나무하러갈 때도 불렀다고 한다. 〈14~16, 79④〉는 덕적면 서포리 토민들의 가창이다. 〈15, 79④〉도 〈14〉처럼 신세자탄하는 내용이다. 〈16〉은 우장을 허리에 두르고 지심 매러 감을 읊었다. 〈44②〉는 덕적면 소야리 토민인 서운예(1915년생. 토민)창이며, 밭엘 가면 바랭이가 원수요 논엘 가면 거머리가 원수이고, 집엘 가면 시집식구들이 원수라고 자탄한다.

〈20, 21, 23②〉는 자월면에서 태어나 용유로 시집간 강준여(1896년생) 창이다. 〈20〉에선 사례 짚고 넓은 밭을 다 매고 농사지은 것으로 떡을 찢어 낭군과 함께 모처럼 친정엘 간다고 나섰더니 어머니 죽은 행상소리 들렸다는 기막힌 사연을 읊는다.

〈21, 22〉는 사촌형님을 소재로 한 가사이다. 자월면 이적도에서 태어나 대부도로 시집간 김화분은 〈22〉에서 ‘사촌 성님’으로 발음하였다. 사촌형님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내용으로 한다.

3.5 소부림 말 〈웅진 12①, 13〉, 물품기

i. 덕적면의 이재운(1901년생)〈웅진 13〉은 소 1마리로 쟁기질하며 소를 부릴 때, 앞으로 가라고 할 때는 “이라”, 서라고 할 때는 “워-”, 왼쪽으로 가게 할 때는 “저저저” 오른쪽으로 가게 할 때는 고삐를 당기면서 “다려”라 외쳤다.

북도면 장봉도 토민인 박명 규(1925년생)〈웅진 12①〉는 소를 부릴 때, 바른 쪽으로 가게 할 때는 “이라 이라”, 왼쪽으로 가게 할 때는 “어러”, 서라고 할 때는 “워-”라 외쳤다.

영흥면 내4리의 소 부림 말도 대동소이하다. 앞으로 가라고 할 때는 “이러, 이라”, 서라고 할 때는 “워-”, 왼쪽으로 가게 할 때는 “어더 어더” 오른쪽으로 가게 할 때는 (돌아 돌아)라며 고삐를 잡아 당긴다.

연자방아 켜으며 소를 몰 때는 “이라!”하는 정도였다(덕적면 서포2리, 문분김).

〈웅진 32〉는 해주 부근인 동강면 덕현리에서 북도면 장봉도로 피난나온 임성복(1923년생) 창인 감내기이다. 감내기는 황해도가 문화중심인 곡으로, 소달구지를 타고오며 불렀던 소리이다.

ii. 덕적도 서포리는 천수답인고로 용두레소리가 없다고 한데 비해, 북도면 장봉도 토민인 박명규(1925년생.남)는 “(하난) 둘인데, 둘은 서이라, 서인 너이요, 다섯 여섯은, 일곱 여덟에, 아홉 열일다” 하면서 물을 뿜었다고 하였다(素 88-8-1AB).

북도면 신도2리 토민인 전원실(1900년생. 남)은 타작소리가 없다고 하였다.(素88-8-1AB)

3.6 삼삼기, 베틀노래 〈웅진 12②, 23①, 24〉

〈23①〉은 자월면 출신인 강준여 창 의 삼삼기노래이다. 이 밤이 가기전에 얼른 삼을 삼아야할텐데 삼가래는 말러가고 잠이 와서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자월면 자월2리 동촌 토민인 김요지(1942년생. 여. 〈사진 22〉)는 동촌이 삼삼는 고장이나, 김요지 때는 노래를 하지않았다고 하였다(素19-04-11②A).

덕적도에서는 삼을 삼지않았고 물레도 안 돌렸다. 디딜방아가 없었다.(문인예, 문분김, 오정금, 최윤열)

북도면 박명규 창 〈12②〉과 자월면 출신 강준여 창 〈24〉의 베틀가는 모두 유성기관으로 보급된 일반 유형이다.

4. 나무꾼소리 <웅진 5, 14, 17~19, 26, 27, 43②>, 터다짐소리

나무꾼소리로는 3가지 종류가 수집되었다. 그 하나는 여성들도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갔던 섬 사정에서 ‘우리 어머니는’으로 시작하여 신세자탄하는 형 <14, 17, 18> 이고, 또 하나는 청춘가 곡풍에 있어 부르는 형 <19, 26, 27, 43②> 이다. 또박또박 2분박적으로 엮는 <5>에 관하여는 앞의 영흥 농요 향에서 언급하였다.

신세자탄 형은 덕적면 부녀들의 창이며, 발맬 때의 소리와 동류이다.

덕적면 소야2리 토민인 서윤예 창 <19>과 서재옥 창 <27>은 ‘우리 어머니’로 시작하는 신세자탄 형의 가사를 청춘가 곡에 엮었다. 자월면 승봉리 토민인 김월랑(1935년생. 여)은 솟았다 미는 밀물은 때 맞춰 밀지만, 한번 간 사람은 다시 못온다는 가사 등 <26>을 청춘가 곡에 엮어 산에서 나무할 때나 바닷가에서 굴을 따며 부르곤 하였다.

영흥면의 박상석은 내4리에서 터를 다질 때에 지경돌을 떠 가지고 줄을 매구서는 네군데서 드는데, “상기둥을 세우고”하면서 맥이면 “에헤라 지경이요(야)”하면서 받는다고 한다(素87-9-14 ①A). 박상석의 9촌 아저씨인 움뱅이 아저씨(준한이 사촌형)가 소리 잘하여 뽕혀다녔는데, 상량올리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박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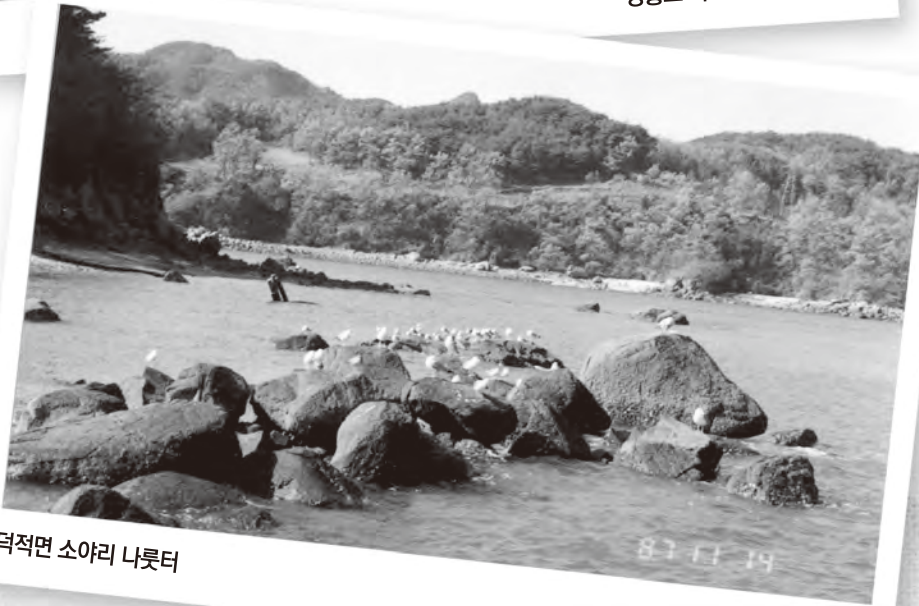
북도면 장봉도 토민인 박명규(1925년생. 남)도 “에이여라 지경이요”하며 집터를 다진다고 한 반면에(素88-7-12②A), 북도면 신도2리 토민인 전원실(1900년생. 남)은 집터다지는 것이 없었다고 하였다(素88-8-1AB).

덕적면 서포2리에는 지경맞는 노래가 없다고 하였다.(오정금;1910년생. 여)

전국의 터다짐소리에는 지경류, 지정류, 차류, 상사류, 달고류, 망개류 등이 있으며, 지경류는 경기 지방이 본고장이다. 박상석 제보의 경우는 지정 류에 속한다.



영흥도 어로작업(김성일제공)



덕적면 소아리 나룻터



덕적면 소아리

5. 어로요

어업요로는 노젓는 소리<웅진 33,40②>·그물을 당기는 소리<웅진 34>·굴 딸 때의 민요<웅진 26, 42,43①,44①>·배치기<웅진 35~41>가 나왔다.

영흥도엔 그당시 선착장에 접안 시설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배가 닿지 못할 때는 충청도로 갔다. 보통 때는 작은 배들이 큰배의 짐을 실어날랐다.

덕적도에서는 충청도 당진, 태안 및 수원 방면과 물물교환하였다. 덕적도 남자들은 주로 배를 탔다. 서포2리의 김현쇠는 고기잡이배의 고기를 받아가지고 가서 곡물과 바꾸었다. 인천항에서 덕적까지 2시간 15분이, 태안까지는 3시간반이 걸렸다. 당진까지는 인천-덕적 시간과 비슷하게 걸렸다. 당진, 태안이 인천보다 더 가까운 곳도 아닌데 인천쪽보다 내왕이 더 잦았던 것은 쌀 등 곡물의 교환이 더 좋기 때문이었다.(김현쇠)

5.1 노젓는 소리, 그물당기는소리 <웅진 33, 34, 40②>

<33>은 북도면 장봉도에서의 노젓는소리 예이다. <33>에서 반복구 예를 찾아보면, “에헤쳐허” “어이자” “어이 자차” 등이다. 백령도 등 3섬의 경우는 반복구의 어휘로 “어야 디여”를 애용하였다. 기본적으로 8분의6박 1마디씩 교대하되, 가창자인 박명규가 3마디를 연이어 부르는 경우가 4회 있지만, 김창식도 3마디를 연이어 부르기도 하였다.

<34>는 북도면 시도의 그물 당기는 소리이다. 어휘는 “에야 디야하” “에야 디여차” “어기야 디여 어아 헤” “어야 디야차자자”이다.

5.2 굴 따기 <웅진 26,42,43①,44①>

덕적면 소야리<44①>를 제외하고는 모두(자월면 승봉리<26>, 덕적면 북2리<42>, 덕적면 진2리<43①>) 청춘가 곡풍으로 가창하였다.

굴을 따면서 청춘가 곡풍으로 이따금 흥얼거림은 웅진군 내에서도 근해도서 지역의 한 문화적 특색으로 보인다.

5.3 배치기 〈옹진 35~41〉

북도면〈35,41〉을 제외하고는 모두 덕적면의 예〈36~40①〉이다.

배치기(에밀랑, 에밀령, 봉죽타령)²¹⁾ 소리는 만선(滿船) 풍어노래이다. 귀향길의 고깃배가 만선의 표시로 봉기(奉旗)를 꽂고, 만선의 기쁨을 나타내는 동시에, 지나가는 상고선(商賈船)으로 하여금 거래할 물량이 있음을 알게 할 겸, 배 위에서 사물을 올리며 흥겹게 노래한다. 동네 어귀에 오며는 마을 사람들에게 귀가를 알리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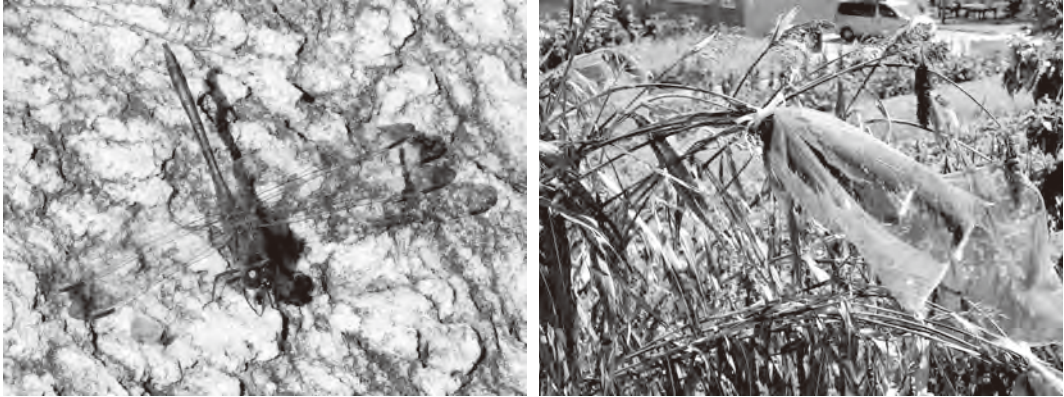
배치기 노래는 서해안 중에서도 옹진군 연안과 경기만 방면이 문화 중심지다. 신나는 노래인 고로목포나 진도군의 조도, 소흑산도 같은 전남지역에서도 아형(亞型)을 수집한 바 있다.

배치기소리의 문화중심지에 속하는 연평도의 예를 들면, 12/8박의 의미구 2마디와 입말 3마디 뒤에 기악 4마디가 기본 패턴이다. 기악 4마디 때에 입말을 넣기도 한다. 기악 4마디 때에 쟁쇠 짚이는 징 1타의 8분의12박 1마디중 전반은 3분박으로 후반은 2분박으로 침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35〉에서는 편의적으로 후렴구 뒤에 쟁쇠를 2마디 넣고 있다.

21) 김순재, 『한국의 뱃노래』 앞의책 197, 198쪽에선 배치기란 비석치기 화토치기에서의 놀이·내기의 뜻으로 ‘뱃놀이’라 풀이하고, 잡은 고기를 이물에만 신기에 이물에 담긴 고기 양(量) 즉, 이물의 양에서 이물양·에물양이 유래하며, 눈금을 새긴 대(봉죽奉竹)나 막대기를 이물 복판에 찔러 어획고를 가늠하는데서 ‘봉죽타령’이라 이름하는 것으로 본다.

6. 동요



동요로는 동물요〈웅진 45, 46①, 47, 48〉와 다리해기〈웅진 46②, 49~52〉, 자장가〈웅진 53~57, 61②〉, 애기어름소리〈웅진 58〉 및 달노래〈웅진 60〉를 실었다.

자월면 자월2리 동촌 토민인 김요지(1942년생. 여)는 자월에서 춘향살이 놀이는 하지않았으며,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와 같은 나비 동요는 초등학교에서 배웠다고 하였다(素 19-04-11②A).

6.1 동물요 〈웅진 45, 46①, 47, 48〉

잠자리 동요〈45①, 45②, 46①〉와 새를 소재로 한 경우〈47, 48〉를 실었다.

〈47, 48〉은 덕적면 서포2리 토민인 문인에〈사진 16〉 창이다.²²⁾ 이를 종합하면

“새야 새야 -
아랫녘 새야 웃녘 새야 -
전주 고부 녹두새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손톱 발톱 찢어지게 지어놓은 농사
다 먹지 말고
전라 경상도루 다 가거라
우야 우이 이 - ”

22) 1987년 11월 13일 녹음한 것인데〈웅진 47〉엔 음원이 (87-9-14②끝)으로 기록된 것은 다른 곳 조사의 끝 테입에 실린 것이고 ‘손톱 발톱’ 다음이 찢려 있다.

가 된다. 전봉준(1855-1895)이 소재가 되고 있다. 전봉준은 키가 작아 녹두(綠豆)장군이란 별명을 얻은 바, 전주 고부(정읍시 소재) 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맞서 동학 농민난을 일으켰다.

자월면 자월2리 동촌 토민인 김요지는 ‘잠자리’를 ‘잠자리’라 부른다고 하였다. 전국의 잠자리 명칭에는 <표 4>의 예들이 있다. 잠자리는 표준어인데, 함평·장성·보성군·광양시 일부와 같은 전남지역에서 확인된다. 서울에서 필자가 취재한 예는 ‘짱아’였다.²³⁾ 제주도는 너나, 망이, 밤부리, 박주리(밥주리) 등 다양하다. 북제주군 추자도 묵리에서 필자가 수집한 예는 ‘너나’였는데 수컷 잠자리를 일컬으며, 암컷은 파랑색이므로 “너나, 파랑 암컷에다 붙어라”하면서 수컷 잠자리를 잡는다고 하였다.²⁴⁾

<45①, 45②, 46①>은 모두 자월도·이작도·승봉도와 같은 자월면에서의 잠자리 동요이다. 이들 을 종합해 보면, “잠자라 꿈자라, 앉안 깔 지장 깔, 구암마루 밥숫갈”로도 된다. 자월도의 김요지는 빗자루로 잠자리를 잡으며 외쳤던 소리라고 하였다.

다른 지방에서는 잠자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앉으면 살고 서면 죽고, 멀리 멀리 가면 똥물먹고 죽는다”고 외치기도 한다.

<표 4> 잠자리 명칭

명 칭	지 역
꿈다리	통영시의 육지도와 연화도
나마리	괴산군
남자리	상주시, 구미시, 광양시 일부
너나	북제주군 추자도 묵리의 수컷 잠자리
망이	제주도 서귀포시
밤부리, 박주리, 밥주리	제주도 애월읍, 대정읍(가파도)
소금쟁이	정선군·삼척시·강릉시·양양군
수만이	사천시
으레	안동시 일부
자마리	용인시 이동면, 안양시 호계3동과 관양1동, 대전, 충남지방
자말래	충주시

23) 서울 토박이 분은 “..하고” 대신에 “..하구”로 발음하고, 전남지역에서 오히려 “..하고”로 말하는 경향이 보여 흥미롭다.

24) 이소라,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제주학연구센터, 2018, p.374.

잡자리	함평 · 장성 · 보성군 · 광양시 일부, 응진군 자월면
팔래비	거제시, 의령군
짱아	서울
찰래비	진주
철개이	경산시
철기	양산 · 진해 · 밀양 · 김해 · 부산시, 창녕군
철베이	경주시, 안동시 일부, 의성군 일부, 울주군 상북면 일부
철비	창원시, 함안군
초리	봉화군

6.2 다리헤기 <웅진 46②, 49~52>

다리헤기 동요는 아이들 여러명이 두 다리를 뻗고 <사진 24>처럼 마주앉아, 그 다리들이 서로 맞물리게 한 다음, 노래에 맞추어 차례로 다리를 쥘어나가다가 노래가 끝난 박에 쥘인 다리는 오므리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다리의 입자가 지는 놀이 동요이다. <웅진 51①>에서 예를 들면, ‘한알대’에서 한 다리, ‘두알대’에서 한 다리 하고 쥘어나가다가 마지막 “뽕”에 걸린 다리는 오므린다.

근해도서편에서는 이거리 <46②, 49> 류와 한알대(한울대) <50~52> 류가 나왔다.

[웅진섬 민요집]3개면 편의 41, 42쪽에 정리해 둔 다리헤기 동요의 지역분포 예에서 보면, 전자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 분포함에 비해, 후자는 경기도 지역에 비중이 간다.

6.3 자장가<웅진 53~57, 61②>, 애기어름소리<웅진 58> 등

[웅진섬 민요집]3개면 편에서는 개재곡<섬 66~72> 중에 4곡이 ‘잠네 잠네’로 시작하고 2곡이 ‘자장 자장’이었는데, <웅진 53~57, 61②>의 근해도서편에서는 총 6곡중 <53, 55, 56, 61②>가 ‘자장 자장’으로 말 문을 열었다. ‘잠네 잠네’로 시작함은 특수형이다. 근해도서편의 나머지 2곡<54, 57>은 ‘아강 아강’ ‘아가 아가’로 시작한다.

애기어름소리로 달강 류와 불아 류는 통민요적이며 시작말에 따라 지역적인 분류²⁵⁾가 되고 있는데,

25) 이소라, [봉화군 민요집]봉화문화원, 2017, p.67.

달강 류〈옹진 58〉에서는 “자장자장 우리 애기는 잘도 자고”로 시작하여 자장가와의 결합을 보인다. 연평도의 〈섬 73①〉에서도 자장가와의 결합을 보였다.

애기어름소리는 돌 되기 전 또는 돌 넘긴 아이의 다리에 힘을 들이기 위하여 어른이 앉아서 그 앞에다 아이를 세우고 아이의 겨드랑 밑에 손을 넣어 붙잡고서 노래의 리듬에 맞추어 앞뒤로(달강 류) 또는 좌우로(불아 류) 흔들며 부르는 소리이다.

옹진섬의 애기어름소리는 육지로부터 전파의 끝인, 변두리적 양상을 띤다.

달아 달아〈옹진 60〉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작자 미상의 통민요적인 동요이다.

7. 홍민요 <웅진 59①, 61~92>

홍민요로는 꼬닥꼬닥 <61>과 담방구 <64, 65, 66③, 78③>, 범벅타령 <69>, 변강수타령 <70>, 군밤타령 <67>, 청춘가 <71①, 76①, 78④>, 창부타령 곡풍 <59①, 71②, 76②, 77①, 78②, 79②>, 노랫가락 곡풍 <62, 63>, 방아타령 <66②>, 몽금포타령 <85>, 난봉가 <66①, 87>, 둥기둥 내사랑 <68>, 봄 <72>, 봄배추 <73①>, 나물먹고 <73②>, 신세타령 <74①>, 봄이 왔네 <74②>, 높은 산에 <75①>, 소나무는 <75②>, 뱃놀이 <77②>, 어랑타령 <77③>, 도라지 <78①, 79①>, 아리랑 <79③>, 날 곱게길러 <79④>, 남물이 들었네 <80①>, 석탄백탄 <80②>, 박연폭포 <81, 82①>, 산염불 <88>, 건드령타령 <86>, 양산도 <82②>, 연당 앞에 <83>, 진국명산 <84> 및 곱새치기 <89~92> 등을 실었다.

7.1 꼬닥꼬닥 <웅진 61>, 담방구 <64, 65, 66③, 78③>, 범벅타령 <69>, 군밤타령 <67>

꼬닥꼬닥 <61>은 꽃 중에서도 제일 고운 진달래 꽃이 말라 비틀어진 모습을 띄우는 것을 자기의 신세에 비추어 창부타령 곡풍에 얹어 한탄조로 나가는 고로 동요 대신 홍민요 항에 배정하였다.

담방구 <64, 65, 66③, 78③>의 게재 곡 중에 <66③>을 제외하고는 ‘동래나 울산(월선, 월산)’의 담방구(담바구)를 읊은 담배를 소재로 한, 일반형이다. 담배는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이며 멕시코 지방에 살았던 마야족이 피웠던 것인데, 콜럼버스가 1492년에 그 대륙을 발견하였을 당시 큐바에서 사람들이 불을 피워 연기마시는 것을 보고 유럽으로 수입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엔 광해군 때인 1618년 무렵에 일본으로부터이며, 1622년엔 남영초(南靈草)라 하여 크게 유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담방구타령의 대부분이 ‘동래나 울산의 담방구’로 되어있음은 담배농사의 시초가 동부 경남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64>에서는 말미에, 딸이 있거든 날 사위 삼으라고 나이 어린 딸을 둔 할머니께 수작을 건다.

범벅타령 <69>은 1925년경에 지어²⁶⁾ 불려오는 중부 경기지방 술선법의 노래이다. <69>에서는 술선법의 창부타령 곡풍으로 가창하였다. 서방있는 여인네가 바람을 피우는 내용이다. 훗 낭군인 이도령 잡술 월별 범벅을 마련하고있다.

군밤타령 <67>은 첫 행의 중간과 끝머리에 ‘오냐’라는 대귀를 넣는 점이 경기지방 신민요로 분류되는 일반 군밤타령이나 [웅진섬]3개면의 것(섬 135, 136)과 다르다.

26) 이창배, [한국가창대계]흥인문화사, 1976.p.222.

7.2 변강수 타령 〈웅진 70〉

〈70〉의 변강수타령은 중부 경기지방 음조적인 술선법(S1.v1,4,5,6,t1)을 취하지만, 4도윗음요성(v4)이 흔하다. 가창자 임성복은 장면 전환을 말하는 투로 사이사이에 넣고 있다. 처음은 변강수의 심사가 고약함을 읊고 두 번째는 잘 생긴 아내와 사이좋게 노는 장면을 소리한다. 세 번째는 산으로 나 무하러 가는 장면이며, 네 번째는 산에서 내려와 신세자탄하는 대목이다.

이성희(경기 휘몰이잡가 예능보유자) 편저 [경서도창 가사집](2005년) 101~104쪽의 서울식과 서도식 변강수타령의 가사를 보면, 〈웅진 70〉은 후자에 속한다.

[웅진군지(상)] 497쪽을 보면 1995년에 채록된 자료라며 구연자인 이동필(당시 74세)이 18세 때 사촌형(이동학)의 유성기판을 듣고 배웠다는 변강수타령이 실려있는 바, 〈70〉의 세 번째 단계까지의 가사가 일부 게재되었는데, 비슷한 버전으로 보인다.

서도 〈변강수타령〉과 판소리 〈변강쇠가〉의 비교에 대하여는 주(註)의 논문²⁷⁾이 참고된다.

7.3 곱새치기 〈웅진 89~92〉

상주를 위로할 겸, 장례 전날에 친지들과 동네사람들이 상가에 모여 밤을 새우기 위해 놀았던 일종의 투전놀이 노래(일종의 돈따먹기 놀이노래)인 곱새치기를 대청면과 백령면에 이어 북도면(89, 90, 92)과 덕적면(91)에서도 녹음하였다.

이는 경기도 김포시나 강화군, 충북 괴산군, 강원도 정선군의 곱새치기(곱사치기) 및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싸시래기(싸시랭이)나 강원도 태백시의 사스랭이와도 상통한다.²⁸⁾

곱새치기는 기름을 몇 번 먹여 뽀뽀해진 한지를 가로 1.4 cm, 세로 14cm(또는 10cm)크기로 자르고 거기에 1부터 10까지 통용(通用)의 그림을 그려 4벌을 마련한 다음, 돈따먹기 투전을 하면서 내던 불림소리이다. 화투 수입 이전에 들어와 영조 무렵에 널리 행해졌다.

예전에 배도 타고 배도 부렸던 인권옥(1922년생.남.덕적면 서포2리토민)은 투전장을 가지고도 곱새치기를 하는데, 화투의 11,12는 빼고 10자까지 하며, “1자는 네 마리, 몇장씩 나누어 가진다(4장~5장씩 각자 가진다). 선이 1자를 내며 “일월이 송송 빌 송송, 일자 한 자가 제일이다”하였을 때,

27) 김인숙, “서도 〈변강수타령〉에 관한 소고” [한국음반학] 제18집, 2008.

28) 이소라, [경기지방의 상부소리] 문화재청, 2000. 3~7쪽.

이소라, [정선민요론] 정선문화원, 2005.

이소라, [괴산 민요집] 괴산군, 2013.

이소라, [봉화군 민요집] 봉화문화원, 2017.

이소라, [강화군 민요] [강화군사] 강화군사편찬위원회, 1991.

이소라, <김포군의 민요, 민속놀이> [김포군지] 김포군지 편찬위원회, 1992.

다음 사람이 1자가 들었으면 ‘일자!’ 거기다 방을 친다. 그러면 쑥 들어간다. 그 사람이 2자를 가지고 또 분별하면서 “범의 소리 나간다, 토끼 멈춰라” 그런 소리가 나온다. 자! 조 예산에 마지막 자를 잘 골라잡고 장짜를 주면서 “아 장손 일언이 중천금이다” 외친다. 그럴 때는 무릅팍을 쳤다”고 설명한다.(素87-11-13①A끝)

실제 놀이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필자의 [봉화군 민요집]과 [웅진섬 민요집](백령면 등 3개면)편을 보기 바란다.

7.4 청춘가<웅진 71①, 76①, 78④>, 창부타령 곡풍<59①, 71②, 76②, 77①, 78②, 79②>, 노랫가락 곡풍<62, 63>, 방아타령<66②>, 뱃놀이<77②>, 남물이 들었네<80①>, 도라지<78①, 79①>, 아리랑<79③>, 석탄백탄<80②>, 양산도<82②> 등

청춘가<웅진 71①, 76①, 78④> ; 상기 어로요 난에서 언급한 것처럼 굴을 따면서 청춘가 곡풍<웅진 26, 42, 43①>으로 이따금 흥얼거림은 웅진군 내에서도 근해도서 지역의 한 문화적 특색이다. 또한 청춘가 곡풍은 통민요 적으로 나무꾼소리<웅진 26, 27>로 불리우기도 한다.

선율이 채보되어있는 <26, 27, 42, 43①>을 보면, 모두 술선법(S1)이며, 음역이 11도 또는 9도에 걸쳐 넓은 편이다.²⁹⁾

청춘가 곡의 특징인 제3행 끝박에 ‘좋다’가 붙은 예는 <42>와 <76①첫곡>에서일 뿐이다. 다른 곡에서는 ‘좋다’ 대신에 바로 앞박의 토씨를 반복한다거나 <26, 43②>, 예루화<27, 43①> 등을 넣었다.

창부타령 곡풍<웅진 59①, 71②, 73①, 73②, 74①, 74②, 75①, 76②, 77①, 78②, 79②> ;

봄배추<73①>, 나물먹고<73②>, 신세타령<74①>, 봄이 왔네<74②>, 높은 산에<75①> 등 창부타령 곡은 경기도의 굿판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그 가락의 흥겨움과 유성기판의 보급으로 인해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애창된다.

<웅진 73②>는 술선법(S1.v1,4)이며 음역이 9도에 이른다.

노랫가락 곡풍<웅진 62, 63> ; 노랫가락은 본래 경기도곳에서 부르던 노래였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소리꾼들에 의해 다듬어져 성장되었다. 조선조 고종 때 대궐출입이 잦은 무당들이 고상한 시조시(時調詩)를 엮어 부른 뒤로부터 초장·중장·종장의 3장으로 된 노랫말로 부른다. 시조창에서처럼 종장

29) <웅진 26>은 v1,8. t1. <27>은 v1.끝을 2도올려 맺는다(t1-2). <42>는 v1.t1. <43①>은 v1,4.t1.

끝의 '하리라' 등을 생략하여 불렀던 것을 요즈음은 대개, 생략하지않고 다 부른다.³⁰⁾

전국적으로 전파되었으며, 흔히 나무꾼소리로도 활용된다.

〈62〉는 북도면 토민들인 김봉운과 라만석의 창이며, 〈63〉은 자월면 승봉도 토민인 강금숙 창이다. 〈62〉와 〈63②〉는 일반적 가사이나, 〈63①〉은 육이오 사변을 소재로 한 특수형이다. 〈62, 63①〉은 모두 술선법(S1)이며 음역이 11도에 이른다.

〈62〉는 계단식 종지(t4-2-1)를 함에 비해 〈63①〉은 비(非)계단식 종지를 한다(t4).

방아타령〈웅진 66②〉; 학문적으로 방아소리와 구별되는 방아타령에는 〈논김 방아타령〉과 〈니나누 방아타령〉 및 〈우겨라 방아〉가 있다.³¹⁾ 이들의 메김구는 흔히 “엣다 좋구나”류로 말문을 연다. 〈66②〉에서는 “노자 지영구나”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방아타령〉은 경기지방에서만 논매기소리로 활용된다. 〈66②〉는 〈우겨라 방아〉형에 속한다. 〈우겨라 방아〉형은 〈니나누 방아타령〉에서 '나니가'이하가 생략된 형태를 가리킨다.

벚놀이〈웅진 77②, 80①〉; 이창배는 '에야노 야누' 같은 후렴구가 다분히 일본말에 가까운 구호인 고로 “어기야 디여차”로 바꾸었다³²⁾고 하였고, 2011년판 하웅백 편저의 [창악집성] 584쪽엔 “어기야 디야차 어야디아 어기여차”로 바뀌어있음에 비해, 〈웅진 77②〉에서는 3개면 편의 〈섬 99②, 137〉처럼 바꾸지않고 불렀다.

남물이 들었네〈80①〉도 후렴은 생략되었지만, 벚놀이 곡에 잘 나오는 가사이다.

도라지 타령〈웅진 78①, 79①〉; 이창배는 예전에 황해도 은율에서 성창하던 〈도라지 타령〉이 있으며 아주 느리게 부른다³³⁾ 하고 북한에서 2000년도에 발간한 [조선민요 1000곡집]에는 황해남도 은율의 〈긴도라지〉 악보가 실려있다. 이 악보를 보면, 1930년대부터 소리꾼들의 유성기음반 취입과 함께 경기지역의 신민요로 부르고 있는 〈도라지 타령〉의 가사와 선율 선이 닮았다. 〈78①, 79①〉은 경기지역 신민요 계통이다.

〈경기 산타령〉에서 앞산타령, 뒷산타령 뒤에 잦은 산타령으로 도라지타령을 부르고 있으나 황해도 〈긴도라지〉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민요 도라지타령과는 구별된다.

아리랑〈웅진 79③〉; 북도면 신도2리 토민인 전원실(1900년생.남) 창(素88-8-1AB)과 〈79③〉은

30)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앞의책, 757쪽.

31) 이소라, [고양민요론]고양문화원, 2007. pp.62-64.

32) [한국가창대계]앞의책, 870쪽.

33) [한국가창대계]앞의책, 783쪽.

1926년에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인해 널리 보급된 일반 아리랑(나운규 아리랑, 영화 아리랑) 류이다.

아리랑의 여러 갈래 중에서 강원도 어러리와 자진아리리가 가장 오래 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전파권을 가졌었다. 그 다음으로 19세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유형은 충주의 <아라성>류와 괴산의 <이야 형 아리랑>이다. 19세기 말에 궁중에서 아리랑 경창대회를 가짐을 기회로 섬진강 유역 민중의 바탕선율인 산아지 곡에서 메김소리는 그대로 따오고 1894~1912년 간에 후렴만 바꾼 것³⁴⁾이 <진도 아리랑>이다. 밀양 아리랑도 진도아리랑이 나올 무렵의 산물로 본다.

석탄백탄 <웅진 80②> ; 서울 근교에서 불리어지던 신민요 사발가(砂鉢歌)의 대표적인 사설의 하나이다. 처음엔 석탄백탄이 첫 가사로, 한일합방 당시의 울분을 토로한 것이었으나, 이창배는 노랫말을 많이 삭제, 보충하였다고 한다. 그의 [한국가창대계]³⁵⁾엔 “--- 한 사발 두 사발 함포고복(含哺鼓腹;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림)이라”를 첫 가사로 하고 있다.

양산도 <웅진 82②> ; 현장에서 가창자들이 <양산도>라고 일컫는 곡에는 크게 세가지 부류가 있다. 그 하나는 화순형 논맴양산도이며 “에 헤기나 양산도로구나”처럼 받음구에 ‘양산도’라는 어휘를 가지고 있다.

그 둘은 논김양산도이다. 파주나 연천군, 고양시, 포천군, 광명시와 같은 경기도에만 분포한다. 파주나 연천군은 KA형이며 받음구 예는 “흥에- 헤헤에 헤-이/ 오호오 호오/ 오리다 당-하/ 호 호우오-”이다. 고양시와 포천군 및 광명시는 KB형인데, KA형의 받음구 끝인 ‘호 호우오-’가 생략된 모습이다.

화순형 논맴양산도나 경기지방 논김양산도도 그 메김소리는 일반 흥민요 양산도와 동류이다.

<82②>는 받음구가 없어 일응 일반 흥민요 양산도로 배정하였다. 선율은 흥민요 양산도의 “아서라 말어라 --”와 같은 반복부분을 닮았다.

그 밖에 봄 <웅진 72>, 소나무는 <75②>, 연당 앞에 <83>, 진국명산 <84>을 실었다.

진국명산은 가곡 편식대엽에 있는 것을 응용한 단가인데, 송봉도 토민인 김월랑(1935년생. 여. <사진 30>)은 책을 보고 익혔다고 하였다.

건드령타령은 본래 건드령타령 <웅진 86>의 첫 3행 뒤에 “왕십리 처녀는 풋나물장사로 나간다지”처럼 서울지방의 특산물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지만, <86>에선 보이지않는다. 느리게타령³⁶⁾으로 나왔다고 가창자는 자평한다.

34) 이소라, “순천 민속박물관의 전시 그림 2제” [지역민속과 민속박물관] 2019년 한국민속학자대회, p.585.

35) 앞의 책. 785쪽.

36) 황해도 민요 <느리게타령>의 사설에 대하여는 하응백 편조 [창악집성] Human & Books, 2011, p.321 참조.

7.5 난봉가<웅진 66①, 87>, 등기둥 내사랑 <68>, 박연폭포 <81, 82①>, 몽금포타령 <85>, 어랑타령 <77③>, 산염불 <88>

i. 난봉가<웅진 66①,87>, 등기둥 내사랑 <68>, 박연폭포 <81, 82①>

이들은 난봉가 류이다. <웅진 66①, 68, 87>은 자진난봉가 형이고, <81, 82①>은 개성난봉가 형이다. 난봉가의 문화중심지역은 황해도이다. 박연폭포는 개풍군 북부 천마산 소재의 일명, 산성(山城) 폭포이다. 이들의 후렴구 예는 <표 5>와 같다.

웅진섬 3개면 민요집의 <섬 81~86①, 87>와 <섬 24~26, 95②>에서의 받음구 내지 후렴구 해당어에서처럼 4마디중 첫마디는 ‘에헤’계통이고 두 번째마디는 ‘어 어허’ 또는 ‘어야로다’ 세 번째 마디는 ‘어야 어야 디아라’, 넷째마디는 ‘내 사랑아’ 류이다. <표 5>에서 보면, 두 번째마디 이하가 가창자의 재량에 따라 여러 어휘로 바뀌어 있다.

<표 5> 근해도서편 난봉가 계열의 후렴구 예

<웅진>	지 역	가창자	후렴구 예
<87>	해주부근, 북도면 장봉	임성복(1923동강면출생. 장봉도 피난)	에헤-허어영/허허어영 어야 로- 다-o/ 어야 허이 야, 디아 로-웅/에라 놀아 보자
<66①>	북도면 신도	라만석(1932. 토민)	에헤,어허야/어야 어야로다/ 얼음에 냉수를,먹어두./속만 답답,허다
<68>	덕적면 북리	최운열(1913년생. 여. 토민)	에헤- 헤에에/영 어루화 종구 좋다/ 어러 럼마 두리 등기둥/내 사 령 아
<81>	덕적면 북리	김태심(1913년생. 여. 토민)	에 -헤헝/ 에헝 에루화 종구 좋다/ 어러 럼마 동기,등계둥/내 사 랑 아
<82①>	덕적면 서포	권옥(1922년생. 남. 토민)	에헤,에 흥 어야,/에루화, 종구 좋다/ 어럼마 디여라./ 내 사랑 아

선율이 채보되어있는 <웅진 87>과 <68>을 보면, 두곡 모두 12/8박의 본문선을 4마디에 후렴4마디로 짜여있다.

덕적도 토민의 창인 <68>의 경우는 구성음이 솔도레(미)솔`라`이며 솔선법(S2)이고 4도윗음중지 곡(t1)이다. 요성이 약하며 도에 1회 약요(弱搖)표시가 있을 뿐이다(v4). 이에 비하여 황해도 출신의 창인 <87>을 보면, 구성음이 라도미솔라`도`이며 라(L)선법이고 5도윗음 중지 곡(t5)이다. 5도윗음을 똑똑 짧게 연속적으로 끊는 요성법을 써서 독특하여 서도민요 창법적인 특색이 들어난다. 기음의 8도윗음인 라`가 종종 장식음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본다.

ii. 몽금포타령 〈웅진 85〉

몽금포타령의 첫 가사에 나오는 장산곶(長山串)은 백령도 북쪽에 위치한 장연군의 반도 서쪽 끝에 있으며, 그 가까이에 항구인 몽금포가 있다. 웅진섬에서는 연평도 〈섬 100, 105〉와 백령도 〈섬 101②, 103, 104, 106①〉에 이어, 북도면 장봉도로 피난온 임성복 창 〈웅진 85〉으로 수집하였다.

몽금포타령은 청춘가처럼 1음보 3자구성의 2음보가 선율 12/8박 1행을 이루되 “바람새 좋다고 -”에서처럼 제 2음보 끝자인 ‘고’를 굴곡지으며 장인하여 반마디(반행)를 이룬다. 음역이 1옥타브 이상이라 넓은 편이다(〈섬 100〉은 9도, 〈섬 101, 104②〉는 10도, 〈웅진 85〉는 13도).

보통은 내재4박 내지 12/8박(3소박4박) 4행의 선율이나, 〈웅진 85〉에서는 “엥헤루와 좋다 어허 - / 돌렀다 가하려 마 -”하는 후렴구가 붙어 6행의 선율을 이룬다. 백령도에서 녹음한 〈섬 104①, 104②〉에서도 “에헤에 예, 에헤 어 / 나혼자 살라 나,” “아이구 데구요 / 성화가 났구나,”와 같은 후렴구가 붙어 6행의 선율을 이루었다.

〈웅진 85〉의 구성음은 (미)솔라도레미`솔`라`도`이며 종지음은 라 이다. 음역이 넓어 13도에 이른다. 라음은 요성하며, 높은 미`에서는 똑똑 짧게 연속적으로 끊는 요성법을 즐겨 쓴다.

iii. 어랑타령 〈웅진 77③〉

이 곡은 후렴구의 시작 말을 따라 〈어랑타령〉이라 불리워졌다. 잘 나오는 가사의 첫머리를 따라 신고산 타령으로도 통한다. 함경도의 대표적인 민요로 꼽힌다. ‘어랑’이란 함북 경성에서 동해로 흐르는 103.3Km의 어랑천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경원선 철로가 1914년에 개통되면서 옛 함경남도 안변군 고산(高山)지역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기차역이 생기자 이곳을 신(新)고산이라 부르게 되었다.³⁷⁾

iv. 산염불 〈웅진 88〉

산염불은 황해도 민중의 대표적인 민요 중의 하나로 흥민요로도 부르지만, 운상(運喪)하면서도 불렀고, 황해도 봉산 출신 김유경 처럼 추수하면서도 불렀다. 강화군이나 김포시에서도 산을 오르며 운상할 때의 소리³⁸⁾로 수집이 된다. 근해도서편에서는 해주 부근 동강면에서 장봉도로 피난나온 임성복 창 〈웅진 88〉으로 수집하였다.

37) [한국민속예술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16. 218쪽.

38) 이소라, [경기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 2000. 18쪽.

이소라, [한국의 농요 1집 증보판]황해도 편(악보 133)(근간)

〈산염불〉이라는 곡명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면, 후렴에 나오는 ‘염불’이라는 어휘와 〈섬 148〉의 첫 행에서 보듯, 잘 나오는 가사 첫머리(“산에 올라 옥을 캐니 --”)에 나오는 첫 글자와의 결합일 수 있다.

상기 북한 발행의 [조선민요 1000곡집] 384쪽을 보면, 원래 황해도지방의 〈산타령〉이었으나 무당들이 이 곡조에 맞추어 십대왕을 불러 지옥을 면해달라는 의식 과정에서 〈산염불〉이 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게재하고있는 황해남도 안악 출처의 황해 산타령 후렴구는 “에 헤 에 헤/ 산이로 구나”이다.

〈웅진 88①〉의 긴 산염불 후렴 예는 “헤 - 헤 / 헤헤 - 라 - 미/ 타 -, 부 - 야/ 염불이라”이고 〈웅진 88②〉의 짧은 산염불 후렴 예는 “나 무 에어미/타부야 염불이라” “헤헤 헤에 헤헤 어미/ 타항어야 염불이라” 등이다. 〈웅진 88①〉은 받음선을 4분의6박 4마디중 그 2마디의 소요시간이 약 7.2초임에 비해 〈88②〉는 받음선을 8분의12박 2마디중 그 1마디의 소요시간이 약 4초에 달하므로 긴염불은 짧은 염불에 비해 배로 느리게 가창됨을 알 수 있다.

웅진섬 3개면 편의 〈표 4〉에 견주어보면, 〈표 4〉의 후렴구인 “(나무)아미 타, (염)불이로다” 유형과 대동소이하다.

〈웅진 88①〉은 레선법이고 5도윳음에 똑똑 끊는 듯한 요성 창법을 써 황해도지역의 이른바 수심가토리에 속한다. 음역이 9도에 이르며, 5도윳음종지(t5)를 한다.

〈웅진 88②〉은 수심가토리와 함께 도레솔라도`의 출현음도 보인다. 후자의 경우도 5도윳음이 종지음이고, 요성음이다.

8. 의식요 <웅진 93~116>

8.1 비손, 고사소리 <웅진 93~95, 25>

i. <웅진 94, 25>

자월도의 자월2리 동촌에서는 선달그믐에 우물굿을 하였다. 산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고, 그 물 가지고 떡을 하였다. 당집은 따로 없었다. 제주는 동촌 토민인 배계완(상쇠, 30년전인 75세 때 작고)이 맡았는데, 아들도 죽고 손주만 마을에 살고 있다. 선달그믐엔 동네사람들이 다 모였다. 풍장을 치고³⁹⁾ 각 우물마다 당기며 <다니며> “물줍시오 물줍시오 ---”하고 빌었다. 지네밭과 꿩장목이 달린 농본기(<농자천하지대본>기)를 들고 정월보름까지 원하는 집에 가서 풍장 올려주면서 놀았다. 초하루 오후부터 각 집에서는 각자의 산소에 가서 정성을 들인다. 열나흘날엔 외양간으로 풍년나물 가져다주었는데, 소가 나물부터 먹으면 흉년이 들고, 밥부터 먹으면 풍년이 든다고 점쳤다.

동촌에서는 음정월 15일 낮에 짚으로 엮은 ‘배송 배’ 하나를 바다에 띄워 보냈었다. 해변가에서, 바람부는 방향에 따라(마과람은 남풍, 하늬바람은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 띄웠다. 배송 배를 어깨에다 메고 꿩매기 치고 나갔다. 배송배 안에 사진을 넣었더니, 좋지않은 일이 생겨, 그 이후론 사진을 넣지 않는다.(동촌 토민 김요지 <사진 22> 대담)

<웅진 94, 25>는 자월2리 동촌의 고사소리이다. 김영민 노인회장이 정리해 둔 자료를 참고하면서 천용우를 중심으로 읊고 남진섭, 김영민 등이 소리를 받았다.<사진 21>

<웅진 94>의 1-1에서 보면, 꿩매기의 구음은 “땅-도 땅-도 내-땅 이다-”이며 3소박4박 1마디를 차지한다. <웅진 94>의 1-3과 1-4에서 보면, 이씨조선의 개국에서 시작하여 자월면 김씨댁 명당을 읊은 다음, 안택을 하고 열두달 액풀이로 이어졌다.

<웅진 25>는 본시, <94>에 이어 부르던 소리이다. 상사소리를 받음구로 하여 농사철이 돌아왔으니 부지런히 농사짓자고 권농한다.

ii. <웅진 93>

<93>은 영흥면 내4리에서의 고사덕담소리이다. <웅진 94>에서처럼 국태민안에서 이씨 한양 등 국시를 읊으나, 영흥의 모씨댁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길다. 이어서 호구별상 손님마마가 첨가되고 아기가 대천바다 물밑 듯이 덩굴밑에 호박 자라듯 커서 글을 배우고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를

39) 북도면 장봉도 박명규(1925.남.토민)는 농악대를 “치군패”라 일컬었다.(素 88-7-12②A)

쓰고 금의환향한다는 것과 딸아기도 축복한 후, 살풀이로 이어진다. 열두달 액풀이도 하고서는 여러 가지 생업을 위한 장사 풀이로 들어가며, 농사풀이로 단락을 짓는다. 여기까지는 일반 고사소리처럼 몇구절 말하듯한 억양으로 읊은 다음 〈93〉의 선율 제3행에서처럼 뽕매기를 자진모리 2장단 넣는 패턴으로 반복한다.

〈94〉에서는 상사소리를 받음구로 하여 권농가사로 노래하였는데, 〈93〉에서는 악보 끝의 선율 예처럼 엽불조의 노래로 들어가 맺는다.

〈93〉의 농사풀이에서 박상석은 벼(자채벼, 메따래기, 유기찰, 사발벼, 검불벼, 정근벼, 노인벼, 홀작벼, 돼지찰, 팔성벼, 다마금)와 보리(올보리, 갈보리, 올사보리, 살살보리, 중매보리, 육모보리), 콩팔(올콩 줄콩, 주너니콩, 푸르데콩, 홀애비콩, 강남콩, 검정콩, 적두팔)을 종류별로 읊고 있다.

같은 마을의 김인환은 덕담에 나오는 벼의 예로 “광주 문원에 사발 벼, 마당 쓰레기 건물벼, 회 다질 때 닳는 벼, 환갑 진갑에 노인 벼 여기 저기 심어놓고”로 읊었다. (素 87-9-14 ①A).

iii. 〈옹진 95〉

〈95〉는 덕적면 서포리 부녀들이 아기를 점지하여 태어나게 돕고 성장을 관장한다고 믿는 가신인 삼신할머니께 읊은 비손이다. 말하듯이 읊거나, 소리내어 기도하듯 읊었다.

서포2리는 녹음당시 40호였다. 시집온 부인네중 1집은 당진, 3집은 전라도, 그 외는 서포리의 동네 결혼을 하였다. 그중 순 농가는 4집. 그 외는 거의가 수산업에 종사하며, 40년전엔 당제를 지냈다. 가을추수 후에 택일하여 지냈다고 한다. 주산(主山)밑에 당집이 있었고, 당집 안에 그림이 걸려 있었다. 소를 잡아 제물로 썼다.(오정금 대담).

8.2 상부소리 〈옹진 96~116〉

자월2리에서는 명석을 마당에다 깔고, 채알을 치고, 마당 한쪽의 독집에 널을 놓았다. 집집마다 다 떡을 해 왔다. 아무리 없어도 보리쌀이라도 뽕아서 떡을 해 왔다. 초상나면 집집마다 막걸리를 담아 왔다. 돈을 써서라도 막걸리를 가져갔다.

(1) 초혼, 방안 운구, 널액막음소리 등 〈옹진 96, 104①, 105①〉

〈104①〉은 초혼의 예이다. 집앞에서 고인의 속적삼을 들고 사는 곳과 성씨를 외치며 “어이 어이

아이”하고 혼이 몸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는 속적삼을 지붕위로 던져 올린다.

자월도의 자월2리에서는 방에서 널을 모시고나가면서 “남세”를 외친다. 문지방 나가면서는 밀었 다대겼다하면서 “슬근슬근 톱질이야” <105①> 한다. 방 내구석에 널을 밀었다 땡기면서 뭐라 그랬 는지는 잊었다. 마당 한 귀퉁이에 마련한 독집에 널을 내려놓을 때나 상여에 실을 때는 “남세”한다.

문지방 나가면서 톱질 류⁴⁰⁾를 소리하는 예는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천안시와 세종시 및 괴산군에 그 예가 있다.

영흥면 내4리에서는 방에서 널을 들고 나갈 때 “구천 길 -” <96①> 이라 외쳤다. 문지방을 나갈 때 는 “남세-” <96②> 라 하였다.

(2) 발인축 <웅진 97,98>

<97,98>은 장례일에 발인할 때의 축이며, 통민요에 속한다.

자월2리의 가창자들은 발인축을 읊지않는 것으로 기억하였다.

(3) 하직소리 <웅진 99①,101,105②,106①②,107①,108①>

<99①, 101>은 영흥면 내4리의 예이다. 시작을 알리는 북을 예시와 같이 올리면, 상두꾼들이 상여 앞으로 모인다. 선소리꾼이 “벗님네-”부르면 “예-이”화답하면서 각자의 위치에 앉는다.

선소리꾼이 북을 울리며 “남세-”라 외치면 상두꾼들도 “남세-”라 복창한다. 세 번째는 끝을 더 길 게 외치며, 복창하면서 일어선다.

선소리꾼이 “구사-당 으흠, 하직 하고 -”를 부르면 상두꾼들은 “에 에 - 이, 이여 - 오 에 - ”로 받으 면서 상여의 앞머리를 숙여 작별을 고한다. 선소리꾼이 “신사-당-에, 일배-하고-”에 이어 “북향 - 사 -배, 올립-니다-”를 소리하면 상두꾼들은 상여의 앞머리를 숙여 마지막 이별을 고하고 길을 떠난다.

자월2리 동촌에서는 그집 마당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선소리꾼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를 소리하 면 상두꾼들은 <105②>처럼 “나무아미타불”로 받는다. 길을 나서기 직전에 선소리꾼이 “새끼들,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키워서, 살 만큼 해 주구 나는 간다”하면 상두꾼들은 상여의 앞머리를 네 번 숙이 고는 획 돌아선다. 사정없이 돌아서므로 다칠 수도 있단다.

40) 이소라, [충남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 2003. <표 1>참조
이소라, [괴산민요집]괴산군 2013.p.68

덕적면 소야리에서는 선소리꾼만 <106①>처럼 길게 하직하는 말을 외친다음 “내명사!”하고 소리치면 상두꾼들이 운구를 울려댄다.

집마당에서 선소리꾼이 “어-허이 넘차하이 너어 로다” <106②>를 소리하면 상두꾼들도 이를 받아 “어-허이 넘차하이 너어 로다”를 부른다. 선소리꾼이 “일가 친척을 만나구 가자”라 멕이면, 일반 상두꾼들은 “어-허이 넘차하이 너어 로다”로 받으며 맺고는 길을 떠난다.

<107①>은 덕적면 북2리에서의 하직소리이다. 북2리에서는 선소리꾼 혼자 악보의 (α)선율형으로 읊다가 “하직인사 허구 떠나가자”에 이어 운상소리 받음구 류인 “어 너화가 너화로구나”를 소리냄을 신호로 상여를 돌려 길을 떠난다.

덕적면 서포2리에서는 <108①>처럼 선소리꾼이 독창하고는 길을 떠난다.

(4) 운상소리 <웅진 99②, 102①③, 104②, 105②해설, 106③④, 107②③, 108②③, 109①, 110①, 111①, 112①, 113①, 114①, 115①, 116①②>

상여를 메고 길을 갈 때의 운상소리에는 평길운상소리와 오르막운상소리가 있다. 영흥면 내4리에 서처럼 다리를 건너기 전에 긴소리를 따로 하는 예도 있다.

전국적으로는 선소리꾼이 대들 위에 올라타거나 내려서 앞에 걸어가며 자월면 승봉리에서처럼 요령을 흔들어 박자를 맞추는 곳이 많지만, 영흥면 내4리처럼 북을 치는 곳도 있고 경남 거제군처럼 뿔과리를 치며 소리하는 예도 있다. 또한 경북의 안동시나 예천군, 영천시, 의성군 단촌면 병방리, 봉화군처럼 명주수건이나 흰수건을 흔드는 곳도 있다.

i. 평길 운상

근해도서편의 평길운상 받음구 예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토민들의 받음구 예를 보면, 영흥면과 자월면 자월2리(동촌) 및 덕적면 소야리는 넘차류에 속한다. 영흥면 내4리에서 다리 건너기 전의 긴소리인 <102①>이 내재4박 2마디인 것을 제외하면, 근해도서의 받음소리는 내재4박1마디 짝이다.

넘차 류는 경북지역에 많으나, 상주를 비롯한 보다 서쪽 지방은 비(非)넘차류가 우세하다. 충남지방도 비(非)넘차류를 선호한다. 경기지방의 동구밖 운상소리로는 내재4박 1마디 짝인 한마디 소리가 우세하며, 두마디 소리 중에서는 넘차 류가 비(非)넘차류에 비해 우세하다.⁴¹⁾

41) 이소라, [경기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 2000, p.18.

〈표 6〉 웅진군 근해도서편의 평길운상 받음구 예

〈웅진〉	지 역	가창자(생년)	받음구 예	비고
〈99②〉	영흥면 내4	박상석 등	헤 넘차 넘어 or (에헤 넘차 너허 호)	M1.v4.t1. 12/8박 1마디씩
〈102①〉	영흥면 내4	김기수,임평택	에 헤, 허허 요호호호/ 어거,리 너험차 넘 - 어	*다리건너기전 긴소리 내재4박2마디. S1.v4.t1.
〈102③〉	영흥면 내4	“	에 넘차 넘어	M4.v4.t1.4. 12/8박 1마디씩
〈104②〉	자월면 승봉	김인화 등	어이,어히 어히 어이	출현음:솔도레v1.4.t1. 내재4박1마디씩.
〈105②〉 해설 끝	자월2 동촌	남진섭	어 넘차 넘세	
〈106③〉	덕적면 소야	배병윤	어허넘차이 너(화)로다	S4.v1.4.t1-2.
〈107②〉	덕적면 북2	문송준	어 넘사 너화로 구나 (어화 너화강 너화로 구나)	출현음:솔도레 v1.4.t1.4.
〈108②〉	덕적면 서포2리	김현쇠	어 노화 노화 노화	S1.v1.t1-2g. 12/8박 1마디씩.
〈109①〉	덕적면 서포1리	장석진,임배진	에이 노화 노화 로다	S1.v1.4.5.t1. 내재4박1마디씩.
〈110①〉	북도면 신도2리	라만석(1932),김봉윤(1917)	너 너허 너 호. (어 넘차 너 호)	출현:미라도.v1.4.t1. (받): 12/8박 1마디.
〈111①〉	북도면 신도2리	전원실(1900)	어 너 너허 너	(L4.v1)+(M3.v1.4.t1) (받): 12/8박 1마디. (메): 12/8박 1,2마디.
〈112①〉	북도면 시도	백기열(1914)	에이 너호 너허 호호	12/8박 1마디씩
〈113①〉	“	백광식(1916)	너 너호 너 호	
〈114①〉	청용,연평, 북도면 시도	최원식	에 호에 호, 어허이 녕청 에헤 호	*피난자
〈115①〉	북도면 장봉도	박명규,김창식	너 너 너허 너, 너 넘차 너 너	*참고용
〈116①〉	동강면, 장봉도	임성복	널 널 너, 너./너가 녕쳐어형 너에에 헤 요호호	*피난자

ii. 오르막 운상

근해도서편의 오르막 운상소리를 영흥면 내4리〈102④〉와 덕적면 소야리〈106④〉, 덕적면 북2리〈107③〉, 덕적면 서포2리〈108③〉에서 수집하였다.

북도면 장봉도 토민인 박명규(1925년생)와 김창식(1919년생)은 오르막 운상소리가 따로 없다고 하였다. <116②>는 해주부근 동강면 덕현리에서 장봉도로 피난온 임성복 제보인데, 오르막운상으로 산염불을 부른다고 하였다.

영흥면 내4리(102④)에서는 오르막 운상 때 “남세”를 복창하며, 남세-를 길게 소리함을 신호로 상여를 내린다.

<106④, 107③, 108③>은 모두 덕적면에서 녹음한 중화 류의 오르막 운상소리이다. 받음구 예는 각각 “어화 중화”, “어화 중화”, “어허 중화”이다.

덕적면 북2리 문송준은 “어화 중화”이외에 “어이사”라고도 하는데, 어이사는 뱃소리 같지만, 힘이 덜 들어간다고 하였다.

중화 류는 충남지방의 개성적인 장원질소리 내지 마을길소리인 중해 류⁴²⁾와 연관되어보여 흥미롭다.

- (5) 달구소리 <웅진 99③④, 103, 104③, 106⑤, 107④, 108④, 109②, 110②, 111②, 112②, 113②, 114②, 115②, 116③>

i. 영흥면 내4리의 회다지

<99③>은 영흥면 내4리에서 본격적인 회다지에 들어가기전의 아뢰소리이다. 내4리에서는 논매는 긴소리<웅진 1①>의 시작 전에도 아뢰를 놓았다. 양자는 같은 날 녹음되었으나 선소리꾼이 다르다. <1①>에서는 군방네를 찾았고 <99③>에서는 벗님네를 찾았다. <99③>에서는 달구꾼들 중에서 처음에 “산신령한테 올렸소-”로, 두 번째는 “목동한테 올렸소-”, 세 번째는 “좌상한테 올렸소-”로 화답함에 비해, <1①>에서는 논매기꾼들 중에서 두 번째에 “서낭님한테 올릿시다-”로 화답함이 다르다. 또한 <99③>에서는 처음만 “벗님네 -”를 찾고, 두 번째와 세번째는 벗님네 - 대신에 각각 “산지 - 조 - 중, 부주 - 어 어 -”와 “일월 영-〈책〉, 빈소우- 열저형”을 소리냄이 다르다.

이러한 <99③>의 아뢰소리는 달구꾼들이 유장하게 “에 헤 - 이, 이히여 - 이 달궁이야”를 소리함(선소리꾼은 이때 악보 예에서처럼 잦은 연타채를 쳐준다)을 끝으로 단락짓고⁴³⁾ 이어서 <99④>의 첫채 다짐으로 들어간다. 받음구 예는 “에이 여러 다알고”이다. (매)와 (받)이 각각 12/8박 1마디씩이다.

42) 이소라 등 3인, [충남지방 논매기소리총서]하권, 민족음악연구소와 공주대학교, 2015, p.651

43) 실제의 회다지 현장에서라면 이러한 긴 달궁소리를 2,3채다짐에서처럼 여러번 맥이고 받을 것 같다.

첫채다짐을 끝내고 싶으면 선소리꾼이 “어-이 여-리 후-이 휘-이”를 소리하며 달구꾼들은 “에이 여-라 휘 휘”라 받고는 단락짓는다. 이는 경기지방에서 회다지기 끝에 새가 고인의 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상이 표현된 <우야소리>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민요의 특색이지만, 용인이나 이천, 평택, 화성 방면으로 오면, 이미 전파의 변두리적 현상을 나타낸다.

내4리에서는 달구꾼들이 달굿대 없이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며 발로 다진다. 달고 3채를 다지고도 조금 미진해 보이면 선소리꾼이 유행가(예; “.. 정처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 또는 ‘닐리리야’ 등)⁴⁴⁾를 부르며 기분을 전환시킨 후, 조금 더 다지기도 한다.

ii. 기타 근해지역의 회다지

자월면 자월2리 동촌에서는 광안의 한가운데다 달굿대 하나를 꼽고는 달구꾼들이 몽둥이(몽 달굿대) 하나씩을 들고 광안에 들어가 밟는다. 망자가 배씨라면, 선소리꾼이 “어허 어허, 배씨네 달고”하며 맥이기도 한다. 자월면 승봉리<104③>의 받음구 예는 “어이 영차 달 고”이다.

덕적면 소야리<106⑤>에서는 달구꾼들이 달굿대를 각자 들고 “어 허라 다할 공”하고 소리 받으며 다지다가 “어여라 -”하고 길게 외침을 끝맺는 신호로 여겨 달고밟는 일을 멈춘다.

덕적면 북2리<107④>의 받음구 예는 “어허이 야라 다알 고”, 덕적면 서포2리<108④>의 그것은 “어 허라 달고”, 덕적면 서포1리<109②>는 “어 허라 다알공”이다.

북도면 신도2리<110②>의 받음구 예는 “에여라 달구요”, 신도2리 전원실(1900년생) 창<111②>의 그것은 “에이여라 다알고”이다. 달굿대를 각자 들고 달군다. 북도면 시도의 백기열 창<112②>은 “허기야라 다알공”, 백광식 창<113②>은 “어이허라 다알공”이다. 북도면 장봉도의 그것은 “어허이여라 다알고”<115②>이다.

<114②, 116③>은 북도면으로 피난온 분들의 가창이다.

자월면과 덕적면, 북도면의 달구소리는 달고 형 또는 달구 형, 달공 형이며 (메)와 (받)이 3소박4박 내지 내재4박 1마디 짝이다.

44)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옛임이 그리워서,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박상석)”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난 싫어 내가 돌아간다 닐니리 닐니리야, 왜 왔던가 왜 왔던가 요다지 곱게도 왜 생겼나, 닐니리 닐리리야, 청사초롱 불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닐니리 닐리리야(김기현) (20190528.n.8)”

(6) 봉분 가래 <웅진 100,105③,106⑥>

<100>은 영흥면 내4리의 봉분 가래질소리이다. 서두에 장치꾼(가랫대를 잡는 사람)이 가래질을 가지런히 하자는 신호로 “가래호 - ”하고 외치면 가랫대 양쪽의 줄잡이들이 복창한다.

호흡이 맞는 듯하면 장치꾼이 “어 하”하면서 가래로 봉분에 쓸 흙을 파고, 줄잡이 들은 가지런히 “어 하” 또는 “자 하”로 소리를 받으면서 줄을 잡아당겨 흙을 퍼올린다. 장치꾼(메)과 줄꾼(받)의 소리가 각각 8분의6박 1마디씩이다.

<105③>은 자월면 동촌의 가래질소리이다. <100>에 비해 매우 유장하다. 받음구 예는 “에헤 - 에 - , 가 - , 가 - 래 요”이다.

<106⑥>은 덕적면 소야리의 예이다. 받음구는 “어 허라 가래야”이다. (메)와 (받)이 내재4박 1마디씩이다.

<105③>을 느린 가래소리라 한다면, <106⑥>은 잣은 가래소리에 든다. <100>은 더욱 잣은 바, 아마도 어느정도 흙을 준비해둔 상태에서 봉분을 위해 퍼부으며 쌓는 동작이 예상된다.

(7) 뗏간 <웅진 104④>

자월면 승봉리에서는 동네사람들이 장례를 치루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산의 나무로 들채를 만들어 선소리꾼을 태우고는 귀가길에 일부러 나무에 부딪치거나 개울을 지나면서 들채를 기울여 떨어뜨리기도 하고, 상갓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으랏차차” 함성을 지르며 부딪쳐 대문을 부서러뜨리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뗏간놀이<104④>는 일종의 헛상여 놀이에 해당한다.

연평도의 너시랑소리, 제주도의 원님놀이나 경북 예천군·의성군 일부지역, 경남 하동군과 밀양시 일부지역, 전남의 광양읍이나 보성군 벌교읍, 담양군의 용면 추성리와 무정면 칠전리의 헛소리 등도 장례 뒤에 빈상여를 들고오며 행해지는 헛상여 풍속이다.⁴⁵⁾

45) 이소라,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집]제주학연구센터2018,p.490이하.

이소라, [경북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2001.p.20

이소라, [전남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2002.p.31

이소라, [광양의 민요]광양문화원,2002.p.102

이소라, [경남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2006.p.27

이소라, [웅진섬 민요집]-백령·대청·연평면 편-,2019. 10월 p.58



장례용 천막 접어놓은 것(자월면)



영흥면 내리

악보



〈웅진 1〉

웅진군 영흥면
내 4리

1. 긴 소리
2. 에 넬넬 상사
3. 몬 돌
4. 에 헐쭉 덩어리
5. 잣은 일카덩어리

(메) 김기선 (1926년생.남.토민)

(받) 박상석 (1934년생.남.6세에
서산군 인지면서 이주)

김인환 (1914년생.남.토민)

김기순 (총무계장.남.토민)

녹음업조 : 이상원 면장

녹음&채보 : 이소라
(87-9-14-1A)

1.

♩ = 150



(일행 중에서) 산신령님한테 올릿시다 —

(선소리꾼) 군 방 네 —

(일행 중에서) 서낭 님한테 올릿시다 —

(선소리꾼) 군 방 네

(일행 중에서) 좌상 님한테 올릿시다 —

* 굴라 서라 ! 하연, "에 — 이 "대답하면서, 노래할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굴라 선다.



(메)

능 사 의 신 능 씨 의

능 사 배 - - 다

(받)A팀

에 헤 이 이 에 데 라

(받)B팀

아 이 이 에 - 라 -

(메)

능 사 - 를 - 지 여

허 서 - 는 짓 - - 고

(받)A팀

에 헤 - 이 에 - 라

(받) B팀

아 어 이 에 라

(매)

늘 사 지 여

나 라 메 다 - 바 치 고

(받) A팀

에 헤 이 이 에 - 라

(받) B팀

아 어 이 이 라

(매) ○ 부모 봉양 하면 / (받)

2.

* 판 배미로 넘어갈 때가 다 되었다는 신호도 된다.

♩. = 60 - 75

(받)

에 렐 렐 널 널 상 사 디 아 에 래 열 렐 상 사 디 (야)

(매) 상 사 농 사 매 들팍 을 지 여 서 (받)

(매) 이 농 사 를 지 여 다 가 (받)

3.

* 은름 : 논매기를 들렀는 소리이며, 뽕들은 모았다는 뜻이라고 함.

♩ = 60 ~ 67

(매) 메 이 여 라 뽕 — 들 (받)

(매) 내 모 뽕 듯 안 — 뽕 뽕 들 (받)

(매) 달 이 뽕 — 다 등 근 달 일 세 (받)

(매) 이 뽕 배 미 를 일 — 른 매 구 (받)



(메) ○ 책이 져다 미누민들
○ 만달 같이 남았으니



4. - 호미로 남달 때 -

$\text{♩} = 75$



5.

$\text{♩} = 86$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a single melodic line in 6/8 time. It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tempo is marked as 86 beats per minute. The lyrics are in Korean. Performance markings include (메) for melody, (받) for accompaniment, and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the first staff.

Staff 1: (메) α [3] (받) α (메) (받)
 열 카 멀 어 리 아 영 어 리 소 리 예

Staff 2: (메) (받) (메) (받)
 어 띤 사 람 귀 두 뵈 게

Staff 3: (메) (받) (메) (받)
 먼 - 디 사 - 람 돌 기 줄 - 게

Staff 4: (메) (받) (메) (받)
 가 깥 디 사 람 부 기 줄 게

〈웅진 2〉

웅진군 영흥면
외리

논매기 (방아)

김종만 (1915년생 남, 오래전대
부터 토민) 장
素 87-9-14-2 B

* 모심기 : "여기 저기두 심어두
망석자리로 심자 "

* 외리에선 호미로 안댔다.

* "에이여라 몬돌"은 돌아가자는 소리이다.

♩ = 150

(반)

에 헤 이 이 이 여 라 바 망 아

(매)

이 방 허 가 뉘 방 한 고

(반)

에 헤 이 이 여 라 방 아 으

(매)

잠 태 공 의 조 작 방 아

(반)

〈웅진 3〉

웅진군 영흥면

논매기 소리

김기동 (1916년생.여.토민) 창
素 87-9-14-2 A

1. 일카덩어리 잘넘어간다 — 호미질 할 때 —



2. 방아

* 참고동.



〈웅진 4〉

웅진군 영흥면
내4리

발매기(상사)

김인환 (1914년생.남.토민) 창
녹음&채보 : 이소라 (87-8-25-1 B)

- * 선조들이 화성시 남양과 대부도를 거쳐 조부 때 영흥면 입도함.
- * 밭 작물로는 수수, 조, 콩 등이 있다.

* 서두 : "목둥들아 - , 콩밭 --" (蒸 87-9-14-1 B)

♩. = 75

어 렐 렐 렐 렐 상 사 디 야

에 렐 렐 렐 상 사 디 야

상 사 능 사 매 들 을 지 어 라

에 렐 렐 렐 렐 상 사 디

에 해 렐 렐 상 사 디 야

〈웅진 5〉

웅진군 영흥면
내 4리

나무꾼소리

김인환 (1914년생.남.토민) 창
素 87-9-14-1 B

외침 : "나무꾼들아 나무가세 —"

♩ = 75



등 걸 끈 아 등 걸 가 자 에 헤 에 헤 에 헤 에
산 으 로 올 러 나 무 가 자

지게 등발 뚝 뚝 뚝 뚝 —
갈캥이를 글럭 글럭

어서 가자 —
산으루 가세 —

목동들아, 나무 가세 —
산으루 가세 —

나무꾼아 나무 가세 —,
등걸꾼아 등걸 가자,
에헤 에헤 에헤에
산으로 올라 나무 가자 —

에루 지게 등발 뚝 뚝 뚝 뚝 —
갈캥이를 글럭 글럭

어서 가자 —
산으루 가세 —

〈웅진 6〉

웅진군 영흥면

모심기

김기동 (1916년생.여,토민)창
素 87-9-14-2A

여기도 하나 심었네
저기도 하나 심었네

올해는 대석이요
내년엔 몇석이요

〈웅진 7〉

웅진군 자월면
용유면 을왕리

모심기

강준여 (1896자월면출생.여.
20세에 용유면 시집감)창

素 87-8-11-2B

여기두 하나 심었구나
여기두 하날 심었구나
하나 소리에 손 날린다

〈웅진 8〉

웅진군 북도면
신도 2리

모심기

김봉운 (1917년생 남.토민) 창

(외침) " 열심히 해 봄시다, 심읍시다 — "

♩. = 120

하 나 간 데 둘 두 간 다

들 간 데 싹 두 가 구

빨 리 빨 리 (들) 하 라 빨 리 빨 리

어 —, 잘들 한다, 워 아,

" 우리 양석자리가 또 있구, 빨리 합시다 — "

〈웅진 9〉

웅진군 북도면
신도 2리

상사 (논맬)

(메) 김봉운 (1917년생.남.토민)
(받) 라만석 (1932년생.남.토민)

이소라 채보 (案 88-8-1 B)

♩ = 60



(메) ○ 이 는 배미루 넘어 가면
장구 배미루 넘어 간다

(받) 메이 여라 상사 데여



(메) ○ 장구 배미의 김을 다 매구
○ 어야 어야 상사 데야
○ 아주 만네는 밥통을 미 구

○ 경외 경외 상사 구나
○ 어성 어서 매여 보자

○ 매여 데어나 상사 데야
○ 밥풀이 왔으니 나가 보세



〈웅진 10〉

웅진군 북도면
장봉도

논매기소리

김재환 (1915년생, 남, 토만, 나주김) 창
素 88-7-12-2A

* 호미르도 논맸다.

— 참고음 —

♩ = 50 ~ 55



〈웅진 11〉

웅진군 복도면
산도 2리

방아 (논매기)

전원실 (1900년생. 남. 토민) 장
素 88-8-1 AB

- * 호미로 뭇 때나 손으로 흙질 때 두루 부른다.
- * 15 ~ 20 명이 함께 논맸다.
- * 중조부께서 강화도에서 입도하셨음.
- * 다른 논매기 소리는 없다고 함.

♩ = 46 - 60



(메) ○ 여보 농부들 말 들어라
○ 이 논배미 길ahun 매구



(메) ○ 저논 매구 나머지들 가 자

〈웅진 12〉

웅진군 북도면

장봉도

1.소부림 말

2.베들가

창 : 박명규 (1925년생.남.토민)

素88-7-12㉔A

1. 바른 쪽 ; 이라 이라
 왼 쪽 ; 어러
 서라 ; 워

2. - 일반 곡풍 -

낮에 짜는 건 일광단이로다
밤에 짜는 건 야광단이라

아기나 이화도리나 울지를 말이라,
니가 울며는, 날이 샌다

에헤야 벼 짜는 아가씨
 <베>

사랑노래 벼들에 수심만 지누니

〈웅진 13〉

웅진군 덕적면
서포2리

소부림 말

이재운(1901년생·남)제보
素87-11-13①B

* 소 1마리로 쟁기질 하였다.

왼쪽 : “저저저”

오른쪽 : 고삐 당기면서 “다려”

서라 : “워 - ”

가라 : “이랴 ”

〈웅진 14〉

웅진군 덕적면
서포리

논김매기 소리

오정금 (1910년생.여.토민) 장
쵸 87-11-13-1 A

* 밭매거나 나무하러 갈 때도 불렀다.

$\text{♩} = 150$

우리 어 머니 는 — 뭘 뭘 라 하 고 —

딸 이 나 — 자 — 식 으 을 나 를 낳 서

이 런 생 활 을 왜 시 켜 가 지 구

보 서 큰 세 상 을 왜 살 리 나

〈웅진 15〉

웅진군 덕적면
서포리

발매기

오정금 (1910년생.여.토민) 장
素 87-11-13-1 A

선율은 (α) 류

- 올 어머니는 나를 <곱>게 <곱>게 길러 —
남의 집 살이를 나를 보내
시집 살이를 삼년 살고 나니
이월이 꽃시 다 피었구나

$\text{♩} = 150$

햇 대 끝 이 반 배 청 에
를 며 씻 구 날 며 씻 구
눈 물 씻 기 루 다 젖 었 네

선율은 (α) 류

- 잘 사는 시집 살이 —
혜방자 놓고
된 감 <당> 할 줄을
니 울렸 나 —

〈웅진 16〉

웅진군 덕적면
서포 2리

발매기

문인애 ((1909년생.여.토민) 창
素 87-9-14-2 B

$\text{♩} = 150$

지심매려가 재지심올매려간다

우장을허리다돌러고

지심들매려가자

웅진군 덕적면
서포2리

나무꾼소리

문민예 (1909년생.여.토민) 창
素 87-9-14-2 B

* 나무하러가서 힘들면 불렀던 노래.

♩ = 150

어머니는 - 날 <곶> 게 <길> 러 서

날서리 - 언 생활을 왜 시 기 나

잔 술 발 에 에 수 건 을 잃 고

고 고 수 건 찾 기 가 하 (난) 감 허 다

잔 드 나 발 에 - 바늘 을 잃 고

고 바늘 찾 기 가 난 감 이 라

〈웅진 18〉

웅진군 덕적면
북2리

나무꾼소리

최운열 (1913년생, 여.토민) 장
素 87-11-13-1 B

$\text{♩} = 150$

우 리 어 머 니 는

왜 나 를 길 러

날 설 은 일 을

왜 요 리 시 키 나

〈웅진 19〉

웅진균 덕적면
소악2리

나무꾼 (올어매)

서운예 (1915년생.여.토민) 창
索 87-11-13-2 A

* 청춘가 곡풍

♩. = 53

1. 우리 어머니 나 아 아 으 은
왜 - 날 길 러 - 서 - - -
이 런 미 - 생 <할> 에 - - -
날 시 키 나 - 요 - - -

2. 세월아 네월아 아 - ,
오고 가지를 말어라,
청춘 우리들, 에헤
다 늙는 구나 아

웅진군 자월면
웅유면 풍왕리

발매기

강준여 (1896자월면출생.여.
20세에 웅유면 시집감)창
素 87-8-11-2A

♩ = 75

사 래 겹 이 널 은 발 을

윗 과 갈 이 기 운 발 을

아 래 눈 에 찰 배 심 고

웃 자 에 다 매 배 심 어

멧 딱 뽕 고 찰 딱 뽕 어

종 각 밭 군 앞 에 시 고

친 정 에 를 간 다 허 고

길 을 떠 나 나 섰 더 니

어 머 니 죽 은 행 <상> 소 리

귀 가 마 파 꽃 들 겼 네

〈웅진 21〉

웅진관 자월면
웅유면 불왕리

사촌성님

강준여 (1896년 자월면출생.여.
20세에 웅유로 시집감) 창
索 87-8-11-2 B

♩. = 60 ~ 67

성님 성님 - 사촌 성님

시집 살아가어 땀 디까

동상 동상 사촌 동상

고초 당초 맵다 해드

시집밖에 매울소냐

열두목 두루쳐마

헛대 끝에 걸어 놓고

들 며 씻 고 날 며 씻 고
 눈 물 섞 여 다 처 졌 네
 동 상 동 상 사 촌 동 상
 아 무 죄 록 잘 살 어 야
 시 집 살 이 가 어 떨 디 까

집 안 이 망 할 러 면
 딸 자 식 이 망 한 다 고
 다 참 고 몇 날 몇 년 눈 물 씻 거

열 두 쪽 두루 처 마
 <치>

햇 대 끝 에 검 이 놓 고
 눈 물 씻 거 다 처 졌 네

〈웅진 22〉

웅진군 자원연 이적
대부도 북 2리

사춘성님

김화분 (1928이적 출생.여.
1967년경 북 2리 이주) 창
素 87-8-25-1 B

$\text{♩} = 47 \sim 60$

성님 성님 - 사춘성님 -

시집 살기가 - 어떨던고

에라 이년 아 그 말 - 마라 -

귀먹어 삼년 - 병어리 돼 삼년 -

눈어두어 삼년 - 석삼년 을

살 구 나니 일월이 못 서

다 났 더 라

웅진군 자월면
웅유면 을왕리

1. 삼삼기
2. 발매기

강준여 (1896자월면출생.여.
20세에 웅유면 시집감)창
素 87-8-11-2A

1.

* 삼은 삼아보았지만, 모시는 안 삼았다.

♩. = 50

삼 까 래 는 말 트 가 고

밤 시 간 은 - 절 로 가 고

이 내 ... 잠 은 물 밀 듯 하 는 데 -

(* 미약한 퇴성)

삼 까 래 는 말 러 가 네

2.

* 삼삼기의 첫행 선을 유형.

- 이골 매고 저골 매고
- 장구 배미로 넘어 간다

〈웅진 24〉

웅진군 자월면
용유면 을왕리

베를가

강준여 (1896자월면출생.여.
20세에 용유면 시집감)창

素 87-8-11-2A

- 일반 류 -

오늘도 하도 게 심심허니
베를가나 허나 불러볼까,

밤에 째건 월광단이요
낮에 짜는건 <일> 광단이라

월광단 일광단 다 저쳐 놓고
내 품안에 정 들어라

웅진군 자월면
자월2리 동촌

농사노래 (자월고사 2)

* 농악소리이지만,
모심을 때도 부를 수 있다.
논밭 때는 소리 없다.

(예) 천용우 (1937년생.남.토민)
(받) 남진섭 (1931년생.남.토민)
김영민 (노인회장) 등 회원들
녹음업조 : 강도영, 남진섭, 박인협
녹음&재보 : 이소라 (19.4.11고사3)

외침 : "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 농사 한번 지어 보세 - "

♩. = 60 ~ 57

(예)

1. 여봐라 농군들아 말들어라

여봐라 농군들아 말들어라

돌아왔네 또들어왔네 -

서마지 (농사철미) 들어왔네

(메, 받)

에 헤 에 헤 에 헤 여 루

상 사 디 여

<행 B>

2. 여봐라 농부들아 말 들어라
여봐라 농부들아 말 들어라
이 논 배미를 얼른 심구서
저 논 배미로 넘어가세

에 헤, 에 헤 에 헤 여 루 / 상 사 디 여 // <행 B>

3. 여봐라 농부들아 말 들어라
여봐라 농부들아 말 들어라
서마지기 논 배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에 헤, 에 헤 에 헤 여 루 / 상 사 디 여 // <행 B>

4. 여봐라 농군들아 말 들어라
여봐라 농군들아 말 들어라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부모 처자들 봉양 하세

에 헤, 에 헤 에 헤 여 루 / 상 사 디 여 // <행 B>

〈웅진 26〉

웅진군 자월면
송봉리

청춘가곡풍

김월랑 (1935년생, 여, 토민) 창
녹음 & 채보: 이소라 (2019.9.18)
n.21 후반 (4:24~4:42)

1. *바닷가에서 굴따거나, 산에서 나무할 때 부르곤 하였다.

♩ = 52~56

숫 다 나 마 는 물 이 - - -

때 맞 취 밀 지 - 만 으 호 락

한 번 간 사 람 은 으 으 호 락

다 시 을 줄 모 - 르 네 - -

2. 정 천 하늘에,
진별두 많구요,
이 내 가슴 속에, 예
수심두 많구나

〈웅진 27〉

웅진군 덕적면
서포리, 소야리

을 어 머 니 는 (청춘가 곡풍)

서재옥 (1920서포출생, 여.
소야리로 시집옴) 창
미소라 재보 (87-11-13-2A)

♩ . = 50 ~ 60

(을) 어 허 머 니 히 는 - - -

날 곱 게 길 러 - 서 - 허 -

어 디 루 못 보 내 - 먼 에 루 화

서 유 리 로 다 날 보 내 켜 나 -
<소 야 >

〈웅진 28〉

해주부근 동강면 덕현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모 씨 기

임성복 (1923. 덕현리출생. 남.
장봉도로 피난나옴) 창
素 88-7-12-2B

<SR>해석악보

(A)

찢 네 뽕 아 앓 지 - -

여 기 도 한 - 침 뽕 - 앓 지

(B)

찢 다 고 허 니 까 (≡) 겨 란 을 찢 지 아 니 언 - -

여 기 두 - 모 한 줄 찢 - - 네

- (C) 찢네 찢네이
나두 한침 찢네
- (D) 찢구 나 찢어
나두 한침 찢네
- (E) 즐러덤 즐러덤
여기두 한침 찢네

〈웅진 29〉

해주부군 동강면 동광면 덕현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모심기

임성복 (1923.덕현리출생.남.
장봉도로 피난나옴) 창
素 88-7-12-2B

♩. = 35 ~ 43

(받)

해 웅 해 - 웅 모 해 - 웅

모 해 해 이 에 에 모 해 웅

〈웅진 30〉

해주부군 동강면 덕현리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모심기, 논매기

임성복 (1923.덕현리출생.남.
장봉도로 피난나옴) 창
素 88-7-12-2 B

♩. = 35 ~ 43

(받)

해 웅 해 - 웅 모 해 - 웅

모 해 해 마 에 - 모 해 이 웅

〈웅진 31〉

해주부근 동강면 동광면 덕현리
인천광역시 응진군 북도면 장봉도

논매기

임성복 (1923. 덕현리출생. 남.
장봉도로 피난나옴) 창
素 88-7-12-2B

* 참고용.

♩ = 150

(받)

에 해 해 에 에 해 에 해 에 요

모 해 해 이 에 - 해 에 모 해 요 - c

〈웅진 32〉

해주부근 동감면 덕현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감내기

임성복 (1923. 덕현리출생. 남.
장봉도로 피난나옴) 창
녹음 & 재보 ; 88-7-12-2B

♩. = 60 ~ 67

1. 몸 살 러 오 게 나 몸 살 러 - - -
오 게 - - - 애 이 에 에 - - -
나 시 저 험 간 <곳> 으 - - - 르
몸 살 러 오 - - - 게 - - -
이 라 이 라

2. 신 자 렴 나 물 이 는 허 - - - - -
을 <해> 풍 년 이 겠 는 데

나 사 는 - - 등 광 면 - 애 - (ㅎ)에 헤 에

인 품 년 만 들 - 어 었 - 내 -

갈 까 나 볼 까 으 - - - (ㅎ) - - -

말 까 (ㅎ) 보 - 르 까

이 라 이 라

3. 에 헤 헤 헤 - 갈 까 하 보 호 다 으 마 아 아

말 까 하 - 보 들 까

물 닻 되 - 풍 닻 되 에 이 름 - 다 주 거 허 도

불 샀 하 나 값 하 으 비 못 된 다 하 하

울 라 으 으 하 할 까 브 - 오 호 데 - 매

C.P

이라 이라 - , (음메, 음메 -)

〈웅진 33〉

웅진군 북도면
장흥도

노젓는 소리

창 : 박명규 (1925년생.남.토민)
김창식 (1919년생.남)

素 88-7-12-2 A

♩ = 80 ~ 86

(박) 에 헤 헤 에 헤 처 허 에 - 에

(박) 에 메 - 메 에

(김) 메 헤 처 허 어 야 디야 차

(박) 헤 야 하 메 이 이

(김) 어 야 차 마 아 마 메

(박) 헤 메 예이 이 이 어 허

(김) 어 - 이 자 자 할 라 자 자

(박) 화 장 아 야 노 잘 <저 어>라

(김) 어 이 자 어 이 자 자

(박) 인 천 — 가 서 어 허 어 허 발 땃 사 주 께

(김) 어 이 야 어 이 자

(박) 어미 허 (+) 어 허 (+) 아버지 눈에는 (+)
 (김) (+) 어미 자 (+) 어미 허어 (+) 어미 자자

(박) 술 집만 뵈어 (+) 어미 허 (+) 어미 허 — — — 자자자자
 (김) (+) 어미 자자 (+) 어미자자

〈웅진 34〉

웅진군 북도면
시도

그물 당기는 소리

창 : 백기영 (1914년생, 남.로민)

최원식 (1939년 연백군

청음면 출생, 16세에

연평도 거쳐 시도 오심)

素 88-8-1A

* 못 감는 소리나 노젓는 소리나 비슷하다고 함.
시방 사람들은 기계로 해서 이런소리 모른다.

♩ = 75

(백)

에 야 디 야 하 에 야 디 여 차

(최)

어 기 야 다 여 - 어 아 - 해

(백)

머 야 디 마 자 자 자

(최)

〈웅진 35〉

연백군 청송면 웅매도
웅진군 연평도, 북도면 시도

배치기

최원식 (1939웅매도출생.남.
16세에 연평도로 피난후,
시도 이주)창

素 88-8-1 A

♩. = 60

백 전 에 아 줌 마 인 심 이 줄 아

막 내 딸 날 아 서 화 장 애 주었 네 이

에 에 헤 어 어 - 어 으 마

으 - 하 으 하 아 - 하 요

(흥)A / Sim.

아 랫 등 웃 등 다 젖 차 농 고

가운 데 애 메 서 도 장 군 했 구 나 으

애

메 해 허 어 어 으 어 어 으 어

어 - 하 어 으 하 아 - 하 요

(뽀)A

〈웅진 36〉

웅진군 덕적면
서포 2리

배치기

인권옥 (1922년생, 남, 토민) 청
索 87-11-13 -1 B

- 어여 디여차 떠들어 온다
북 받은 사람의 그물로구나
에 헤 —
— 흠아요

$\text{♩} = 150$

아 래 웃 등 다 저 처 놓 고

가 운 데 등 에 서 손 머 리 쳤 구 나 —

지 화 — 자 — 에 —

에 헤 헤 에 흐 으 앙 아 — 하 요

- 연평 바다에 들은 조기
우리 망제로 다 들어 온다
자 — 하 에 헤,
에 헤 — 흥 어하요

웅진군 덕적면
서포2리

배치기

창 : 문인예(1909년생.여.토민)
素87-11-13①AB

*중선배

- 도장원 했네 도장원 했네
연평 칠산 도집어 먹고
가운데 등에서 도장원 했구나
이화 화 화 요
- 이 주는 상곶배 올라가는 상고선
우리 배 꿈무니 다 둘러 찾구나
에 - 에허아 하 요
- 암애 수해를 맞 맞춰 놓고
우리 배 가운데 등이가 연 육지 되었네
에 - 에허아 하 요
- 배 포장 쳄네 배 포장 쳄네
가운데 등에서 도장원 하여 배 포장 쳄구나
에헤 - 에허아 하 요
- 선달 그믐이 맺인 봉죽
삼월이라 석 파일 재 붙친 했구나
에헤 - 에허아 하 요
- (암애 수애)를 맞 맞춰 놓고
위암 밑창에 열 육지 되었네
에헤 - 에허아 하 요

웅진군 덕적면
북2리

배치기

창 : 문송준 (1919년생. 남. 13대째 토민)
素87-11-13②A

- ★ 문송준은 어업종사를 녹음 당시 40년 하였음.
연평도 가서 고기 잡아오며는 상고선으로
받아가지고 충청도 가서 쌀과 바꾸어 왔음.

- 어여디여차 두루쳐 매고
연평 바다루 돈 실러 간다
에 ~ 에~ 앵 이하요
- 명복을 탕구나 응화요
명복을 탕어 응화요
임장군 전에서 명복을 탕다
응 ~ 응 메 아하요

〈웅진 39〉

웅진군 덕적면

배치기

창 : 이정옥 (1949해주시출생,여,
2세에 연평도 피난-덕적도
- 1970김포시 대곶면 이주)
索 92-1-31 B

* 덕적도에서 부친이 중선배 2척을 운영했다.
* 어려서 들어 아는 것을 불러보았음.

1. 연평 바다에 놀던 조기
양주만 남기고 말거리 했구나
어 어 — 화 어 화요

$\text{♩} = 60$



2. 뱃 집 에 아 증 마 인 심 좋 아



만 쪽 딸 길 러 서 화 장 아 이 주 었 네



어 어 — — 허 어 어 화 어 화 요

〈웅진 40〉

웅진군 덕적면
소야리

1. 배 치 기
2. 노 젓 는 소리

배병윤 (1927년생, 남, 토민) 창
素 87-11-13-2 A

1.

어 아 디 아 뱃 노 <리> 가 자 ,
어 허 어 허 — 어 하 요 ,

가운데 등에서 도장원 했네 , 어 허 ,
중선배 뱃전에 , 아주머니 정성에
가운데 등에서 도장원 하얏다
어 허 어 — 어 하 요

2.

$\text{♩} = 150$



어 거 디 여 아 어 거 아 예 — , 예 디 여 차 ,
어 지 어 디 '젓 여 , 어 디 아

망 건 이 앞 으 르 , 예 , 디 여 차 , 썩 썩 디 처 서 ,
이 여 디 여 전 이 라 어 거 어 어 거 예 — 이 처 차

〈웅진 41〉

웅진원곡도면
창행도

배치기

창 : 박영규 (1925년생.남.토민)

김창식 (1919년생.남.)

※ 88-7-12 -2 A

(박) ○ 어저 저저 닛 감는 소리,
유담포 큰 아기 밭 못집 쓴다
저 저 어하요

(김) 메 — 하 저하요

♩ = 67 ~ 75

(박) 

우 리 배 유 덕 산 들 어 드 니 —

장 릉 일 령 에 돈 풍 년 들 었 다

자 — 자 — 조 에 에

에 에 — — 어

어 — 어 하 즌 — 피 도

(박) ○ 우리 배 임자네 아주머니,
돈돌 밭 길러서 화장을 찼다
자 자 조,

tutti. 메 에 어 하 조 하 요

웅진군 덕적면
북2리

청춘가 곡풍

최윤열 (1913년생, 여토민) 작
素 87-11-13-1 B

* 굴 따면서 물렀다.

○ (물)은 밀어서
반 중참 되는데
굴 바꾸리는 좋다
올 넘어 가누나

♩ = 55-65

꽃 겨 나 났 구 나 - - -

꽃 겨 나 나 누 - 나 - - -

시 어 머 니 등 살 에 좋 다

(S.R.)
나 꽃 겨 나 누 - 나 - -

○ 쓸쓸한 내 세상
양자한 요 내 몸
어느 누구를 믿고서 좋 다
요세상 살 자 느 나

○ 갈 길이 바빠서
자동차 탔더니
자동차 기관수 좋다
눈짓만 하누나

말 줄 실 줄 - 이 - - -

그 리 운 님 아 음 - -

이 님 나 기 별 이 좋 다

을 사 나 질 - 까 나

- 세월이 가기는
바람결 걸구요
인 <생>의 늑기는 에루화
우리만 모리 로다
- 세월이 갈라면
나 혼자나 가겠지
알뜰한 요 정준
왜 다리고 갔느냐

웅진군 덕적면	<u>1. 굴 따기</u>	창 : 서운예 (1915년생.여.토민)
소야리	<u>2. 밭매기</u>	素87-11-13②A

- 신세한탄 조, 노랫가락 곡풍도 들어있음 -

1. 못 따졌네 - 못 따졌네
이 나 굴을 못 따졌네
우리 어머니는, 무슨 생활을 못 지켜,
나 요 굴따는 이런 이 생활 날 시켜줬나

2. 밭을 가면, 바랭이 원수
논일 가면 거머리 원수,
집이를 가면 새선 것 같은 시누 잡년,

순가락이나 농구서 정갈 가라,
씨암탉 걸은 시할머니,
언제나 이 시 상 아니 살구서,
 <세>
살바른 이 자유 시상을 나 살어 볼까

〈웅진 45〉

웅진군 자월면
자월2리 동촌

잠자리

1. 김요지 (1942년생.여.토민) 제보
2. 배준남 (1927년생.여.이작도
출생.동촌시집음) 창

음원 : 素 (2019.4.11.잠자리)

1. - 빛자루 가지고 잠자리 잡으며 -

$\text{♪} = 150$



많 만 깔 지 참 깔
 구 암 마 루 밭 솟 갈

2.

$\text{♪} = 150$



잠 자 라 꿈 자 라
 많 은 까 리 지 장 (까 리)

〈웅진 46〉

웅진군 자월면
송봉리

1. 잠 자 리
2. 이 거 리

강기열(1936년생.여.토민) 제브
素 2019.9.18 녹음&채록

1. 앞은 까라 ,
 지장 까라 ,
 잠자리가 잡혀라,
 잠자리 잡자

2. 이거리 저거리 각 거리
 천사 만사 주머니 끈
 똥똥 말어라

〈웅진 47〉

웅진군 덕적면
서포2리

새야

창 : 문인예(1909년생.여.토민)
素87-9-14②B끝

새야 새야
아랫녘 새야
웃녘 새야 -

전주 녹두새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손톱 발톱
*- - - - -

(*테이프 끝나 찢렸음)

〈웅진 48〉

웅진군 덕적면
서포2리

새 쫓는 소리

문인예 (1909년생, 여, 토민) 창
索 87-11-13-1 A

♩ = 150

새 아 새 아 전 주 고 비 두

늑 두 새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손 뜰 발 <뜰> <찢> 어 지 게 지 어 놓 은 농 사
<뜰>

다 먹지 말고
전라 경상도루 다 가 거 라

우야 우이 이

〈웅진 49〉

웅진군 북도면
시도

이거리

백탐실 (1914년생, 여, 토민) 창
素 88-8-1 A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사 만사 주머니끈
홀홀 말아 장두깨이
제비 딱딱 먹음지
아이 줌사, 허리 띠

〈웅진 50〉

연백군 청웅면 웅매도
웅진군 연평도, 북도면 시도

한울대

최원식 (1939웅매도출생, 남,
16세에 연평도로 피난후,
시도 이주) 창
素 88-8-1 A

* 실음은 반음정 더 높음.

♩ . = 150

한 울 대 두 알 대 영 남 고 울 이

팔 대 장 군 노 름 이 사 슬 이

범 이 악 대 꼬 드 래 뻑

〈웅진 51〉

웅진군 영흥면
내 4리

한알대

장: 1. 임평택 (1944년 생, 남, 토민)
2. 태동철 (1939년 생, 남, 영흥출신)

素 190528.n.5 / n.10

1.

♩ = 120

한 알 대 두 알 대 석 냥 거 지
팔 대 장 군 고 드 레 뽕

2.

♩ = 100

한 알 대 두 알 대 석 <엿> 냥 거 지
팔 대 장 군 고 드 레 뽕

웅진군 자월면
자월 2리 동촌

한알대

1. 김요지 (1942년생,여,토민) 제보
2. 최종열 (1931년생,여,덕적도
출생,19세에 동촌시집움) 창

음원 : 素 (2019.4.11.한알대)

1. 한알대 두알대 --- 퐁 퐁 땅 !

2. ♩ = 80

한 알 대 두 알 대 삼 사 너 구 리

진 단 지 꽃 단 지 바 람 에 쥐 새 끼 방 구 뽕

〈웅진 53〉

웅진군 덕적면
북리

자장가

최윤열 (1913년생, 여, 토민) 창
素 87-11-13-1 B

♩ = 67

자 장 자 장 잘 두 잔 다

우 린 애 기 잘 도 잔 다

눈 도 감 실 잘 도 자 네

코 도 발 도 잘 도 잔 다

자 장 자 장 어 서 자 자

입 도 품 곳 잘 도 잔 다

자 장 자 장 우 리 애 기

잘 도 잔 다

〈웅진 54〉

웅진군 덕적면
소야 2리

자장가

서윤예 (1915년생, 여, 토민) 창
素 87-11-13-2 A

♩ = 50 ~ 60

아 강 아 강 을 지 르 을 마 라 -

금 산 너 - 매 에 해 <떨> 어 지 며 는

원 머 니 는 찾 어 간 다

〈웅진 55〉

웅진군 덕적면
서포2리

자 장 가

문인에 ((1909년생 .여.토민) 참
紫 87-9-14-2 B

♩. = 67



자 장 자 장 잘 도 잔 다

우리 애기는 잘두 잔다,
머리 끝에 잠 내려라

금을 주구 너를 사랴,
목을 주구 너를 사랴,

우리 손주들 금을 주도 못사구
목을 주두 못사는, 손주가, 심형제가
내 앞에 생겨서, 공부를,

대학가구 고등과 가구 중학가구
그리는 손주가 있거든,

참 좋은 세상인데, 우리는
오늘날에두, 가먼
그런 꼴을 못보았구나 무심허다

〈웅진 56〉

웅진원본
장흥도

자장가

김재현 (1915년생, 남, 토민) 장
素 88-7-12-2 B

♩ = 67 ~ 80

자 장 자 장 자 장 자 장

우 리 애 기 - 잘 두 잔 다

은 물 주 며 는 너 를 사 고

금 을 주 며 는 너 를 사 나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웅진 57〉

웅진군 자월면
웅유면 읍왕리

자장가

강준여 (1896자월면출생,여,
20세에 웅유면 시집감)창
素 87-8-11-2A



너의 어머니 가실 적에,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

두 날개를 툭 탁 치고,
울머는 오마더라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애기는 질도 잔다

웅진군 자월면

1. 달강 류

강준여 (1896자월면출생.여.

용유면 을왕리

2. 불아

20세에 용유면 시집감)창

素 87-8-11-2A

1. * 삼삼기 첫행 선율류 임.

(자장 자장 우리 애기는 잘도 자고.)

너 아버지 장에 가서 밤 한되를 사다
밑살빠진 독안에다 넣었더니

머리 감은 생쥐가 들락 날락 다 까먹고
(알)밤 한톨 남은거를, 가마 솔에 삶아서

조리로 건질까 삼태기로 건질까, 조리로 건져서,
껍데기는 너이 아버지 본지는, 너의 어머니,
정 살란, 너고 나고 먹고 어서 자자

2. 불아 불아 불아 딱딱 아강 아강 어서 자라,
부모님 등에 효자동아 일가 간에 우애 동아
이웃 간에 의리 동아, 둥 둥둥 둥둥아

나라에는 충신 동아 하나님쎈 충신동아
부모님께는 효자동아 금자 땡이 되려느냐,
동기 간에 화목땡이 되려느냐, 둥 둥둥 둥둥아

영흥면 선재리

1.창부타령 고품

임옥희 (1922선재리출생.

대부도 북2리

2.자장가

북2리로시집음) 창

素87-8-25①B

1. ○ 명사십리 꽃이나 진다구 서러마라.

너는 저때 다시 피련만.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올줄을 왜 모르나

○ (그)저끼 청춘일러니

오늘날은 백발일세.

우리 백발은 왔다나 지면

매끼나 백발은 쓸데나 있지

○ (청)천 하늘이,

잔별두 많구요

요 내나 가슴엔 ,

수심두 많더라

2. - 말로만 읊었음 -

자장 자장 잘두 잔다

우리 애기는 잘두 잔다

금을 주며는 너를 사네

옥을 주며는 너를 사네

웅진군 덕적면
서포2리

달아

창 : 문인에(1909년생.여.토민)
素87-9-14②B

• 선율은 문인에 창 나무꾼소리 류

달아 달아 밝아진 달아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백했으니,

옥도꾸루 짝어내여 ,
금 도꾸로다 다듬어서 ,

초가 삼간에 집을 짓구,
양친 부모, 모셔 놓고
천년 만년을 살구나 지고

〈웅진 61〉

웅진군 덕적면
서포리

꼬닥 꼬닥

오정금 (1910년생, 여, 토민) 창
素 87-11-13-1 A

♩. = 46

1. 꼬 닥 꼬 다 다 진 달 리 꼬 닥 -

성정 이 - 삭 백 이 왜 생 겼 나

꽃 이 라 면 다 <굽>지 마 는
진 달 래 꽃 시 절 굽 구 나
<제 일>

2. 왜 생 겼 나 왜 생 겼 나
성정 이 삭 백 이 왜 생 겼 나
아이 구 나 칭 칭 못 살 겼 구 나
나는 이 힘 들 어 못 살 겼 네

웅진군 자월면
송봉리

노랫가락 곡풍

강금숙 (1943년생,여,토민) 창
녹음&채보 : 이소라 (2019.9.18)

1.

$\text{♩} = 150$

이 때 허 구 두 어 느 때 더 나 하

육 이 오 사 변 이 밀 어 났 을 때

육 군 전 선 에 헤 부 상 을 당 해

육 군 병 원 에 다 가 입 원 하 고

고 향 에 게 시 힌 어 머 님 한 테

일 자 나 서 허 신 을 전 했 더 니

어 머 님 은 결 에 앉 어 서 —

애 결 복 결 하 시 는 데
<결>

저 기 저 집 년 에 거 동을 보 아 라
<의>

명 징 기 리 구 들 여 다 보 며

제 팔 자 - 한 식 만 - 하 는 구 나

딱 히 모 았 더 현 흥 을 거 들 고

두 눈 딱 감 구 던 졌 더 니

붙 어 지 면 서 현 다 는 말 바 -



2.

수 천 당 세 모 진 남 기,
당 사 실 로 나, 그 네 를 메 고,

임 이 뒀 면 내 가 밀 고,
내 가 뒀 면 임 이 나 밀 어,

임 아 아 줄 살 살 밀 어 라,
줄 끊 어 지 면 정 멀 어 진 다

〈웅진 63〉

웅진군 복도면
산도 2리

노랫가락
* 계단식 중지

김봉운 (1917년생, 남, 토민)
라만석 (1932년생, 남, 토민)
이소리 채보 (素 88-8-1 B)

$\text{♩} = 40 \sim 50$

(김)

나 비 야 청 산 가 자 으 아 아

호 랑 나 비 야 너 두 가 자

가 다 가 날 저 무 을 머 느 은

꽃 속 — 매 서 — 자 고 — 가 지

꽃 세 서 무 대 접 — 하 거 든

앞 에 서 라 도 우 자 구 가 지 —

(라)

사 랑 도 거 짓 말 이 요 —

18
 8
 날 위 함 - 두 또 거 헛 짓 - 마 알
 12
 8
 꿈 속 에 와 준 다 더 니
 18
 8
 그 거 역 - 시 도 못 믿 겠 구 나
 12
 8
 3
 날 - 같 이 잠 못 이 루 면
 꿈 에 - 멘 들 - 볼 수 있 나 - - -
 (김)
 12
 8
 충 신 은 만 조 중 이 요 - -
 효 자 열 녀 는 가 가 재 라
 화 형 제 낙 처 - 자 허 으 니

부 모 - 유 신 - 하 오 - 리 다

우 리 도 성 주 님 모 시 고

태 평 성 대 르 을 누 리 리 라 -

(리) ○ 공자님 심으신 남기
 안현 중자가, 율을 주어,
 자사루, 벌은 가지에, 맹자 꽃이 피었구나,
 아마도 그 꽃 이름은, 천주 만대에 무궁화라

(계단식 종지)

〈웅진 64〉

웅진군 자월면
웅유면 물왕리

담바구

강준여 (1896자월면출생.여.
20세에 웅유면 시집감)창
紫 87-8-11-2AB

♩. = 43

구 야 구 야 담 바 구 - 야

동 래 나 <물 산> 선 에 담 바 - 구 야

너 흐 이 국 은 어 땔 길 - 래

대 한 의 국 으 로 유 람 왔 나

우리 국도 좋지만
대한의 국이 좋다길래
대한의 국으로 구경 왔네

무얼 가지고 유람 왔나
담바구 씨를 가지고 왔네

저건너라 저 남산 밑에
이로 저로 발을 걸어
담바구 씨를 스리슬 뿌려

밤 이 되 면 찬 이 실 땀 - 고

늦 이 되 면 옥 수 를 주 여

(α) 속 의 - 속 뉘 잘 길 러 놓 - 고

(β) 처 녀 총 각 에 앉 어 - 놓 다

- (α) 걸에나 걸뉘를 뚝뚝 젖혀
- (α) 은장도라 드는 칼로
- (β) 어식 비식 썰어 놓고
- (α) 처녀쌈지 한쌈지 담고
- (β) 총각의 쌈지로 한쌈지 담어
- (α) 청동화로 백탄 솥을
- (β) 이글 이글이 일워 놓고
- (α) 그 담배 한대 피고 나니
- (β) 묵구멍 녀에 실만개 돈다
- (α) 또 한대 피고 나니
- (α) 청룡도 놓고 황룡도 논다
- (β) 또 한대를 피고 나니
- (α) 손톱 발톱 옷감이 된다
- (α) 저기 가는 저 할머니
- (β) 반달 같은 딸 있거든
- (β) 원달 같은 사위나 삼개
- (α) 반달 같은 딸 있어도
- (β) 나이가 미성년에 못허 겠네
- (α) 어머니 그 말심 마쇼
- (α) 삼오 십오 열 다섯이면
- (β) 제 남편 위할줄 다 안답니다

〈웅진 65〉

웅진군 북도면
장흥도

담방구

김창식 (1919년생. 남) 정
纂 88-7-12-2 A

♩. = 52 ~ 55

구 야 구 야 담 방 — 구 — 야

동 래 나 < 월 선 이 > 담 방 — 구 이

은 을 주 러 나 왔 — 느 — 나

금 미 나 주 러 고 나 왔 — 느 나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은두 타령도 모두다 없어

구야 구야, 담방 구야
동래나 월선이 담방 구이

웅진군 북도면
신도2리

1. 난봉가
2. 방아타령
3. 담방구

1. 라만석 (1932년생.남.토민)
素 88-8-2 A

2,3 김봉운 (1917년생.남.토민)
素 88-8-1 B

1.

- 능라도, 수암벼들 목에다가 걸구,
놀다가 갑시다. 자다가나 가자,
하루 밤만, 지구가두 만리장성을 썬다네,

에헤, 어허야 어야 어야로다,
어름에 냉수를 먹어두, 속만 답답, 허다

- 장다리 발에 흰 나비는, 어깨만 툭툭 짚구,
저리 발에 흰 나비는, 고개만 슬슬 감는다.
에헤, 어허야 어야 어야로다

2.

노자 지영구나, 오조 동방 너른 물에,
오고 가는, 상고선은, 춘풍에, 돛을 달구
북을 두리 동실 올리면서, 어기여차 닻 감는 소리,
〈원포〉, 〈귀범이〉, 에헤라 이 아니란 말가,

에 —, 헤 —, 에헤이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3.

구야 구야, 담바구야
신주 문명 담바구야,
은을 주라 금을 주라
(— — — —)
은도 금도 나는 다 싫여,
천수만하, 소리 밤에
임이나 종종 만나게 하소

웅진군 덕적면
서포리

군밤타령

창 : 1. 문분김 (1910년생, 여, 토민)

2. 오정금 (1910년생, 여, 토민)

索 87-11-13-1 A

1.

* 선율은 2와 비슷함.

"군밤이여 — 오나
살은 밤이로구나 오나"

2.

$\text{♩} = 150$

군 밤 이 요 오 나 아 하 살 은 밤 이 다 오 나
<밤> <밤>

그 는 흥 이 나 아 하 나 는 하 이 - 까 라 다

열 싸 을 네 열 씨 구 을 다

웅진군 포포면
북리

두리둥기둥 내사령

최운열 (1913년생, 여, 토민) 장
索 87-11-13-1 B

* 저녀시절에 불렀던 노래

에 — 에헬 어헬 어루 좋구 좋다
어러럼마 두리 둥기둥 내 사령아

♩. = 60 ~ 75

가든 넓 허 리 를 — 나 리 다 담 석 아 — 나 안 고

가 지 — 를 말 라 고 사 구 라 꽃 만 만 다

에 헤 헤 에 헤 영 어 루 화 좋 — 구 좋 다

어 러 럽 마 두 리 둥 기 둥 내 사 령 아

웅진군 덕적면
서포리

범벅타령
* 장부타령 곡풍

오정금 (1910년생.여.토민) 창
素 87-11-13-1 A

♩ = 150

애 애 애

머 니 야 파 둥 두 흥 범 벅 이 야

둥 구 울 둥 구 리 — 범 벅 — 이 야

누 구 잡 수 시 일 범 벅 혁 인 가 —

이 도 러 형 잡 수 실 범 벅 이 지

김도령은 본 낭군이요
이 도령은 훗 낭군이요

이도령 김도령 싹시를 보고
옛만 보고서 내려오신다

정월이는 달떡 범벅
여기야 동동둥 범벅 이야

이워칠 이느니히 〈시레기〉떡 범벅
삼월 이느니 축 범벅
여기야 동동둥 범벅 이야

사월이느흔 느티 범벅
오월이느니 <수루>지 범벅
유월이느 밀 범벅

칠월이느 밀<호박> 범벅
팔월이느 꿀 범벅이요
구월이느 찹쌀 범벅

시월이느 무시리 범벅
동짓달이느 동지 범벅
섣달이느 흔 띄 범벅
<현>

여기야 등등등 범벅이야
열 두가지 범벅을 캐울 때에
누구 잡수실 범벅인가

이도령 잡수실 범벅이지
이도령이 싹시를 보고
몇만 보고서 돌아 선다

얹어 놓구 배틀 껴리요
자쳐 놓구 목을 따라
여보시오 벗님네야

의만 좋으면 살아니요
예라 요년 그 말심 마라
<쌈>

몇만 보고서 내려오시네

〈웅진 70〉

해주부근 동강면 덕현리
웅진군 부도면 장봉도

변강수타령

임성복 (1923덕현리출생.남.
장봉도로 피난나옴) 창
녹음&재보: 이소라 (88-8-1 A)

♩ = 63

감 수 심 사 를 모 함 하 기

자 라 는 호 박 에 말 뚝 박 기 히 —

자 치 는 밥 에 들 퍼 엿 기

우 물 길 에 해 해 뚱 싸 하 기 와

청 상 과 부 르 출 모 함 하 기

활 쏘 — 보 며 현 죽 발 치 기 —

웅 기 장 사 는 자 뻘 치 기

지 붕 에 올 라 간 놀 사 다 리 치 우 기



*말하는 투로 : "심술은 그리 고약하나 저의 색씨는 천하 일색이었다 "
 "두 양주 노는 길이었습시다 -"





* 말하는 투로 : "변강수란 늪이 신세타령하다가 이제 나무하러가는 거야"



우저혈우저혈넘어허간다

이산을넘고 - 저산넘어 -

감돌아하들고 - 좀돌아들어

등실두옹돌아들어허 -

언간산천을바라보니

오십초목이이히무서형하다

마주섰다상나 - 무

입맞추며 - 를 - 나무

♩ = 70

밤 구 후 겠 다 하 뽕 나 무 오 - 일 퍼 현 단 심 녹 아 지 머
 부 처 님 전 에 는 고 항 - 옥 - 향 은 불 러 - 향 나 무 -
 양 반 은 자 라 하 괴 목 나 무 - 십 리 절 반 에 오 리 히 나 무
 한 다 리 절 - 뚝 저 현 나 무 술 을 비 으 니 히 경 사 로 다
 뽕 산 은 철 처 - 근 산 은 분 분 미 야 문 즈 에 - 가 산 가 니
 이 굴 물 흘 줄 저 굴 물 칼 팔 열 에 열 굴 물 합 수 하 여
 저 건 너 마 미 - 두 시 니 초 르 나 니 들 걸 이 요
 뛰 어 허 나 니 - 고 기 로 다 백 수 후 춘 풍 강 산 (≡) 이 - 요
 마 요 낙 낙 - 경 상 개 (라)

— 산에서 내려와 신세자탄함 —

아이 구 답 답 내 팔 — 자 아

아 미 구 답 답 — 내 신 세 마

어 드 런 나 무 는 팔 자 좋 아 하

이 참 들 멧 장 삼 증 우 에

세 장 구 되 여 허 늘 아 있 고

어 드 런 나 무 는 팔 자 으 좋 — 아

태 산 강 문 — 판 그 되 여

사 시 절 미 절 막 이 며

만 단 제 수 — 을 진 설 하 — 고 —

분 향 재 배 — 후 덕 허 니

이 내 (ㅎ) 팔 자 원 팔 자 로

산 중 호 품 을 벗 어 — 나 서

나 무 중 에 — 된 늬 시 니

못 자 합 늬 이 날 비 여 다 하

밀 등 을 잘 라 하 게 밭 궁 파 고

안 옛 등 잘 라 쇠 구 등 파 고

가운대 동으로 장승을 만 들어

해님의 할아버지 처러

몽한 후어 - 연구사 트다

상각수 팔정지에

팔자 없는 - 사모 <관> 대를

완연하게 해 - 새겨 놓 고 호

노중행인 - 거리면 - 애 -

홀로 - 우 독 - 서 있 으 니

입 이 있 어 야 말 을 하 라
 발 이 있 어 야 달 아 나 며
 죽 도 — 살 도 — 모 르 면 — 서 —
 이 름 을 변 감 수 말 줄 움 끝 — 에
 아 공 피 신 이 왜 말 인 고
 아 이 구 답 답 (ㅎ) 내 팔 자 야 —
 아 이 구 달 — — — — — rit. — — — — —

웅진군 북도면
신도 2리

1. 청춘가
2. 장부타령

창 : 김봉윤 (1917년생.남.토민)
라만석 (1932년생.남.토민)
素 88-8-1 B

1.

- (김) 청춘 흥안아, 네 자랑 마라,
 덧없는 세월에, 예루 백발이 되누나
- (라) 쓸쓸이 동풍에, 굶은 비 철철 오고
 시 화 연풍에, 어허 임상봉 가잔다
- (김) 무정 방초는, 년년이 오건마는,
 한번 간 내 청춘,은 어느때 다시 <오>나
- (라) 쓸쓸이 동풍에, 굶은 비 철철 오구
 시 화 연풍에, 애 임상봉 가잔다
- (김) 역발산 기가새, 항우의 장사라도
 이별에 있어서, 어 장사가 있느냐
- (라) 어떤 사람은, 임 좋다고 하더니
 살구 보니, 어허 원수로구나 아 아

2.

- (김) 아니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달년 삼백, 육십일은, 춘하 추동 사시절인데,
 꽃, 지구 잎이 피면, 화주 월색 춘절이요,

 사월 남풍, 태백허는, 녹음방초 하절이라,
 근풍이 소슬허여, 새벽 총성, 슬피 울면,
 국추 단풍 추절이요,

 백설이, 분분허며 서,산에 줄이 절이요,
 만경에야, 유정열하면, 생성 녹주가 동절이라,
 인간 칠십에 고래희요, 무정 세월은 양류화라,

 사시 춘풍 조흔 시절, 아니나 노진 못하리라,
 얼씨고나 —, 지화자 좋네, 태평성대가 여기로다
- (라) 얼씨구나 좋아요, 나는 좋아, 아니 놀구서 어이하나,
 진국 명산, 만장봉은, 청춘 사질 은부경은,
 서색은 만부, 은삼절이요, 숙희는 증여, 출인절인데,
 만만 세지 금탄이라,

 태평,성은 춘치를, 전조사를 꿈꾸는 듯,
 유 — 유한, 한강물은, 막, 억지두 흘러를 가구,
 희망으로, 먹는 힘, 남의 감회를 돌우는 듯,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웅진 72〉

웅진군 덕적면
소악 2리

파미

서운애 (1915년생, 여, 토민) 창
素 87-11-13-2 A

♩ = 60 ~ 67

꽃 이 피 고 새 가 우 — — 는 —

이 내 봄 — 은 동 — 왔 다 가

가 지 를 — 마 라

꽃 걸 은 우 리 청 춘 이

세 월 — 없 이 먼 다 늙 이 젊 — 네

웅진군 덕적면
서포리, 소야리

1. 봄배추
2. 나물 먹고

서재옥 (1920서포출생,여
소야리로 시집옴) 창
素 87-11-13-2 A

— 장부타령 곡풍 —

1.

시들 시들 봄배추는
찬 이실 오기만 기다리고

♩. = 50 ~ 60



옥 매 갠 현 준 함 아 함 이 는 -
이도령 오 시기 만 기 다 린 다

2.

♩. = 60



나 물을 먹고 서 - 물 을 마 시 고 -
밭 을 비 구 서 누 율 으 니
대 장 부 의 살 림 살 이 가
요 만 허 며 는 녀 녀 허 지
덜싸구 좋다 기화자자 좋네
아니 놀진 못 허리리

웅진군 덕적면

서포2리

1.신세타령

2.봄이 왔네

창 : 문인예(1909년생.여.토민)

素87-11-13㉠A

- 창부타령 곡풍 -

1. 이팔이 십육 - 열 여섯살이
당신과 나와 만나 놓고

당신과 나와 만날 적에
청실 홍실 늘어 놓고

지래기나 한 백년 사자하고
백년이 처가 한을 맺어 놓고

백년 처간 간 곳 없고
요별이 화초 만발이라

열씨구 좋아 정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허리라

2.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반짝 웃는 이 봄이 왔네
봄 나비는 꽃을두 찾아
이리 저리 넘나들고
이 나 인생 백발은 두
어디로 가자고 다 늙었나

웅진군 영흥면

1. 높은 산에

2. 소나무는

창 : 김기동(1916년생.여.토민)

素87-9-14②A

1. - 창부타령 곡풍 -

높은 산에 눈 날리고
얇은 산에 재 날리고
역수나 장마 비 퍼붓듯
대천 바다 물 밀 듯이
얼씨구나 종구나 저리씨구
아니나 놀지는 못하겠네

2. 높은 산에 소나무는
외롭다 하여도
나보다 낫구나

웅진군 덕적면

북2리

1.청춘가 곡풍

2.창부타령

창 : 이정열 (1922년생.여.

정유성 부인)

素87-11-13①B

1. o (청)천 하늘에는, 잔별두 많구요
 요내나 가슴에 좋다, 수심도 많구나
- o 못살 겠구나, 나 못살 겠구나
 사자구 왜 놀음, 못 사리로구나
- o () 친정 ()
 술 담배 끊구서, 나 못살 겠구나
- o 시 아버님 술갑은, 훗 댕냥 이요
 머누리 술 갑 은, 열 댕냥 이로다
 <값>
2. o 푸룻 팔십 은 배추는, 찬 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 o 높은 산이 눈 날리고, 얇은 산이나 재 날리듯
 억수나 장마 비 퍼붓듯, 대천 바다에 물 밀 듯이
 우리나 집이 오신 이 손님, 무얼루나도 대접헐까
 변변치 않는 이 장부나 타령으루, 대접을두 하여주리
- o (해다 저무신) 날에, 옷갓을 하구서 어디가오
 첩이나 집이 가시랴거든, 나 죽는 꼴을 보고 가오
 나의 집은 연못이요, 첩이나 집은 꽃밭시라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이고, 연못과 금봉아는 사시절이
 얼씨구나 저리씨구,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웅진군 자월면
송봉리

1. 장부타령
2. 뱃놀이
3. 어랑타령

강금숙 (1943년생,여,토민)창
녹음&채록 : 2019. 9. 18

1.

- 못살어 만살어 — 나는이 못살어,
능지를 하여도 못살겠구나야
- 간밤에 — 꿈자리가 좋고,
오늘 아침에 오동남기에
까치나 한 쌍이 지절기여,
헬머니 하구서, 임이 올래나,
헬머니 하구서 소식올까,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고새 잠깐이 잠이 들어,
꿈아 나하구, 무슨 원수가 잤느냐,
널 찾아 왔던 나를 왜 보냈느냐,
오신님, 꼭 잡아 놓고
잠든 나를 깨워 주지

2.

- 어야로 야 노야,
어야로 앓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남물이 — 젖었네 남물이 젖었어
뒗동산에 도라지 꽃이 남물이 젖었네

어허야 디야차,
어허야 더야, 어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3.

- 오는 새 가는 새는 저 담불 속에서 놀구요
십오야 밝은 달은 (농) 안에서 놀고요
남<원>에 춘향이는, 미도령 품에서 는대요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렴마 디여라 내 사랑아
- 삼수갑산 머루다래는 열그럭 설그럭 잤는데
나는 언제 임을 만나 열그럭 설그럭 저보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렴마 디여라 니가 내 사랑아

웅진군 덕적면

서포리

1.도라지

2.창부타령 곡풍

3.담방구 4.청춘가

창 : 오정금(1910년생.여.토민)

素87-11-13①A

1. o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신 산천이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가 술이 살살이 다 녹네
- o 술집 아주머니 도라지는
 참나무 지게로 캐여도
 총각이 낭군 도라지는
 채저구락 짝으루만 캐여도
 대바구니가 술이 살살이 다 녹네
 어야로 난다하 지야 난다
 니가 내 간장 술이 살살이 다 녹여
- o 도라지 캐러 간다고
 온디방 디키고 나가더니
 남의 집 귀동자나 가리고
 별동냥 잔치만 허누나
 어야루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 간장 술이 살살 다 녹여

2. 녹수 청강이 흐르는 물이
 베차 씻는 저 처녀야
 겉이 겹대는 다 <떼>어 버리고
 속이 속대를 나를 다고

당신이 언제 나를 봤다고
속에 속대를 나를 달래오
속에 속대두 다 버리 싫구
동지나 설달이 긴긴밤 잤네

3. 구야 ~ 구야, 담방구야
 동래나 월산이 (담방구야)

4. 청천 하늘이는
 잔별두 많구요
 요내 나 가삼이, 예
 수심두 많구나하

우리 어머니는
날 곱게 길러서
날 서른 이 세(상)
왜 요리나 허 하나요

웅진군 덕적면

서포2리

1.도라지

2.창부타령 곡풍

3.아리랑

4.날 곱게길러

창 : 문분김(1910년생.여.토민)

素87-11-13①A

1. - 선율엔 일반 도라지 곡풍이 섞여있음 -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혈 금산이 백 도라지
하도 날 디가 없어서
양 바위 틈 위가 니가 났네

2. - 연자방아 찼을 때는 소 몰면서 "이라 ! "하는 정도였다 -

방아 방아 연자 방아
보리를 찼러 나는 가네
소를 매여 돌리 면서,
이라 이라 어서 바빠 어서 가자,
빨리 찼여다 디려서 널고
딴 일을 보양 허쥔겄나

3 - 일반 아리랑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 간다
아르랑 고개루 넘어만 가면
또 다시 올줄을 내 몰랐네

4. - 선율은 오정금 창 논김 곡풍 -

우리 어머니는 날 곱게 <길>러서
넘의 집 보내 놓고 요 고상을 시키나
내 딸 낳서 남 주지 말고
남의 딸 들여다 고상시키지 말지

〈웅진 80〉

웅진군 자월면 이적
대부도 북2리

1. 남물이 들었네
2. 석탄 백탄

김화분 (1928이적 출생.여,
1967년경 북2리 이주) 창
奏 87-8-25-1 B

1.

$\text{♩} = 150$

남 물 이 들 었 네

남 물 이 들 었 네

이 산 저 산 도 라 지 꽃 시

남 물 이 들 었 네

2.

석탄 백탄 타는 데,
연기도 김도 안 나고,
요내 가삼 타는 데는,
한 품에 든 남도 모르는 구나

〈웅진 81〉

웅진군 덕적면
북리

박연폭포

창 : 김태심(1913년생.여.토민)
素87-11-13㉠B

박연 폭포 흐르고 나리는 물이
서사 안석 타구서 뱃놀이만 가잔다
에 - 해행 에행 에루화 좋구 좋다
어러 럼마 등기, 둥게둥 네 사 럼아

웅진군 덕적면

서포2리

1.박연폭포

2.양산도

창 : 인권옥(1922년생,남.토민)

素87-11-13㉠B

1. o 박연 폭포소 흘러가는 물은
 범사, 장으로 연신 돌아 든다
 에헤, 에헤야 에루와 종구 좋다
 어림마 지여라 내 사랑아
- o 실쭉 - 밀줄은 잡어 당길줄, 아니려면
 사람 만나 구할 줄 내내 모르나나
 에헤, 에 흥 어야, 에루화 종구 좋다
 어림마 디여라, 내 사랑아
2. - 일반형 -

 노잔다 노잔다 저리 젊어 늘어
 늘어나 지며는 못 노리로다

〈웅진 83〉

웅진군 자월면
용유면 을왕리

연당 앞에

강준여 (1896자월면출생.여.
20세에 용유면 시집감)창

素 87-8-11-②B

저건네 연당 앞에,
백년 인약초를 심었더니

백년 인약의 초는 간곳 없고,
금년 화초만 피여
만, 발이 되었구나

웅진군 자월면
송봉리

진국명산

김월랑 (1935년생, 여, 토민)창
녹음&재록 : 2019. 9. 18

* 책보고 배웠다고 함 .

진국명산, 만장봉에,
청천삭출 금부용이요

서색은 반공, 〈웅〉상궐이요
숙기는 종영 출인걸이라

만만세 지근〈금〉탕이라
태평연월 좋은 시절,
존조사를 꿈꾸는 듯,

유유한, 한강 물은
말없이 흘러 가고,

임랑으로 얼굴을 내면
당지 감루를 높이는 듯

해주부단 동강면 덕현리
웅진군 북도면 장봉도

몽금포타령

임성복 (1923덕현리출생.남.
장봉도로 피난나옴) 창
素 88-7-12-2 B

○ 장산꽃 마하루에 --
북소리 나다니 --
금일도 상봉에
임 만나 보겠네
영 해루와 좋다
임 만나 보겠네

♩ = 50

바 람 새 줄 다 고 — — — — —

걸 탕 질 마 칼 구 서 히 — — — — 히

몽 금 이 — 개 암 — 포 으 호호 — —

들 렸 다 가 하 — 게 나 하 으

영 해 루 와 좋 다 — 어 히 — — — —

들 렸 다 가 하 — 러 마 — —

○ 몽금이 개암포,
살기만 좋았지
똥돈 놀아서
난 못살 겠구나
영 해루와 좋다
영 해루와 좋구나

해주부근 동강면 덕현리
웅진군 북도면 장봉리

건드령 타령

- 미완성, 참고용 -

임성복 (1923 덕현리출생. 남.
1950년 장봉리로 피난나옴) 창
녹음 & 채보; 素 88-7-12-2 B

- * 건드령 타령을 황해도에선 <느리게타령>이라 했다함.
처음엔 건드령타령으로 나가다가 뒤에 느리게타령으로
나갔다함.
- * 끝의 "에루화중구나"에서 흥타령으로 돌아가버렸다고
중단함.

♩ = 50 ~ 55

건 드 령 건 드 리

건 드 령 거 리 - 구 후

늘 아 - 보 잔 - 다

얼 씨 구 졸 다 - 하 하 - 아 아하 아하

절 씨 구 - - 졸 구 후 나

건 드 령 거 리 구

놀아 - 보 잔 - 다 - -
 놀 시 령 놀 시 령 하 러 - - - -
 큰 머 리 머 리 에 - -
 머 릿 봉 안 예 - 서 - - - -
 실 안 개 도 누 나 - -
 건 드 렘 건 드 - 리 - - - -
 건 드 렘 거 리 - 구 -
 에 루 화 - 줄 구 나 흐 -

(*흥타령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중단함.
 앞절의 "놀아보잔다" 참고.)

해주부근 동강면 덕현리
웅진군 북도면 장봉리

자진 난봉가

임성복 (1923 덕현리출생. 남.
1950년 장봉리로 피난나옴) 장
녹음 & 채보; 索 88-

* 중각시절에 많이 불렀다.

♩. = 60

세 월 아 하 봄 철 아 하

오 구 - 가 지 - 마 - - 라

껌 으 - 허 - - 온 머 리 - 가 - -

백 발 - 이 - 되 누 - - - 나 - -

에 헤 - - - 허 - - 어 - 영

허 허 - 어 영 어 - 야 - - - 로 - - - 다 - 오

어 야 허이 야 디 야 로 - - 웅

에 라 - - 놀 - 아 - 보 - - - 자 - - -

웅진군 북도면
장봉도

1. 긴 산염불
2. 짧은 산염불

창 : 임성복 (1923해주부군 동강면 출생.
.남.장봉도로 피난 나옴) 등
장고 : 박명복

素 88-7-12-2 B(88.8.1녹음)

1.

(임) 아 아아아아 해 — 해 해해해에에 허 허으음 아미,
타하하암 허허야, 염불이라 —

(tutti) 에 —

(임) ○ (산이) 높아, 건널 갈까.
산림이 알아서, 건널갈까

해 — 에 에, 아하암 허아미,
타하하아 허허야, 염불이라 —

♩ = 100

(임)

오 늘 해 도

어 느 (ㅎ) 때 — 니 지

산 봉 아 리 히 — — — 마 하 다

(장고 예)

그 (ㅎ) 늘 간 다 —

(tutti)

해 해

해 해 아 미

타 (ㅎ) 부 야

엄 불 이 라

- (임)
- 우리가 살며는 몇어 백년 사나
아무리 살아야 단 백년일 세
 - 검은 머리가 백발되기 전에
한 살이 라도 덜 먹었 을 적에
건달 건달 건달 거리고
놀아보 자
 - 공동 묘지야 말 물어 보자
임그리워 죽은 남군 몇 몇인 가
 - 산은 첩첩, 산중 이요,
물은 줄러당, 한강수 라

2.

♩. = 55 ~ 60

임 (메)

간 (ㅎ) 산 염 불 가 만 두 고 —

잡 은 — 산 염 불 녀 어 간 다 — —

(발)

나 — — 무 예 — — 어 — 미

타 (ㅎ) 부 아 — 염 불 이 라 — —

(메)

곰 도 — 라 니 — 백 발 (ㅎ) 이 요

면 지 — 못 꺾 줄 음 이 라

(발)

헤 헤 헤 에 헤 해 아 — 미

타 할 허 야 — 염 불 이 라

(매)
간 다 — 가 요 — 나 는 가 요

너 를 — 버 리 고 나 는 간 다

(반)
헤 헤 헤 메 헤 헤 어 — 미

타 할 허 야 — 염 불 이 라

(매)
내 가 하 가 머 는 아 주 가 리

(반)
아 주 가 신 들 잊 을 소 나

(매) ○ 네렐레야 네렐레야 , 진 광 대 왕

(반) 나 무 하 미 타 불 염 불 이 라

(매) ○ 이 번 굿 에 든 잘 별 으 면 , <굿>진 할 머 니 덕 택 일 세

(반) 헤 헤 헤 헤 헤 헤 아 미 / 타 할 허 야 염 불 이 라 // (쉬 —)

〈웅진 89〉

웅진군 북도면
선도2리

곱새치기

라만석 (1932년생.남.토민) 장
素 88-8-1 B

♩ = 80

북웅 밤중 닭이 울건 구잡구장 단꾼이라

뭐를 내야 산단 말이냐 칠월 칠석 으흔

내구 잡구 물구 잡이라 으 팔두강 산유람 객이로구나
<도>

매구 잡구 물구 잡이라 하으 -

구월부중이 단풍불었구나 -

아하 내구잡구장터거리는큰술집나구

원앙새 노면물이나

웅진원 북도면
장흥도

곱새치기

박명규 (1925년생.남.토민.
조상이 충청도에서 이주) 창
素 88-7-12-2A

♩ = 80

일 라 전 장에 대 포 소리가 여 차 무 알 내 야 산 단 말 이 나
<르>

산 신 산에 는 불 사 약 도 불 르 먹 구

열 손 뜨며 는 먹 자 니 다

○ 지글 늪새 죽는다 썰리라, 비켜나라 —
울 아버지 사당에 담 넘어간다 —
들손 뜨며는 못 잡는다

* (목이 잠겨 못하겠다고 중단함)

〈웅진 91〉

웅진군 덕적면
북2리

굽새치기

문송준 (1919년생, 남.토민) 창
素 87-11-13-2 A

※ 삼자에서 십자(장자)까지 올는다.

1. 삼니진 능사 장사를 내고
너울 병태를 냈다
물어라 오라던 한 누 졌다



팔지 양판 고생 살이
구년 지수 아우 시
십장단 무영 춤 놀았구나

2. 삼월 동풍 꽃인 비를 냈다
<삭은> 곡식이 몇만 석이나
올해 두 늦었구나

옥이 안성 실굽다리를 냈나 응
칠년 풍진에 초패왕

팔년 지수행 하우씨
구월산 춘추 득 들었네

〈옹진 92〉

제주부근 동강면 덕현리
웅진군 북도면 장봉도

곱새치기

임성복 (1923덕현리출생.남.
장봉도로 피난나옴) 청
素 88-7-12-2 B

$\text{♩} = 150$

오 신 성 인 진 께
 영 령 예

주 건 보 이 밌 세

웅진군 영종면
내4리

고사덕담

박상석 (1934년 서산군 인지면
출생, 남.6세에 내4리 입촌) 청
素 87-9-14-2 A

국태민안 범윤전 시화연풍은
년년이 돌아든다 / (K)

이씨 한양 등국시에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되고
한강수 수기 막어 / (K)

삼각산 제일봉에
봉학이 년짓 생겼구나
봉학을 놀라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 (K)

♩ = 120

육 조 앞 에 는 학 악 - 사 요

(학 악 사 에 서) 각 도 각 읍 마 련 - 할 제

(K例)

경기도 삼십육관
수원 같은 대모간을 거주 잡고
강화는 일품이요
광주는 이품인데
우리나라는 조한국 / (K)

감남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십삼도에
조공 받으려 다니시는
호구별상에 손님 마마
스물세 문 나오실제 / (K)

스물세분 똑 떨어져
 건명전 모씨 댁에
 아들아기 딸아기에
 명을 받들어,
 서천 서역국으로
 회정 하시고
 다만 세분 나오실적에
 어떤 분이 나오시나 / (K)

술 잘하는 문장이며
 활 잘 쓰는 한량에다
 말 잘하는 궤변객이 나오실 때 / (K)



어떤 배를 잡았 더나
 나무 배를 잡았 더니
 나무 라고나 썩어 지구서
 돌 배를 잡아 타니
 돌이라고도 가라 앉고
 뽕 토선을 잡아 타니,
 모진 광풍을 못 이기며
 아주나 설설 부러진다 / (K)

할 수 없고 할 수 없어
 수양산을 치치 달아,
 청개구리 피리 불던
 수양버들 새잎을 다
 찌러럭 훑어
 연보 선을 모았구나 / (K)

이물에는 청기 꽃고
 고물에는 황기 꽃고
 이물에는 서낭 님요
 고물에는 사공 님
 허릿대 밑에는 화장 아이
 머기여차도 닳 감아라
 얼른 똑딱 밥지어라
 멍지 바다에 진 설물을
 얼그럭 절그럭 건너설제, / (K)

— 이하, 김인환(1914년생. 남.내4리 토민) 정리 가사 참조 —

대한 초입은 의주니라 의주에다 말을 매고 인물 추심 잠깐 하고
 의주 역마 갈아타고 평양으로 달려 들어 인물 추심 잠깐 하고
 서울로다 다라를제 동구재 만리재 백호로다

무학재 마루를 얼른 넘어 서울 장안을 들어서니
 연지문에 말을 매고 무악 간에다 숙수하고 남대문 안을 들어서니
 마켓 대궐 옷대궐 경복궁 새 대궐 왕성 애기도 귀엽시고

고주 애기도 귀엽시고 이름 성만 적어놓고 인물 추심하고 갈 재
 기와집은 대한 가중 초가집은 소한 가중 움막집은 복덕 가중
 생중 복덕 집어놓고 가자서라 가자서라 너의 데로 가자서라

제물포로다 내려와 영흥으로 내려와서 이동네 저동네
 권명전 다 버리고 권명전 모씨 댁으로 이운이 지고 시운이 졌다
 삼십강 감진을 치고 이팔 수기를 꽃고 하루 이를 터를 보고

사흘 나흘 돈을 시루 닷새 엿새 부름 시루 이레 여드레 거울시루
 야흐레 열흘 두섬 시루 열사흘이나 되었는데 삼배 정성 내실적에
 대주하고 서방님 묵은 책력 디려두고 새 책력을 디려다놓고

백중력을 디려다놓고 생중 복덕 집어낼새 일생 생기는 이중천의
 삼마절제 시중유혼 오상사화 육중 복덕 질하 절명 팔중 귀혼
 천상 천지 좋고 존날 한두 한상이 좋을시고

검은 딱지 똑 떨어져 은쟁반에다 대를 받쳐 순금 쟁반에 받쳐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전에 비나이다 강남서 나오신 호구별상
 손님마마님 전에 비나이다

명을 주라 복을 주라 명만 주면 복없이 살고 복만 주면 명없이 산다
명과 복을 같이 줄제 원손에는 명을 주고 바른 손엔 복을 주어
동방삭이도 명을 주고 성웅에도 복을 주어 선 팔십 후 팔십
일백 여든을 살아갈제 그 아기가 어찌 — 자랐느냐,

외 불듯이 가지 불듯 오유월에 장마지듯 칠팔월에 목화 피듯
구시월에 국화 피듯 만수산에 구름 일듯 소상강에 물결 일듯
대전 바다 물밀듯이 덩굴 밑에 호박 자라듯 무릉도화로 자라나니

근들 아기가 좋을소냐 문신이 얻은 글을 배우고 한량이 얻은 활을 싸라
어떤 글을 배웠더냐 천자 유학 논어 맹자 시전 서전 구학 대학
백학서를 다 읽었으니 더 배울 바이 없네

나라에서는 어진 선비 구하시라 태평 과거 보실적에
도련님이 이 소식을 바람결에 넋짓 들고 노숙 풀리 분부한다
저 노숙네 거동봐라 마구 삼간 들어가서 말안장 달안장

년십사 호걸에 호피 도동이 재가 난다 주먹 상투 맵씨있게 다려놓고
저 도령네 거동 봐라 허흔같은 허튼 머리 반달같이 왕용 수호라
삼살이 내리밧겨 중반같이 넓게 밧고 자구양을 덩씩 물러

삼단같이 널뜨리고 백옥같이 고운 얼굴 분 세수를 정히 하고
청사 도포 걸쳐 입고 나귀 등에 사뿐 앉아 양산을 주르르 펴니
일광을 다 가리우니 풍채는 두모지라 사흘 나흘 올라 가서

권을 찾아 숙수하고 마구애다 말을 매고 남대문 안에 들어 서서
철제 판을 바라보니 글자 한귀 결렸으되 풍년 풍자 봄 춘자라
시지를 다 펼쳐놓고 용현애다 먹울 갈아 용두 차필 중등 풀어

일필 휘지 하여가지고 상시관에 바쳤더니 상시관이 보옵시고
그 글귀 낫다하고 만인중이 자자하고 비정이요 글귀마다 관재로다
호명 불러 들어가서 어주 삼배 마신 후에 머리에 는 어사화요

허리에는 아대로다 우수에는 옥로이요 좌수에는 백호로다
그만 백마 빗겨 타고 남대문 밖 썩 나가서니 거리 거리 칭찬이
철배 팔배 둘마루에 백사장 등적강을 일른 홀쩍 지나와서

본댁으로 돌아 온다 저 도령네 거동 보소 얻은 운을 박차면서
버선 발로 뛰어나와 한님 여쭙어하는 소리 안학금상 부인따마
홍패 백패 열싸안고 산으로 올라 제사하고 들로 나와 수분하고

조상에다 제사하고 일가에다 영화 되니 금동 아기가 좋을시고
건구 곤명 모씨 댁에 안학금상 부인따마 금슬지 동락으로
한 백년 누려 살제 상남 자손에 서방님 효자 중남 도련님

상남 자손에 여자아기 어깨 넘어 실동자 무릎아래 절동자
우루루 칭칭 자라날새 작년같은 험한 시절 꿈결같이 다 보내고
신년 새해 잡아들어 몸주 대살 시다하니 몸주대 살풀어 주라

살 풀어 걸인살 원근도정에 이별살 부모님 돌아가 몽상살
몽상 입어 거상살 거상 벗어 해상살 이웃집에 의살이요
동네 방네 불안살 싸움난데 액살이요 살인난데 절인 살

모진 광풍 화재살 도적난데 심문살 어린애 난데 삼신살
신나무 목숨살 죽은 나무 도토살 산으로 올라 산신살
돌에 내려 들용살 물로 가면 용왕살 여울목에 도선왕살

돌두두기도 선왕살 터에 터전 잡어드니 바깥 마당에 벼락살
앞마당에 희롱살 주녀 끝에 낙상살

성주님네 성주님네 초하루 보름 고사받던 터주하고 집노인
차린 것은 없으나마 소환네루 내리시고 대활네루만 내리소서
금상마마 열두 하님 거느리고 어디 아니 출입하리

광장만 들어가니 콩떡 팔떡 마대장군 쌀독에는 시부녀
가루떡에는 부녀 각시 부엌 삼칸 들어가니 팔만사천 조왕님
아궁지는 금덕 귀신 물독에는 용녀 부인 실랑 밑에는 땡그랑 각시

수채구멍에 흙림살 굴독에는 굴대 장군 지붕마루에 용춘살
건너 방에 지석살 안방 한칸 접어드니 이벽 저벽에 벽파살
햇대끝에 너마살 어떤 너마 걸렸드나 권명전 모씨 대주

도리낭탕 속저고리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기도만도 넥타이 걸려있고
아낙 금상 부인마마 나들이 치마는 열두쪽 집안 치마는 여섯쪽
세폭 네폭 행주치마 무지개 단속곳 걸려있고 육동자 귀한 애기

팔팔개 동동거리 타리개 버선에 속저고리 남색 무색 바론 적애
가위밥에도 물어들고 실밥에도 물어들은 잠귀잠신 휘 돌아다가
금일고사 못짐쳐 울릉도 깊은 물에 아주 멀리 소멸하니

만사는 대길이요 재수는 대통이요 없는 애기는 속독 생남
있는 애기는 생전 수록 백대 천손 만대 유전 자손 창성 부귀공명
계계 승승 누려주니 근들 아니 종을시키고 권명전 모씨 덕에

아낙 금상 부인마마 금슬지 동락으로 한백년 누려살재
작년같은 험한 시절 꿈결같이 다 보내고 신년 새해 잡아들어
달거리가 시대하니 달거리를 풀어주라 정칠월이면 이팔월

삼구월이면 사시월 오동지 육선달 하루하고도 열두시
주야하고도 이십사시 시시때때로 드는 병은 달거리만 풀어주자

정월 한달 드는 병은 2월 영등 막어내고
 2월 한달 드는 액은 3월이라 삼진날에 연자조로 막어내고
 3월 한달 드는 액은 사월이라 초파일날 관동불로 막어내고

4월 한달 드는 액은 5월이라 단오날에 송백수 푸른 가지
 높드랄게 그네 매고 백능버선에 두발길로 휘휘징징 감어내고
 5월 한달 드는 액은 6월이라 유두날에 뇌성벽력으로 막어내고

6월 한달 드는 액은 7월이라 칠석날에 오작교에 다리놓고
 까치대갈로 막어내고 7월이라 드는 액은 8월이라 대보름날
 우회 송편만 빚어 참기름을 슬쩍 발라 대접 술으로 막어내고

8월 한달 드는 액은 9월이라 9월날에 국회주로 막어내고
 9월이라 드는 액은 시월이라 상달인데 무 많은달 무시루떡을
 두루 빚어 훌훌한 막걸리 한잔에 방망이 맞은 북어 대가리

이광쇠 뒷덜미로다 휘물아 내쫓으니 만사는 대길이요
 제수는 대통이라 없는 애기 속독 생남 있는 애기는 생전 수복
 백대 천손 만대 유전 자손 창성 부귀공명 계계승승 누리놓고

일년 일자 날지라도 몸주 건강에 몸주 대살 발원하고도 축원이요
 권구권명 모씨대주 장사 한번 하여보자 ——
 남경 장사 하여 보자 북경 장사 하였거나 물아래 장사 하였거나

물위 장사 하였거나 일이십원 들인 밀천 일이백원이 남여주고
 일이백원 들인 밀천 일이천원이 남여주고 일이천원 들인 밀천
 일이만원이 남여주고 역수만큼 티를 내어 그돈 뒀다 무엇하랴

신농씨의 본을 받아 농사 한번 지어 보자 어떤 전답 장만했나
 물이 줄렁 수답이요 물이 밀려 간답이요 네귀 반듯 일등 답
 아래 차고 장찬 밭은 여기저기 장만하고 춘삼월이 년짓되니

갓은 씨앗 던져보자 여주이천 자차배 김포 통진 매따래기
 안성하고 유기찰 광주 문안에 사발배 마당쓰레기 검불벼
 해다졌다 정근배 환갑진갑 노인배 많이많이 등터지니

뭇먹었다 흠작벼 흠작 먹어서 돼지칠 필성배 다마금 조실역은
 여기저기 심어놓고갓은 보리 막 던져 보자 오다보면 울보리요
 가다보면 갈보리 울살보리면 살살보리 뭇게뭇게 중매보리

얇은뱅이에 육모보리는 여기저기 심어놓고 갓은 콩을 심어보자
 울종줄콩 주너니콩 아팔청춘에 푸르데콩 독수공방 흠애비콩
 만리타국에 강남콩 도암포수에 검정콩 수수발머리 적두팔을

여기저기 심어놓고 가는 세월 여류하여 구시월이 년짓되니
 갓은 주수 하여보자 동네 농군 불러다가 밥 한사발 막걸리 한잔
 뭇북이 먹여노니 반달같은 낫을 꿈무늬에 웅켜차고 너벅다리

휙휙 걷고 논머리로 달려 들어 저리 한곳 툇탁 비어 이 논두렁에
이리 툇탁 한곳 비어 저논두렁에 걸쳐놓고 앵두같은 여하님은
두아리를 받쳐들고 황소같은 장정들은 둥으로 저들인다

에라 이거 인력으로 못하겠다 우마길로 들어보자 어떤 우마 장만했나
공지없는 동갈소 나갈 적에 빈 바리 들어올적에 한바리 난데없는
봉합새 휙휙 날아와 상봉에다 터를 잡고 새끼 새마리 키울 적에

이 한 날개 툇탁치니 일이만석 쏟아지고 저 한달개 툇탁치니
또 만석이 쏟아진다 앞에 동실 앞노적은 대주하고 노적이요
두루 평 노적이니 근들 아니 좋을소나

* * *

<염불>

권구권명 모씨택에 집안 식솔 계신대로 어디 아니 출입하니
동서 사방에 출입을 가도 상봉 일경에 불공제라

<후렴>

권구권명 모씨택에 축원이 가요 발원이 가요 기선왕님을 모시고 와서
고사 축원 고사 덕담 지성 정성으로 여쭙 뒤에 낮이머는 물이 맑고
밤이머는 불이 밝고 물과 불과는 수화 상극이 같이 말거리에서
색경에 구룡물년 싯내뵈으로 일월광 그린듯이 만 - 과

<후렴>

권구권명 모씨택에 고사반 차려주신 공덕으로 고대광실 높은 집에
금위 옥석 노적하고 남전북답 물을 삼아 아들 따님으로 빗을 삼고
우마 유족 거느리고 태평성대로 잘 사시다가 연나 속새 극락세계로
돌아가면 모질고 악한 마음 다 떨어진 헌신같이 시름없이 버리시고
연화 상에다 모시어놓고 사십팔월 금마 무언 여진 성현이 스님자
되오리다 나향자야

<후렴>

안학 금상에 부인마마 원(遠)이 원이 발원이요 효자 증신이 발원이요
열부 열녀 발원이요 젊으신 시주님네 없는 애기는 생남발원
있는 애기는 수복 발원 연만하신 노인네는 살아생전에 잘 사시다가
속새 극락이 발원이요 열에 열 자손을 하나도 걸으지말고 고이금계
잘길러서 자손 만당에 부귀와 영화가 되옵소서

<후렴>

권구권명 모씨택에 이 선왕님을 모시고 와서 고사 덕담 고사축원
지성 정성으로 여쭙뒤랑 없는 애기는 속독 생남 있는 애기는 생전 수복
백대 천손 만대 유전 자손마다 부귀 공명 계계승승 누리주고
재수도 많도록 섬겨주고 이질 액칠에 배알이 돌침 후두침이나
고뽕 감기리도 휘몰아다가 저 고사 마당에다 노액할제

(*상에 놓은대로 섬겨줄 것)

거드레 풀이 삼재풀이 통진주강 의주 압록강에다가 흘려주었습니다.

<후렴> 선율 例

권구권명에헤 — 헤 — 김 씨택에,



웅진군 자원면
자월 2리 등촌

고사소리 1

천용우 (1937년생.남.토민) 창
음원 : 素 자월 19-4-11 고사

1-1 (음원 : 자월고사1)

♩. = 120

KA : 통과리 : 천용우



1-2 (음원 : 자월고사2)

$\text{♩} = 120$

국 태 민 안 범 중 연 시 화 년 풍 년 년 이

돌 아 든 다 이 씨 대 왕 등 국 서

삼 각 산 기 봉 하 에 봉 황 이 울 어 서 대 결 을 짓 구

대 결 앞 엔 육 조 로 다

육조 앞에는 어영문이요 어영문 앞에는 화각산,
 각도 각음을 마련할 때 왕심산 청룡되고 중남산은 화상되고,
 동짓강수 기막 가사 여천 면무 중이요 금일 차일 사반은 산부지잡고
 KA
 해동은 대한민국 경기도는 삼십육관

1-3 (음원 : 자월고사2) *가사는 김영민 노인회장 정리 자료 참고

평 (KA)

고사 고사는 고 사로다
 국태민안 범종연 시화연풍 년년이 돌아든다,
 이씨 대왕 동국시 삼각산 기봉하에 봉황이 울어서 대궐을 짓구
 대궐 앞엔 옥조로다, 옥조 앞에는 어영문이요 어영문 앞에는 화각산,
 각도 각읍을 마련할 때 왕심산 청룡되고 동구재 만리재 청룡되고,
 동짓강수 기막 가사 여천 연무중이요 금일 자일 사반은 서개 남산 부지 잡고,
 해동은 대한민국 경기 좌우 삼십육관 귀하는 용진군 자월연 자월리
 각인 각색 다 버리고, 이 댁에 김씨댁에 앞으로 보면 소산강이
 뒤로 보면 문필봉이 대한 명당이 아니냐
 기억자로 안채를 짓고 나온자로 행랑을 지어, 열두 행랑에 줄행남이요
 춘설을 받아내니 상당 부모 천년수라 우리 자손 만세 영을
 대궁 밑에 붙여놓고 입춘 대길 백사 현충 대문에다 붙였으니
 근돌 아니 중을소냐

평 (KA)

그도 그러 하려니와 이 댁에 김씨 댁 을같이 불안하고 험난한 전시에
 동서남북 이십사지 출입하여서 다니어도, 약한 인간은 제쳐두고
 순한 인간은 맞추어서 천인이 우러러 보고, 만인간이 칭찬하야
 채수가 대통하고 신수가 편안할 때 이 댁에 김씨 댁에

평 (KA)

옥동같은 귀한 애기를 낳으시거든 한 두살에 말 배우고 연령 십세 무병하여
 백년 장수 하려니와, 음식이 신선하여 타인 가정에 출가를 해서
 시부모 전에 효도하고, 남군에게는 열녀되며 시동생에 우애하고
 길가 친척 화목하여 효부열녀가 대대로 나리로다

평 (KA)

1-4 (음원 : 자월고사3) *가사는 김영민 노인회장 정리 자료 참고

평 (KA)

어디부터 처음이요 용천가산 절산 안주, 기자 천년 단군 천년
 이천년을 도읍하던 모란봉을 구경하고 춤마바리 박승석은
 얼른 너미 시골로 내려와, 각인 각색 다 버리고 이 댁에 김씨 댁에
 공구공경에 부인마마 원앙금침 둔벼개를 둔우비고서 누웠을 때,
 달힌 문을 콩콩 치며 여쭈어라 여쭈어라 한 김에 여쭈어라
 그도 그러하려니와 이 댁에 애주 금상 마마부인 머리 목욕 정히 하고

은 정반에 금쟁반에 올라 앉아 두 무릎을 정히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 술로도 하직하고 하루 이틀 불은 시루 열 사흘에 담은 시루 아주 벗어
 좋고 좋은 날 가려낼 때 이 덕에 김씨 덕에 장독밑에 더덕을 심어
 더덕같이 불어나게 점지를 하올 적에 일년 도액을 풀어 보자

정월이라 드는 액은 이월 한식 막아내구,
 이월이라 드는 액은 삼월 삼진으로 막아내구
 삼월이라 드는 액은 사월 초파일 막아내구,

사월이라 드는 액, 오월 단오로 막아내니
 오월 단오 드는 액은 유월 유두 막아내구,
 유월이라 드는 액은 칠월 칠석으로 막아내고

칠월이라 드는 액은 팔월 한가위 막아내고
 팔월이라 드는 액은 구월 <구일> 막아내고
 구월이라 드는 액은 시월 상달 막아내고

시월이라 드는 액은 동지 팔죽으로 막아낸다
 동짓달이라 드는 액은 선달 그음으로 막아낸다
 선달이라 드는 액 정월이라 대보름날 액액이 시루로 막아내자

뽕 (KA)

웅진군 덕적면
서포리

삼신 비손

창 : 1. 오정금 (1910년생.여.토민)
2. 문분김 (1910년생.여.토민)
3. 문인예 (1909년생.여.토민)

素 87-11-13-1 A

1. — 말하듯이 읊었음 —

"삼신 할머니 그저 자손을 고맙게 잘 키워줬으니
삼신 할머니 덕으루 이르기 다 똑똑하게 잘 키워 났시다
삼신 할머니 그저 모든게 잘못해두 그저 눌러 짐작하시고
그저 우리 애기 잘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2. ♩ = 150



이렇게 카워서, 삼신 할머니 덕택으루,
명 길구 복 많이 점지하옵시구 아무쪼록 다
건강한몸으로 잘 되게 도와주옵시고
출세하게 다 도와주옵소서 — (*교회 기도하듯 읊었음)

3. 어진 삼신할머니다, 삼신할머니다 공으루다 이르기 자식들 다 점지해서 이르기 생기서 다 삼신할머니 덕택입니다

그저 잘 크구 다 그저 젓시 누루서 젓시 없어서
이러 애를 쓰는데 그저 아무쪼록 젓 잘나게 해서
젓 잘 먹이게 해 주시고 다 바랍니다

〈웅진 96〉

웅진군 영흥면
내 4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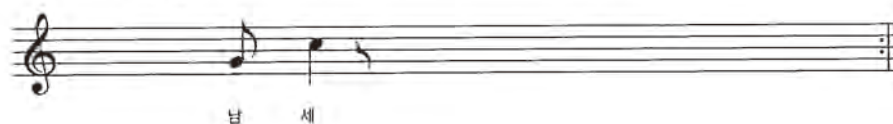
1. 널 들어올림
2. 문지방 나감

1. 김기수 (호적엔 김기현. 1948년
외 2리 출생. 남. 21세에
내 4리 이주) 장,
2. 임평택 (1944년생. 남. 토민)
이소라 채보 (190528. n.7)

1. — 널을 모시고 나가기 위해 방에서 들 때 —



2. $\text{♩} = 50$



〈웅진 97〉

웅진군 영흥면
내 4리

발인축

박상석 (1934년 서산군 출생. 남
6세 예 내 4리 입도) 창
素 87-9-14-2 A

♩. = 43 ~ 50

영 이 기 히 가 왕 즉 유 택

재 진 건 레 명 결 중 현

〈웅진 98〉

웅진군 영흥면
외 2리, 내 4리

발인축

김기수 (호적엔 김기현, 1948년
외 2리 출생. 남. 21세에
내 4리 이주) 창.
이소리 채보 (19-5-28A)

♩. = 32 ~ 33

영 이 기 가 왕 족 유 택

재 진 <관> 래 영 결 종 천

웅진군 영흥면
내 4리

상부소리

(매) 박상석 (1934 서산군
인지면 출생, 6세 예
내 4리 이주)
(반) 김민환 (1914생, 남.토민)
김기선, 김기순
녹음협조 : 이상원 현장

素 87-9-14(2) A

1. 남세, 하직인사

(시작알림 북: 박상석) ♩ = 100

♩ = 150

(매) (반) (매) (반)

벗 남 네 예 - 이 벗 남 네 예 - 이

(북)

(매) (반) (매) (반)

남 세 남 세 남 세 남 세

(매) (반) (매) (반)

남 세 남 세 남 세 남 세

(매)

구 사 - 당 으 즐

하 직 - - 하 고 - -

(발) 에 에 이

미 - 여 - 오 에

(메) 신 사 당 - 에 일 배 - 하 고 -

(발) 에 헤 이

미 히 요 오 헤

(메) 독 정 사 배 올 린 - 니

다 - - - - -

(받) 에 해 이

이 히 며 - - - - - 에

2. 넘 차

$\text{♩} = 150$

(메)α 내 제과백 (마터) 해 넘 차 넘 어

(받) 해 넘 차 넘 어

(메) 어 허 너 - - - - - 넘 차 (받) 어 허 너 - - - - - 넘 차

(메) 호 줄 연 히 생 각 을 허 니
구 씨 망 중 에 이 료 다

♩ = 50

(매) 12/8

전 지 히 가 하 한 만

<복> / Sim.

(받) 헤 널 자 널 어

(매)

사 하 략 밖 에 는 또 있 - 는 가

(받)

/ Sim.

- (매)
- 역모 세요 시주 님 네
 - 이 내 (하) 말씀 들어를 보 소
 - 이 세 계 상 에 나 온 사 람
 - 누 구 덕 으 로 나 왔 는 고
 - 석 가 여 래 공 덕 으 로
 - 아 버 님 전 에 복 을 다 빌 고
 - 어 머 님 전 살 을 빌 어
 - 칠 성 님 전 명 을 빌 고
 - 제 석 님 전 에 복 을 빌 어

(받)

에 헤 널 자 너 허 호

/ Sim.

- (매)
- 이 내 일 신 탄 신 을 허 니
 - 한 두 살 에 는 절 을 몰 라
 - 부 모 의 은 공 을 알 을 손 가
 - 이 삼 심 을 담 하 여 도
 - 부 모 의 은 공 을 못 다 갚 아

3. 회다지 아릴

♩ = 150



빈 소 우 열 - 지 - 험
 (회중) 예 좌 상 한 티 울 뒀 소
 (메) 이 으 어 이
 이 - 서 허 험 자 하 - 야
 (회중) 에 해 이
 (북) 이 달 굴 아 야
 이 하 더 이 달 굴 아 야

4. 달 고

— 첫 채 다짐 —

♩. = 50

(메)

산 지 히 조 종 은 곧 릉 산 이 요

(발)

에 이 여 리 다 알 고

(메)

수 지 - 조 종 은 황 하 - 수 니

(발)

에 이 허 - 리 다 알 고

- (메)
- 매 회 주 식 을 더 디 지 말 며
 - 새 주 식 을 내 지 마 라
 - 옛 성 현 말 씀 하 시 되
 - 인 간 만 사 대 중 에
 - 상 가 혼 사 많 건 마 는
 - 처 자 지 기 망 인 이 요
 - 과 연 눈 뜸 에 이 아 닌 고

— 1채 다짐 끝날 때 —

(매) 어 이 여 리 후 이 휘 이

(받) 애 이 여 라 휘 — 휘

— 2채 달궁 —

긴 달궁 (매) ○ 천지 — 지간, 만물 중에 —
 (받) 에 헤 — 이, 이히여 — 어 달궁이며
 (매) ○ 천세 무궁, 영원 성조 후 —
 (받) 에 헤 — 이, 이히여 — 어 달궁이며
 (매) ○ 만항 지서 허, 연고로 혼 데 해
 (받) 에 헤 — 이, 이히여 — 어 달궁이며

작은 달고 (매) ○ 옛날 옛적 진시왕은
 (받) 애 이 여리 다 알고
 (매) ○ 만리 장성을 쌓 놓고
 (받) 에히 허리 다 알고
 (매) ○ 천년 만년 살으려고
 ○ 아방 궁을 더러 놓고
 ○ 천년 만년 살으려고
 ○ 불로조를 구하 려고
 ○ 천하 마당 둘러볼 봐도
 ○ 불로조를 구할 손가

끝내기 (매) 애 이 여리 후 이 휘
 (받) 애 이 여리 후 이 휘 이

— 3채 다짐 —

긴 달궁 (매) ㅇ 창월 — , 이 산 증은 —

(받) 에 헤 — 이 , 이히요 — 오 달궁이여

(매) ㅇ 찬히 보니, 위로 가고오

(받) 에 헤 — 이 , 이히여 — 어 달궁이여

(매) ㅇ 이 골 선녀는 , 찬히 보니와 나라

(받) 에 헤 — 이 , 이히여 — 어 달궁이여

찾은 달고 (매) ㅇ 삼경 돌아도 백두 산은

(받) 에 히 여러 다 알 고

(매) ㅇ 암두강이 흐르는데
ㅇ 동으로다는 두만 강이요
ㅇ 서로 다는 압록 강이

ㅇ 암 두 강 을 이루고요
ㅇ 장승 요지에
ㅇ 한만 국경을 이루는 구나

끝 내 기 (매) 에 이 여러 휘 이 휘 이

(받) 에 이 여러 휘 이 휘 이

웅진군 영흥면
내사리

가래질소리

(장치꾼) 김인환 (1914년생, 남, 토민)
(줄잡이) 박상석 (1934년 서산군
민지면출생, 6세에 이주)
素 87-9-14-1 A

1. 서두

— 호흡을 맞추기 위한 시작 구호 또는 가래질하자는 신호 —

♩ = 150

(장치꾼) (줄잡이) 복창

가 래 호

2.

♩ = 90 ~ 110

어 하 어 하 자 하 자 하

어 — — 하 잘 다 렸 소

목 줄 쟁 이 가

(장) 심히 / 들깨다 / 어 하 / 어 하 / 잘 다 렸 소 /
고만 / 구만 / 저 만 / 구만 / 저만 / 두세 /
어 하 / 어 하 / 수고했소들 //

웅진군 영흥면
내사리

1. 남세
2. 하직 인사

(메) 박상석(1934. 남. 서산군
인지면 출생, 6세에 내사리 이주)
(받) 김기선, 김인환, 김기훈
이소라 제보(87-9-14-1A)

♩ = 150

1.

(선소리꾼) (상두꾼들) (선)

벗님 네 예 벗님 네

(상) (선) (상) (선) (상)

예 남세 남세 남세 남세

(선) (상) (선) (상)

남세 남세 남세 남세

2.

(메)

구 사 당 을

<북>

하 직 하 고

<북> (동동거림)

(받) 예헤-이, 이허여-어이

(메)

신 사 당 예

허 배 — 하 — 고 — — —

(발)

에

헤 이

이 히 여

어 이

(메)

복 향 사 — 배

울 리 — 님 니 다 —

(발) * 에 헤—이, * 이히여 — 어이

웅진군 영흥면
내 4리

운상소리

(메) 김기수(호적엔 김기현.1948년
의2리출생.남.21세 메
내 4리 이주) 장.
(발) 임평택(1944년생.남.토민)
미소라 채보(19-5-28A)

1. 다리 건너기 전 긴소리

*북을 치면서 댕인다.
*삼주네들은 노자돈을 걸어주곤 한다.

♩ = 150

메 에 헤 호 호 요 호 오 호

어 거 리 너 험 자 념 - - 어

2. 상여를 올려낼 때

"남세"를 3회 복창하는 바, 3회째엔 길게 뱉는다.
*선율은 4.모름막 운상 참조.

3. 평길 운상

♩ = 38~39

메 (메)α π 념 자 너 허 머 어

메 념 차 념 마

(메) ○ 간다 간다 나는 가네
○ 천지 명산 일월 보고



- (메)
- 우리가 사면 몇백년 사냐
 - 북망 산천 가더 라도
 - 어이 없고 어이 없네
 -
 - 구천담에 가더라도
 - 천를 길을 허하 백발
 - 백년을 기약이 할일 두 없이
 - <월직사>자 일직 사자
 -
 - 제주라 한라산이요
 - 한라산에 정기를 받아
 - 지리산이 내려를 보아
 - 지리산이 내린 정기
 - 서울이라 명산이요
 - 명산 찾아 명룡이라
 -
 - 에 념차 너 머

4. 오르막 운상

♩ = 90



(* 길게 소리하면 상여를 내린다)

웅진군 영흥면
내 4리

달 고

(매) 김기수(호적엔 김기현, 1948년
외 2리 출생, 남, 21세에
내 4리 이주) 장.
(반) 임평택(1944년생, 남, 토민)
이소라 재보(19-5-28A)

- * 달굿대 없이 시계반대방향으로 든다,
- * 1채, 2채, 3채까지 달군다. 선소리꾼은 북을 치며 액인다.

* "문 남 네 - " 통 한, 두 번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벗>

세 번째 불러야 달구꾼들이 "예 -"하고 답 한다.

(매) ○ 허 - 허 - 어 허 여허
어 거 리 념 차 너 마

(반) 예 여 리 달 고

(매) ○ 천 지 에 명 산 찾 아 들 어
○ 인 간 백 살 <노>인 이 되 어
○ 천 지 명 산 내 린 정 기
○ 허 거 하 자 어 이 없 네

○ 구 천 당 념 어 갈 때
○ 흘 연 백 발 어 이 저 라

♩. = 55

(매) 서 왕 념 전 비 - 나 니 다
<남>

(반) 예 여 리 다 알 고

〈웅진 104〉

웅진군 자월면
송봉리

1. 초혼
2. 윤상소리
3. 달고소리
4. 뗏간

(매) 김민화 (1937년생.남.토민.
호적연 1938년생)
(반) 정귀진 (1937년생.남.토민)
정인수 (1937년생.남.토민)
김인국 (1940년생.남.토민)

녹음협조 : 김경협, 강현지, 황영욱
녹음&채보 : 이소라 (2019. 9.18)

1.

* 송봉리의 초혼을 김민화 노인회장이 많이 맡아했다.
그는 팔산 김씨이며, 7대조께서 덕적으로 귀양왔었고, 조부께서
송봉도로 이주하셨다.

" 웅진군 자월면 송봉리 (김해 김)씨,
어이, 어이, 어이 "

— 이렇게 외치고는 고인의 속적삼을 지붕 위에 던져 올랐다. —

2.

* 선소리꾼은 상여 앞에 타고 요령을 흔들면서 맥었다.
14~18인이 상여를 땀고, 상여 땀 사람이 부족하면 여자들도 참여하였다.

♩ = 43 ~ 48



어 이 어 - 히 어 히 어 - 이
(반) 어 미 어 - 히 어 히 어 - 이

(매) 나 는 간 다 나 는 니 간 다 (반)

(매) ○ 북망 산천을, 나느니 간다
○ 잘 살어라, 잘 살어라

3.

* 달곳대를 각자 가지고 선소리꾼 포함하여 3,4인이
광안에 들어가 다지곤 하였다.

$\text{♩} = 75$

(메) α (받)

이 허이 영 자 다 팔 고

(메) ○ 어하 간다고 달 고

(메)

북 망 산 이 웬 말 이 나

(받)

어 이 영 자 달 고

(메)

단 단 하 게 도 — 다 저 — 다 고

(메)

- 내가 가며는 언제 오나
- 길이 한 백년 되 나 간다
- 아서라 말어라 이게 뭐냐
- 단단히 간다 나는 간다
- 북망 산전으루 가는 구나
- 어기야 영자나 달 고

4.

* 산의 나무로 들채를 만들어 선소리꾼을 태우고는
귀가길에 일부러 나무에 부딪치거나 개울을 지날 때
들채를 기울여 떨어뜨리기도 하고, 상갓집 대문을 들어가면서
"어랏차차" 함성을 지르며 부딪쳐 대문을 부서뜨리기도 하였다.

"으랏차차 —"

웅진군 자월면
자월2리 동촌

상부소리

- 1,2. 남진섭 (1931년생, 남.토민) 제보
음원 : 자월 상부 19-4-11
3. 천용우 (1937년생, 남.토민) 창
음원 : 자월 가래 19-4-11
녹음 & 채보 : 이소라 (2019.4.11)

* 방에서 널을 모시고 나갈 때, 방의 네 귀퉁이에 널을 밀면서 했던 소리는 밋었다.
마당의 <독진>에 내려놓을 때나 상여에 실을 때는 "남세, 남세" 한다.
발인축은 안했다.

1. 림질이야

— 문지방 넘을 때, 널을 밀었다 멧갸다 하며 하던 소리이다 —



2. 나무아미타불

— 마당을 떠나기 전에 —

* 북쪽을 바라보고 하직 하며, "인제가면 언제오나"를 소리한다.



(매) ○ 저승 길이 멀다더니, 문을 열고보니 대문밖이로구나

* 그 집을 하직할 때, "새끼들,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키워서, 살 만큼 해 주구 나는 간다" 그러면서
절을 4배 하고는 뺨 돌아선다. 사정없이 돌아서므로 다칠 수도 있다.
* 길 떠날 때는 "상두꾼들 발 맞추소" 하며, "어 넘차 넘세"를 부른다.

3. 봉분 흙가래질

(메) ○ 이 가래가 - , 누 가래냐

$\text{♩} = 150$

(매) { } [3] { } (발)

나 가 살 머 는 몇 백 년 으 을 사 - 나

(매) { } [3] { } { }

이 재 - 해 가 머 는 언 제 나 - 오 - 나 -

(발) { } { } ~ { }

에 해 에 에 가 - -

{ } { } { }

가 - - 래 - 요

(매) { } { }

사 람 이 - 살 머 는

[3] { }

몇 천 년 으 을 산 다 더 - 나

(발) { } π { } { }

에 해 에 에 가 - -



- * 광안 중심에다 달곶대 하나를 꼽는다.
- * 달구꾼들은 뭉둥이 (뭉달곶대) 하나씩 들고 광안에 들어가 밟는다.
뭉둥이 없이 그냥 밟는 사람도 있다.
망자가 배씨라면, 선소리꾼은 "어허 어허, 배씨네 달고 " 한다.

웅진군 덕적면
소야리

상부소리

배병운 (1927년생, 남, 트민) 창

녹음 & 채보 : 이소라 (87-11-13-2)

1. 하직 고향

*선소리꾼만 고향다.

"자, 오늘은 80 당년에 생존해 사시다가,
우리 동네 일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작고를 하셨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잘 모셔드리는 것이 소야리 젊은이의 의무로서
끝까지 잘 모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명사!" 하면 윤구를 올리맨다.

*자식들이 하직을 받는다.

2. 어름소리

♩ = 150

(매) α

어 허 이 녀 자 하 이 녀 - - 어 로 다

(매)

인 생 일 장 앙 춘 몽 - 이 다 -

인 제 - 가 며 나 언 제 나 오 니

- (매) ○ 잘 있어라 - 잘 가세요
○ 인생이 험한 줄은 알건마는
○ 어제 청춘 오늘이 백발

○ 기왕지사 떠나는 길에
○ 일가 친척을 만나구 가자

3. 평길 운상

- (메) ○ 가자 — 가세 — 어서 — 가세
○ 공동 묘지가 멀다 해도
(받) 어념자 너화 료다
(메) ○ 처다 봐라 태산이 준형



4. 오르막 운상

♩ = 75

(메) α (받) 임배진 부면장

어 화 중 화 어 화 중 화

(메) (받)

어 화 중 화 어 화 중 화

(*이하, 앞 음보다 반음정 낮추어 기보함)

(메) 3 (받) (메) 4 (받)

이 고 개 를 넘 으 며 는 아 리 랑 고 개 다

(메) (받)

어 화 중 화 어 화 중 화

(메) ○ 머리끝 꺾어서
○ 중이 아니라

5. 달고

$\text{♩} = 150$

(메) α
(내재 4박 1마디)

어 여 - 라 다 하 알 고 존

(발)

어 허 라 다 알 공

(메)

이 달 고 가 - 이 니 달 - 고 냐 -

(발)

어 - 허 라 다 할 고 - ㅇ

(메) ㅇ 김씨 명인의 달고로구나

* 달고꾼들이 달고대를 각자 들고 달고를 찌다가
끓이는 신호("어여라 ---")를 주면, 달고밥은 일을 멈춘다.

6. 가래

$\text{♩} = 150$

(메) α

어 여 - 라 가 래 - 어 허

임베진 (받)

여 혀 라 가 래 - 야

(메)

이 가 - 래 가 뉘 가 - 래 나

(메) ○ 만년 유택에가래로 구나

배영운 (받)

여 여 - 라 가 래 - 여

웅진군 덕적면
북 2리

상부소리

문송준 (1919년생.남.13대째토민) 창
녹음&채보 : 이소라 (87-11-13-2A)

1. 하직 소리

$\text{♩} = 150$

인 생 — 불 사 으 — 잠 수 으 허 락 으

백 년 기 약 을 맺 었 더 니 —

- (α') ○ 일조 일석 여기 누워
인생길 떠나 간다
- (α') ○ 가련하다 (아무개)님 가련쿠나
화태 편작이 악명 몰라 죽어 가고
- (α') ○ 왕우 장생 명웅 절사
악이 없어 봉혀셨나
- (α') ○ 구정 세월 한 없어라
초로 인생 가련쿠나
- (α') ○ 인제 가면 언제 오랴
다시 오기 망연 쿠나
- (α') ○ 산천 초목 고목 되여두
내년 춘삼월이면 잎이 피고
- (α') ○ 어화 인생 가련 태두
재생 길 찾건마는
- (α') ○ 초패왕 어찌타
만권 서적을 다 태울적에
- (α') ○ 이별람 두 글자 넘겨두
인생이 쓰라림을 앤겨주나

- (α') o 어이 하랴 밀가 친척
 자손들에게 하직을 허자
- (α') o 구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도 허배를 허자
- o 신사당에 허배 허았으니
 동네 유지 조객들에게
 하직 인사 허구 떠나 가자



* 이렇게 하고는 상어를 돌려 길을 떠난다.

2. 평길 운상

* 문충준은 (반)2를 부르나 일부 사람을 (반)1을 부르기도 한다고 함.



(받)2

어 화 너 화 강

너 화 로 구 나

<SR>

너 화 트 구 나

3. 오르막 운상 "어화 증화" "어미샤 어미샤"

4. 달고

$\text{♩} = 150$

(받)

내 제 4막 1마디

어 허 이 야 라 다 알 고

(데)

이 달 고 가 뉘 다 알 고 나

- (메)
- 이 달고는 이씨 맹인의 달고로다
 - 강산은 청이오 우산 백호 나섰으니

웅진군 덕적면
서포 2리

상부소리

김현희 (1912년생, 남, 9대째 토민) 장
쵸 87-9-14-2 B (87.11.13 녹음)

1. 하직소리

* 선소리꾼이 독창한다.

♩ = 60

나 무 아 미 타 불

♩ = 150

인생 일 세 - 탄 생 후 에 면 치 못 할 - 길 이 로 다

나 무 아 미 타 불

건곤 천지 혼합 후에 억조창생 마련하고
음양오행 정기로써 수요장단을 마련하니
왕후장생 쓸데없고 남녀노유 헐수없네

2. 평길 운상

♩ = 38 ~ 43

(매) α (반)

어 노 화 노 화 노 화

(매) 가련하다 이제 한번 돌아가면

(매)

구 사 탈 에 허 배 허 고 신 시 당 하 직 허 세
<하 직> <허 배>

(받)

이 노 화 노 화 노 화

(매) ○ 저승길이 머다더니 대문밖이가 저승이라

3. 오르막 운상

♩. = 67

(매)

어 허 중 화

(받)

어 허 중 화

4. 달고

♩ = 150

(매)

어 허 - 라 달 고

(받)

이 산 정 산 하려 - 현 제

(매) ○ 칠년 구산 삼년 택일
○ 제일 명당이 여기로 구나

웅진군 덕적면
서포 1리

1. 윤상소리
2. 달고소리

(예) 장석진 (1939년생. 남. 토민)

(받) 임배진 부면장

1. 素 87-11-13-2B

2. 素 87-11-13-2A 끝

1.

♩ = 150

(예) α
내재 4박
1마타

에 노 화 노 화 - 트 다

(받) 장

에 이 노 화 - 노 화 트 다

(예)

이 노 - 화 가 뉘 노 - 화 냐

(받)

에 - 이 노 화 노 화 로다

2.

素 87-11-13-2A 끝

♩ = 150

(예) α
내재 4박
1마타

어 허 - 라 달 - 고

(받)

어 허 라 다 알 고 - ○

(예)

이 달 고 가 뉘 달 곤 가

(예)

○ 엑스 망인의 달고 로다

웅진균 책도면
신도 2리

1. 윤상
2. 달구

(메) 라만석 (1932년생. 남. 토민)
(발) 김봉운 (1917년생. 남. 토민)

素 88-8-1 B

* 라만석과 김봉운은 농사에만 중사함.

1.

♩ = 48 ~ 58

(메) α

너 너 — 허 너 — 허 너

(메)

일 가 친 척 이 많 다 구 헤 — 두

대 신 갈 사 람 하 나 없 고

(발)

너 너 — 너 호 —

(메)

○ 친구 간 이 있 다 구 해 도,
동 형 할 사 람 가 이 없 네

(메)

공 명 천 지 — 하 늘 아 — 래

(발)

어 념 — 차 너 호

(메)

○ 인 간 백 년 을 살 자 하 니
공 들 아 니, 백 발 이 요,
면 지 못 할 죽 음 일 세

(발)

너 너 호 너 호

2.

♩. = 60

- 달궂대를 각자 들고 달군다 -



(메) ○ 이 달고가 뉘 달곤가
○ 구봉산 낙맥이 독 멀어 저서



(메) ○ 자손을 날려면 충신을 낳고
○ 어자를 날려면 열녀를 낳서
○ 자손 만대 부귀 영화
○ 에 여라 다알고

웅진군 복도면
신도 2리

1. 운상
2. 달고

전원실 (1900년생.남.토민) 창
素 88-8-1 B

1.

$\text{♩} = 50$

(메) π

어 너 - 너 너 어 거 - 념 자 너 화 너

(메)

인 생 일 장 준 몽 인 데 아 니 - 노 지 는 못 하 리 라

(반)

어 너 - 너 허 너

(메)

나 는 간 다 - 잘 있 거 라

(반) 어 너 너하 너
(메) ㅇ 가는 나를 생각 말고

(반) 어 너 너하 너
(메) ㅇ 부디 평안히 잘 살여라

2.

$\text{♩} = 60$

(반) π

에 이 여 라 다 알 고 이 자 리 가 - 존 자 린 가

(반) (메) 3

아 들 을 낳 며 는 효 자 를 낳 고

웅진군 북도면
시도

1. 윤상 2. 달공

백기열 (1914년생.남.토민)창
素 88-8-1 A

1.

♩. = 43 ~ 46



(매) ○ 부모 동상이 많다 해드

♩. = 60



2.



(매) ○ ()가 듣기 좋구나

웅진군 복도면
시도

1. 윤상 2. 달공

백광식 (1916년생, 남, 토민) 창
호 88-8-1 A

1.

(반) 너 너호 너 호

(매) ○ 북망 산천 멀다 해도
대문 밖이 북망이르다

2.

(반) 어이 여라 달 공



연백군 청용면 웅매도
웅진군 연평도, 북도면 시도

1. 운상
2. 달구

최원식 (1939웅매도출생.남,
16세에 연평도로 피난후,
시도 이주) 창

票 88-8-1 A

1.

♩. = 60

(받)

에 호 에 - 호

어 허이 념 - 정 에 - 해 호

(메) ○ 북망 산이 멀다 해도
문턱에 나서면 북망일세

(메)

내 가 가 면 아 주 가 나

아 주 가 안 들 릇 을 소 나 하

2.

* 달구꾼들이 각자 달굿대 들고 다닌다.

(메) 에 헤리 달구여

♩. = 60

(받)

에 헤 허 허이 다 알 구 요

먼 디 사 람 보 기 즐 게

웅진관 북도면
진흥도

1. 운상소리
2. 달궁

(메) 박명규 (1925년생.남.토민)
(반) 김창식 (1919년생.남)

樂 88-7-12-2A

1. * 오르막이나 다리 건널 때의 운상소리는 따로 없다고 함.
* 선율은 참고음,

♩ = 150

박 (서두)
(내재 4박)
1마디

어 - - 어 어 어 이 너

어 - - 어 어 어 이 너

(반)

너 너 너 허 너

너 널 차 너 너

(메)

아

간 다 - 간 다 - 나 는 간 다

아 들 말 버 리 구 선 나 는 - 간 다

(반)

너 너 너 허 허
너 널 차 너 허

- (메) ○ 언제 가면 언제 오나
 명년 춘삼월에 오련 마는
- 몀사 십리 해당 환들,
 꽃이 진다, 서러를 마소

2.

$\text{♩} = 150$

박(발)

헤 이 여 라 달 궁

(메)

메 이 여 리 달 고 르 다

김(발)

어 허 이 여 라 다 할 고

(메)

궁

12/8

< 무 필 봉 > 이 비 져 으 니

(메)

네 알 - 이 달 고 르 다

(받)

어 허 이 어 라 다 알 고

(메) 공

(메)

제 일 명 당 매 기 트 다

(받)

♩. = 150 - 속도 더 빠르게 -

(메)

- 노 세 노 세 젊 어 노 세
- 늙 어 지 며 는 못 노 나 니
- 함 응 하 고 도 십 일 흥 이 요
- 달 도 차 며 는 기 우 나 니

" 어 - "

해주부근 동강면 덕현리
웅진군 북도면 장봉도

상부소리

임성복 (1923덕현리출생.남.
장봉도로 피난나옴) 창
素 88-7-12-2 B

1. 팽길 운상

(매) ○ 저승길이 멀다 허되
대문 밖이 저승 일다

♩. = 46 ~ 50

(매) π π π
 널 널 너 - 너
 너 가 뉘 처 어 형 너 에 에 헤 요 오 호
 (매) f p
 언 제 가 면 언 제 - 오 - 요
 만 경 청 파 마 하 이 수 - 중 - 에
 나 는 다 시 - 안 거 오 - 마

2. 오르막 운상

* 산엄블을 부른다.

3. 달고

— 언쫘대를 각자 들고 다친다. —

$\text{♩} = 50$

(받)

메 헤 이 달 - 고

(메)

산 지 - 조 중 은 단 룬 -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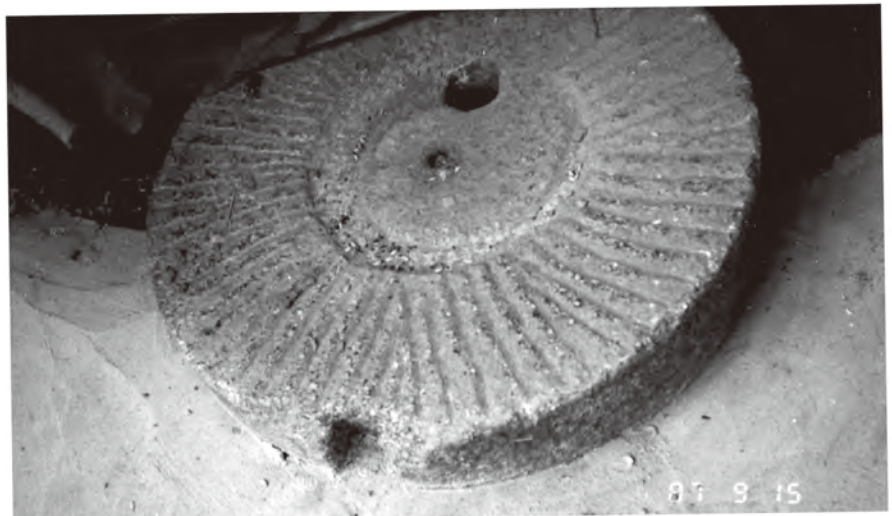
(받)

(메) △ 수지 조중은 황해수리

영흥면 내1리 나무절구



영흥면 내1리



영흥면 내1리(맷돌 밀짚)

〈부록 1〉

옛종전군 영종면
운남5리

모심기

김기안 (1913년 운남5리출생.남.
인천서 살기도 했으나 귀향함) 창
素 87-5-22 A

* 모절 때는 소리 안했다.

♩. = 67 ~ 60

여 기 두 한 포 기 심 었 구 나

저 기 또 한 포 기 심 어 놓 구 차 줌 나 가 는 데

그 리 며 - 느 은 그 리 는 물 - 레 야

심 어 나 가 느 나 났 구

심 다 보 니 뒤 에 는 두 럼 이

발 뒷 굶 치 에 재 는 구 나

〈부록 2〉

윤진균 영종면
운소리, 중산 6리

모심기

차국환 (1913운소리출생. 남. 1931년경
인천 거주. 해방직후 중산리 이주) 장
素 87-5-22 A

* 모질 때는 소리 없다.

♩ = 50 ~ 55

(A)

여 기 두 하 나 심 었 구 나 또 하 나

여 기 두 하 나 하 나 하 나 를 심 어 — 보 잔 다

(B)

하 나 를 심 어 보 자 여 기 두 또 하 나

여 기 두 하 나 — 하 나 를 심 었 — 네

〈부록 3〉

옛을진군 영증면
운서8리

모심기

차연환 (1930년생.남.토민) 창
燕 87-5-22 B

* 제3행의 선율은 곧새치기를 닮았음.
곧새풀이나 한가지라고 가참자도 자평함.

♩ = 150

여 기 도 하 나 심 구

여 기 또 하 날 심 었 구 나

여 기 도 하 날 또 심 었 - 네

○ 몇번 갔든 잘두 살구나
잘두 산다
여기도 하나,
여기 또 하나를 심었구나

〈부록 4〉

옛웅진군 영종면
중산2리

배치기

김동수 (1920년생, 남, 토민) 창
素 87-5-22 A

*가창자는 舊면장임.

- 우리배 운수가 좋아서
연평 칠산에 도장을 하였네
에 헤 에에 에 —
- 배치기 아줌마 거동을 보시소
다릿발 밑에서 술동이 이구
줄만 주누나
에 헤 에에 에 —
- 우리배 일년증 운수가 좋아서
연평 칠산에 도장을 하였네
에 헤 에에 에 —
- 이등 저등 다 저차 놓구
가운데 등으루 닛만 주누나
에 헤 에에 에 —

♩, = 50 ~ 60

이 등 저 등 다 저 차 놓 구

가운 데 등 으 루 닛 만 주 누 나

에 헤 에 에 — 에

〈부록 5〉

옛웅진군 영종면
운남 5리

곱새치기 불림

김기안 (1913년 운남 5리 출생. 남.
인천서 살기도 했으나 귀향함) 장
索 87-S-22 A

- 일등 공신 원두표에 났구,
이수 중분 백로주야 났구,
술근 삼짜민 남았나

사 월 난 풍 *대 맥 황 에
(*보리가 익다)

오 주 천 리 달 던 머 리

병 자 호 - 란 에 물 딱 - 중

- 산디 우순 벽란도나 났구, 잡아라
여든 백냥 물근 제에 구구팔
예는 거북 정드 원안새, 울던 물이나
- 일등 공신 원두표를 불렀는데
이수 중분 백로주라
삼라장 저승길이나
- 사월 난풍 대맥황에
오군 불능은 뉘지적이라
육리 청산에 보라매
- 칠중 칠군 재갈랑 불렀는데
팔년 풍진 초패왕이야
구월 감산이 십리 돌
- 장수 죽으면 군문법이라 났구
육리 청산에 보라매를 불리구
*산 돌면 칠십리란다
(* 7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부록 6〉

옛 응진군 용유면

굴찌러가는 노래

정소아 (1920년 장면군 대구면
출생.여.백령도 거쳐 37세에
용유면 이주) 창
素 87-8-11-1 A

* 리듬은 <SR>

♩ . = 43 ~ 50

굴 찌 러 - 간 다 하 고 - - - - -

평 게 좋 아 하 가 더 허 니 (으) 미 -

풍 선 배 타 구 서 - - - - -

장 산 꽃 드 누 나

〈부록 7〉

옛 음진군 송유면
골왕 3리

모심기

이인강 (1916년생, 남, 토민) 창
素 87-8-11-2 B

- * 한 사람씩 부른다, 이것만 계속 불러나간다.
- * 이인강은 강준여의 아들.

$\text{♩} = 150$

여 기 두 한 폭 을 심 었 구 나

저 기 두 한 폭 을 심 었 구 나

여 기 저 기 다 심 었 네

이 는 다 매 고 장 구 배 미 로 넘 어 간 다

〈부록 8〉

옛웅진군 용유면
울왕 3리

모심기

이의강 (1918년생.남.토민) 창
素 87-8-11-2 B

* 이의강은 19대째 거주 토민. 이인강의 친형..
전주 이씨로 효령대군 손임.
* 15~20명이 모를 심었다, 농악도 올리고 기도 꽃았다고 함.
* 모질 때는 소리 안한다, 호미로도 는냈다.

♩ = 60

여 기 두 한 포 기 저 기 도 한 포 기

여 기 저 기 다 심 었 네 하 나 소 리 에

손 날 려 라 저 손 떠 서 못 심 는 다

일 락 서 산 에 해 는 지 고 월 출 등 녘 에

달 솟 는 데 여 기 저 기 다 심 어 왔 네

素 87-8-11-1 B

○ 여기두 심구 저기두 심구 여기만 안 심었네,
거기 심구 여기두 심구 저기두 심었네
서산에 해는, 떨어졌네

〈부록 9〉

장영군 대구면, 해안면
옛웅진군 용유면

모심기

정소아 (1920년 대구면출생, 여,
37세부터 용유도 거주) 창
索 87-8-11-1 A

* 어릴 때, 할머니들이 노래하는 것 듣고 알며, 직접 모심으며 불러보진 않았다.

* 따라서, 참고용이나 음정은 뚜렷함.

♩. = 43

〈부록 10〉

옛옹진군 용유면
무의리, 을왕리

모심기

차순분 (1921무의리출생.여.
을왕리로 시집옴)창

素 87-8-11㉠B

*선율은 용유면 이의강 류

“여기 저기 다 심구
하나 소리에 저 손 뜨구나
빨리 빨리 심자
서산 낙조 해 떨어진다”

옛 웅진군 용유면

부인네들 발김매기

정소아 (1920년 장연군 대구면
출생.여.백령도 거쳐 37세에
용유면 이주) 창
索 87-5-22 B

- * 장연군에서는 60님은 할머니 말고는 남녀가 섞여 일하지 못했다.
서집사는 아낙들이 먼 산중 밭에나 김을 매리거나 모여서를 노래했다.
친정엄마가사만 나와도 그리운 생각에 눈물을 주룩룩 흘렸다.
- * 논도 있었지만 쌍거리로 밭을 갈았다. 대구면엔 좋은 밭은 밭이 많았다.
조도 많이 심었다. 타작소리는 별로 없었다.
- * 쌍거리에서는 "에나로"하면 돌아가고, "마라마라"하면 빨리 곧장 간다.
용유에서는 "어디 어디"하길래 "용유지 어디야" 해줬더니 한바탕 웃었다.

♩. = 43 ~ 50 *f*

(받) 에 화 나 둥 둥 내 - 사 랑 아

(매) 는 다 하 매 (ㅎ) 구 밭 - 다 매 구

친 정 엄 만 네 - 집 에 나 하 가 고 지 라

메 헤 - - 야 -

(받) 에 화 나 둥 둥 내 - 사 랑 아

(매) ○ 밭 다 매구 *는 삼동 치구
친정 엄만네 집에나 가고 지야

(*는 삼동 치구 ; 세법은, 즉 맘을 맨다는 뜻)

〈부록 12〉

옛옹진군 용유도

고 사 리 꺾 기

<SR>해석악보

정소아 (1920년 장연군 출생, 여.
37세부터 용유도 거주) 창
素 87-8-11-1A

♩ = 50

고 사 리 고 사 리 고 사 (ㅎ) 리 —

요 몯 썰 — 년 의 고 사 리

네 가 너 를 만 나 러 — 왔 — 나

임 을 보 러 — 왔 다 가 — 네 모 가 지 가 달 아 — 나 누 — 나

〈부록 13〉

장안군 대구면, 해안면
웅진군 백령도, 용유면

망질노래

점소아 (1920대구면출생, 여,
37세부터 용유면 거주) 창
索 87-8-11-1 A

- * 멧돌을 '망'이라 한다.
큰 망은 돌이서 같고, 작은 망은 혼자서도 간다.
- * 시용산 줄바위 ; 시용산에서 망돌이 많이 나왔다.
석수대장 정마치 ; 석수대장이 정을 가지고 떼려 바위를 다듬는 것.
재기따라 덩기따라 ; 뜻은 모르나, 그냥 장단 맞추는 소리라 함.

♩ = 75

(받)

들 러 라 - 돌 러 - 라

♩ = 100

재 주 따 라 덩 기 따 라 돌 러 - 라

* 음정 점검함,

(메)

이 망 애 애 비 는 석 수 대 장 애 정 마 치

이 망 애 애 미 는 시 용 산 애 - 줄 바 위 라

(받)

들 러 라 하 돌 - 러 - 라

재 - 기 따 라 덩 기 따 라 돌 - 러 라

〈부록 14〉

옛 용진군 용유면

베를 노래

정소아 (1920정연군출생.여.
33세에 백령도로 피난 나옴.
37세부터 용유면 거주) 창
素 87-8-11-1A

* 13세 정도에 배웠다.

" 만경속에 베를 낚라,
오줄 강에 갈일 보나

하늘에다 베를을 놓구
구름에다 잉알 걸고,

잉알대는 삼형제요
누리개 대는 다문 독신,

배알이는 진형젠데
눈섭에나 대는 신벽 신벽 하구

검적검적 하는데, 굴통에 나운
실통 좋게 구누나 "

♩ = 150 ~ 170

이 영 고 부 정 쇠 꼬 리 나 망 치

짚 서 기 나 감 발 이 왔 다 갔 다 한 다

북 정 민 영 꾸 리 를 열 께 설 삶 아 놓 고

아 흠 개 반 념 기 고 온 다 짓 갈 겠 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반개만 짚다는 얘기라고 함)

〈부록 15〉

장안군 대구면, 해안면
옛읍진군 용유면

감내기

정소아 (1920년 대구면출생, 여.
37세부터 용유도 거주) 창
素 87-8-11-1 A

* 발김 매면서도 할머니들이 불렀다.

$\text{♩} = 150$

1. 해 내 려 간 - 다 - 하 - -

해 내 려 간 다

수 루 천 길 물 속 으 르 - -

해 내 려 가 - - 나 다

물 속 매 선 녀 야 - 아 -

해 받 아 - 노 훈 아 아 라

2. 으 월 단 오 날 그네 뛰 다 가 폭 부 러 진 년 의 - - -

다 하 - - 리 원

저 절 절 절 절 고 호 호 을 면

그 래 도 정 든 님 만 - 파 - - 이 라

가 고 만 지 - 라

3. * 온 정 물 짚 세 기 에 에 -

양 닷 든 짜 하 - 린

저 녀 들 탕 기 * 앞 날 이 히

* 온 정 물 ; 끓는 물. 여기에 찹신을 담겨 삶는다.
 * 앞날이 났다 ; 찹신 발 밑이 뛰여 났다.



4. 롬 나물이나 국<자>으 - 흐 - 을 쫄쫄쫄쫄 빨며,



- * 감내기의 요성음은 가음 또는 중간음에 있지만, 제1~3절에서 보면, 중간음요성이 조금 우세한 편이다. 정소아 감내기의 음정은 중간의 요성음을 기준으로 요성음에서 그 윗음이 단3도인 구조인 경우(제2절, 제3절 후반, 제4절 후반)와 장3도인 경우(제1절, 제3절 등)가 있어보인다.
- * 제3절 끝 "앓다"에서 음정이 미묘하게 조금 올라감으로써 제4절 첫행 선율은 불안정 하다.
- * 제2절의 선율은 어산영이나 부안군 벼베기소리 등에 비유되는 점이 있다.
- * "어디 어디 갑니까, 남포장 갑니다, 술집아주마이 뭐 줘 주시오" 등의 쌍소리 내용이 감내기 가사로 쓰인다고 한다.

〈부록 16〉

옛 읍진군 용유면
을왕3리

지경소리

이의 강 (1918년생.남.토민) 창
素 87-8-11-2A

* 집 지을 때 지경 다했다.

♩. = 50 ~ 55

(받)

에 에 - 라 지 경 이 야

(지경들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놓는다)

(메) ○ 아 차차 또 지경이야

(메)

지 경 지 경 지 경 닷 는 다

(받) 에 라 지경이야

〈부록 17〉

장연군 대구면, 해안면
옛웅진군 용유면

지정소리

정소아 (1920년 대구면출생, 여.
37세부터 용유도 거주) 창
출 87-8-11-1 A

♩ = 150

(발) 

에 해 해 해 — 리 지 정 — 이 아

(매) 

이 집 을 지 며 서 — 천 년 만 년 — 살 고 지 라

(발) 

에 에 — — — 지 정 이 아

(매) 

아 들 을 낳 면 효 자 낳 고 딸 을 낳 — 면 열 녀 된 다 —

〈부록 18〉

옛 몽진군 용유도

자장가

정소아 (1920년 장연군 출생, 여.
37세 부터 용유도 거주) 창
索 87-8-11-1 A

♩ = 150

우 리 애 기 는 잘 두 잔 다

우 리 애 기 는 감 주 단 지 물 구 자 고

넌 의 애 긴 개 똥 자 루 물 구 잔 다

〈부록 19〉

멧옹진군 용유도

청춘가

정소아 (1920년 장연군 출생. 여.
37세부터 용유도 거주) 창
素 87-8-11-1 B

- 아서라 말이라,
네가 그리를 말이라
한 오 백년 설깁 장, 좋다
몸논 실러 가누나 히아

♩ . = 50 - 55

청 처 함 하 늘 에 - 엔 -

잔 별 두 많 구 - 요 -

오 내 혜 가 습 - 애 졸 - 다

수 심 도 많 구 - 나

옛 옹진군
용유면

수심가

정소아(1920. 여. 장연군 대구면 出生.
16세에 장연 해안면으로 시집감
37세부터 용유거주)贈
이소라체보(87-8-11^{3A})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on a grid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and a common time signature. The score is divided into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has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second system has a bass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third system has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lyrics are in Korean and appear to be a traditional song.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bar lines.

System 1 (Treble Clef, Key of B-flat):

- Lyrics: 간, 로, 이, 바, 아, 야
- Notes: G4, A4, Bb4, C5, D5, E5, F5, G5, A5, Bb5, C6, D6, E6, F6, G6, A6, Bb6, C7, D7, E7, F7, G7, A7, Bb7, C8, D8, E8, F8, G8, A8, Bb8, C9, D9, E9, F9, G9, A9, Bb9, C10, D10, E10, F10, G10, A10, Bb10, C11, D11, E11, F11, G11, A11, Bb11, C12, D12, E12, F12, G12, A12, Bb12, C13, D13, E13, F13, G13, A13, Bb13, C14, D14, E14, F14, G14, A14, Bb14, C15, D15, E15, F15, G15, A15, Bb15, C16, D16, E16, F16, G16, A16, Bb16, C17, D17, E17, F17, G17, A17, Bb17, C18, D18, E18, F18, G18, A18, Bb18, C19, D19, E19, F19, G19, A19, Bb19, C20, D20, E20, F20, G20, A20, Bb20, C21, D21, E21, F21, G21, A21, Bb21, C22, D22, E22, F22, G22, A22, Bb22, C23, D23, E23, F23, G23, A23, Bb23, C24, D24, E24, F24, G24, A24, Bb24, C25, D25, E25, F25, G25, A25, Bb25, C26, D26, E26, F26, G26, A26, Bb26, C27, D27, E27, F27, G27, A27, Bb27, C28, D28, E28, F28, G28, A28, Bb28, C29, D29, E29, F29, G29, A29, Bb29, C30, D30, E30, F30, G30, A30, Bb30, C31, D31, E31, F31, G31, A31, Bb31, C32, D32, E32, F32, G32, A32, Bb32, C33, D33, E33, F33, G33, A33, Bb33, C34, D34, E34, F34, G34, A34, Bb34, C35, D35, E35, F35, G35, A35, Bb35, C36, D36, E36, F36, G36, A36, Bb36, C37, D37, E37, F37, G37, A37, Bb37, C38, D38, E38, F38, G38, A38, Bb38, C39, D39, E39, F39, G39, A39, Bb39, C40, D40, E40, F40, G40, A40, Bb40, C41, D41, E41, F41, G41, A41, Bb41, C42, D42, E42, F42, G42, A42, Bb42, C43, D43, E43, F43, G43, A43, Bb43, C44, D44, E44, F44, G44, A44, Bb44, C45, D45, E45, F45, G45, A45, Bb45, C46, D46, E46, F46, G46, A46, Bb46, C47, D47, E47, F47, G47, A47, Bb47, C48, D48, E48, F48, G48, A48, Bb48, C49, D49, E49, F49, G49, A49, Bb49, C50, D50, E50, F50, G50, A50, Bb50, C51, D51, E51, F51, G51, A51, Bb51, C52, D52, E52, F52, G52, A52, Bb52, C53, D53, E53, F53, G53, A53, Bb53, C54, D54, E54, F54, G54, A54, Bb54, C55, D55, E55, F55, G55, A55, Bb55, C56, D56, E56, F56, G56, A56, Bb56, C57, D57, E57, F57, G57, A57, Bb57, C58, D58, E58, F58, G58, A58, Bb58, C59, D59, E59, F59, G59, A59, Bb59, C60, D60, E60, F60, G60, A60, Bb60, C61, D61, E61, F61, G61, A61, Bb61, C62, D62, E62, F62, G62, A62, Bb62, C63, D63, E63, F63, G63, A63, Bb63, C64, D64, E64, F64, G64, A64, Bb64, C65, D65, E65, F65, G65, A65, Bb65, C66, D66, E66, F66, G66, A66, Bb66, C67, D67, E67, F67, G67, A67, Bb67, C68, D68, E68, F68, G68, A68, Bb68, C69, D69, E69, F69, G69, A69, Bb69, C70, D70, E70, F70, G70, A70, Bb70, C71, D71, E71, F71, G71, A71, Bb71, C72, D72, E72, F72, G72, A72, Bb72, C73, D73, E73, F73, G73, A73, Bb73, C74, D74, E74, F74, G74, A74, Bb74, C75, D75, E75, F75, G75, A75, Bb75, C76, D76, E76, F76, G76, A76, Bb76, C77, D77, E77, F77, G77, A77, Bb77, C78, D78, E78, F78, G78, A78, Bb78, C79, D79, E79, F79, G79, A79, Bb79, C80, D80, E80, F80, G80, A80, Bb80, C81, D81, E81, F81, G81, A81, Bb81, C82, D82, E82, F82, G82, A82, Bb82, C83, D83, E83, F83, G83, A83, Bb83, C84, D84, E84, F84, G84, A84, Bb84, C85, D85, E85, F85, G85, A85, Bb85, C86, D86, E86, F86, G86, A86, Bb86, C87, D87, E87, F87, G87, A87, Bb87, C88, D88, E88, F88, G88, A88, Bb88, C89, D89, E89, F89, G89, A89, Bb89, C90, D90, E90, F90, G90, A90, Bb90, C91, D91, E91, F91, G91, A91, Bb91, C92, D92, E92, F92, G92, A92, Bb92, C93, D93, E93, F93, G93, A93, Bb93, C94, D94, E94, F94, G94, A94, Bb94, C95, D95, E95, F95, G95, A95, Bb95, C96, D96, E96, F96, G96, A96, Bb96, C97, D97, E97, F97, G97, A97, Bb97, C98, D98, E98, F98, G98, A98, Bb98, C99, D99, E99, F99, G99, A99, Bb99, C100, D100, E100, F100, G100, A100, Bb100, C101, D101, E101, F101, G101, A101, Bb101, C102, D102, E102, F102, G102, A102, Bb102, C103, D103, E103, F103, G103, A103, Bb103, C104, D104, E104, F104, G104, A104, Bb104, C105, D105, E105, F105, G105, A105, Bb105, C106, D106, E106, F106, G106, A106, Bb106, C107, D107, E107, F107, G107, A107, Bb107, C108, D108, E108, F108, G108, A108, Bb108, C109, D109, E109, F109, G109, A109, Bb109, C110, D110, E110, F110, G110, A110, Bb110, C111, D111, E111, F111, G111, A111, Bb111, C112, D112, E112, F112, G112, A112, Bb112, C113, D113, E113, F113, G113, A113, Bb113, C114, D114, E114, F114, G114, A114, Bb114, C115, D115, E115, F115, G115, A115, Bb115, C116, D116, E116, F116, G116, A116, Bb116, C117, D117, E117, F117, G117, A117, Bb117, C118, D118, E118, F118, G118, A118, Bb118, C119, D119, E119, F119, G119, A119, Bb119, C120, D120, E120, F120, G120, A120, Bb120, C121, D121, E121, F121, G121, A121, Bb121, C122, D122, E122, F122, G122, A122, Bb122, C123, D123, E123, F123, G123, A123, Bb123, C124, D124, E124, F124, G124, A124, Bb124, C125, D125, E125, F125, G125, A125, Bb125, C126, D126, E126, F126, G126, A126, Bb126, C127, D127, E127, F127, G127, A127, Bb127, C128, D128, E128, F128, G128, A128, Bb128, C129, D129, E129, F129, G129, A129, Bb129, C130, D130, E130, F130, G130, A130, Bb130, C131, D131, E131, F131, G131, A131, Bb131, C132, D132, E132, F132, G132, A132, Bb132, C133, D133, E133, F133, G133, A133, Bb133, C134, D134, E134, F134, G134, A134, Bb134, C135, D135, E135, F135, G135, A135, Bb135, C136, D136, E136, F136, G136, A136, Bb136, C137, D137, E137, F137, G137, A137, Bb137, C138, D138, E138, F138, G138, A138, Bb138, C139, D139, E139, F139, G139, A139, Bb139, C140, D140, E140, F140, G140, A140, Bb140, C141, D141, E141, F141, G141, A141, Bb141, C142, D142, E142, F142, G142, A142, Bb142, C143, D143, E143, F143, G143, A143, Bb143, C144, D144, E144, F144, G144, A144, Bb144, C145, D145, E145, F145, G145, A145, Bb145, C146, D146, E146, F146, G146, A146, Bb146, C147, D147, E147, F147, G147, A147, Bb147, C148, D148, E148, F148, G148, A148, Bb148, C149, D149, E149, F149, G149, A149, Bb149, C150, D150, E150, F150, G150, A150, Bb150, C151, D151, E151, F151, G151, A151, Bb151, C152, D152, E152, F152, G152, A152, Bb152, C153, D153, E153, F153, G153, A153, Bb153, C154, D154, E154, F154, G154, A154, Bb154, C155, D155, E155, F155, G155, A155, Bb155, C156, D156, E156, F156, G156, A156, Bb156, C157, D157, E157, F157, G157, A157, Bb157, C158, D158, E158, F158, G158, A158, Bb158, C159, D159, E159, F159, G159, A159, Bb159, C160, D160, E160, F160, G160, A160, Bb160, C161, D161, E161, F161, G161, A161, Bb161, C162, D162, E162, F162, G162, A162, Bb162, C163, D163, E163, F163, G163, A163, Bb163, C164, D164, E164, F164, G164, A164, Bb164, C165, D165, E165, F165, G165, A165, Bb165, C166, D166, E166, F166, G166, A166, Bb166, C167, D167, E167, F167, G167, A167, Bb167, C168, D168, E168, F168, G168, A168, Bb168, C169, D169, E169, F169, G169, A169, Bb169, C170, D170, E170, F170, G170, A170, Bb170, C171, D171, E171, F171, G171, A171, Bb171, C172, D172, E172, F172, G172, A172, Bb172, C173, D173, E173, F173, G173, A173, Bb173, C174, D174, E174, F174, G174, A174, Bb174, C175, D175, E175, F175, G175, A175, Bb175, C176, D176, E176, F176, G176, A176, Bb176, C177, D177, E177, F177, G177, A177, Bb177, C178, D178, E178, F178, G178, A178, Bb178, C179, D179, E179, F179, G179, A179, Bb179, C180, D180, E180, F180, G180, A180, Bb180, C181, D181, E181, F181, G181, A181, Bb181, C182, D182, E182, F182, G182, A182, Bb182, C183, D183, E183, F183, G183, A183, Bb183, C184, D184, E184, F184, G184, A184, Bb184, C185, D185, E185, F185, G185, A185, Bb185, C186, D186, E186, F186, G186, A186, Bb186, C187, D187, E187, F187, G187, A187, Bb187, C188, D188, E188, F188, G188, A188, Bb188, C189, D189, E189, F189, G189, A189, Bb189, C190, D190, E190, F190, G190, A190, Bb190, C191, D191, E191, F191, G191, A191, Bb191, C192, D192, E192, F192, G192, A192, Bb192, C193, D193, E193, F193, G193, A193, Bb193, C194, D194, E194, F194, G194, A194, Bb194, C195, D195, E195, F195, G195, A195, Bb195, C196, D196, E196, F196, G196, A196, Bb196, C197, D197, E197, F197, G197, A197, Bb197, C198, D198, E198, F198, G198, A198, Bb198, C199, D199, E199, F199, G199, A199, Bb199, C200, D200, E200, F200, G200, A200, Bb200, C201, D201, E201, F201, G201, A201, Bb201, C202, D202, E202, F202, G202, A202, Bb202, C203, D203, E203, F203, G203, A203, Bb203, C204, D204, E204, F204, G204, A204, Bb204, C205, D205, E205, F205, G205, A205, Bb205, C206, D206, E206, F206, G206, A206, Bb206, C207, D207, E207, F207, G207, A207, Bb207, C208, D208, E208, F208, G208, A208, Bb208, C209, D209, E209, F209, G209, A209, Bb209, C210, D210, E210, F210, G210, A210, Bb210, C211, D211, E211, F211, G211, A211, Bb211, C212, D212, E212, F212, G212, A212, Bb212, C213, D213, E213, F213, G213, A213, Bb213, C214, D214, E214, F214, G214, A214, Bb214, C215, D215, E215, F215, G215, A215, Bb215, C216, D216, E216, F216, G216, A216, Bb216, C217, D217, E217, F217, G217, A217, Bb217, C218, D218, E218, F218, G218, A218, Bb218, C219, D219, E219, F219, G219, A219, Bb219, C220, D220, E220, F220, G220, A220, Bb220, C221, D221, E221, F221, G221, A221, Bb221, C222, D222, E222, F222, G222, A222, Bb222, C223, D223, E223, F223, G223, A223, Bb223, C224, D224, E224, F224, G224, A224, Bb224, C225, D225, E225, F225, G225, A225, Bb225, C226, D226, E226, F226, G226, A226, Bb226, C227, D227, E227, F227, G227, A227, Bb227, C228, D228, E228, F228, G228, A228, Bb228, C229, D229, E229, F229, G229, A229, Bb229, C230, D230, E230, F230, G230, A230, Bb230, C231, D231, E231, F231, G231, A231, Bb231, C232, D232, E232, F232, G232, A232, Bb232, C233, D233, E233, F233, G233, A233, Bb233, C234, D234, E234, F234, G234, A234, Bb234, C235, D235, E235, F235, G235, A235, Bb235, C236, D236, E236, F236, G236, A236, Bb236, C237, D237, E237, F237, G237, A237, Bb237, C238, D238, E238, F238, G238, A238, Bb238, C239, D239, E239, F239, G239, A239, Bb239, C240, D240, E240, F240, G240, A240, Bb240, C241, D241, E241, F241, G241, A241, Bb241, C242, D242, E242, F242, G242, A242, Bb242, C243, D243, E243, F243, G243, A243, Bb243, C244, D244, E244, F244, G244, A244, Bb244, C245, D245, E245, F245, G245, A245, Bb245, C246, D246, E246, F246, G246, A246, Bb246, C247, D247, E247, F247, G247, A247, Bb247, C248, D248, E248, F248, G248, A248, Bb248, C249, D249, E249, F249, G249, A249, Bb249, C250, D250, E250, F250, G250, A250, Bb250, C251, D251, E251, F251, G251, A251, Bb251, C252, D252, E252, F252, G252, A252, Bb252, C253, D253, E253, F253, G253, A253, Bb253, C254, D254, E254, F254, G254, A254, Bb254, C255, D255, E255, F255, G255, A255, Bb255, C256, D256, E256, F256, G256, A256, Bb256, C257, D257, E257, F257, G257, A257, Bb257, C258, D258, E258, F258, G258, A258, Bb258, C259, D259, E259, F259, G259, A259, Bb259, C260, D260, E260, F260, G260, A260, Bb260, C261, D261, E261, F261, G261, A261, Bb261, C262, D262, E262, F262, G262, A262, Bb262, C263, D263, E263, F263, G263, A263, Bb263, C264, D264, E264, F264, G264, A264, Bb264, C265, D265, E265, F265, G265, A265, Bb265, C266, D266, E266, F266, G266, A266, Bb266, C267, D267, E267, F267, G267, A267, Bb267, C268, D268, E268, F268, G268, A268, Bb268, C269, D269, E269, F269, G269, A269, Bb269, C270, D270, E270, F270, G270, A270, Bb270, C271, D271, E271, F271, G271, A271, Bb271, C272, D272, E272, F272, G272, A272, Bb272, C273, D273, E273, F273, G273, A273, Bb273, C274, D274, E274, F274, G274, A274, Bb274, C275, D275, E275, F275, G275, A275, Bb275, C276, D276, E276, F276, G276, A276, Bb276, C277, D277, E277, F277, G277, A277, Bb277, C278, D278, E278, F278, G278, A278, Bb278, C279, D279, E279, F279, G279, A279, Bb279, C280, D280, E280, F280, G280, A280, Bb280, C281, D281, E281, F281, G281, A281, Bb281, C282, D282, E282, F282, G282, A282, Bb282, C283, D283, E283, F283, G283, A283, Bb283, C284, D284, E284, F284, G284, A284, Bb284, C285, D285, E285, F285, G285, A285, Bb285, C286, D286, E286, F286, G286, A286, Bb286, C287, D287, E287, F287, G287, A287, Bb287, C288, D288, E288, F288, G288, A288, Bb288, C289, D289, E289, F289, G289, A289, Bb289, C290, D290, E290, F290, G290, A290, Bb290, C291, D291, E291, F291, G291, A291, Bb291, C292, D292, E292, F292, G292, A292, Bb292, C293, D293, E293, F293, G293, A293, Bb293, C294, D294, E294, F294, G294, A294, Bb294, C295, D295, E295, F295, G295, A295, Bb295, C296, D296, E296, F296, G296, A296, Bb296, C297, D297, E297, F297, G297, A297, Bb297, C298, D298, E298, F298, G298, A298, Bb298, C299, D299, E299, F299, G299, A299, Bb299, C300, D300, E300, F300, G300, A300, Bb300, C301, D301, E301, F301, G301, A301, Bb301, C302, D302, E302, F302, G302, A302, Bb302, C303, D303, E303, F303, G303, A303, Bb303, C304, D304, E304, F304, G304, A304, Bb304, C305, D305, E305, F305, G305, A305, Bb305, C306, D306, E306, F306, G306, A306, Bb306, C307, D307, E307, F307, G307, A307, Bb307, C308, D308, E308, F308, G308, A308, Bb308, C309, D309, E309, F309, G309, A309, Bb309, C310, D310, E310, F310, G310, A310, Bb310, C311, D311, E311, F311, G311, A311, Bb311, C312, D312, E312, F312, G312, A312, Bb312, C313, D313, E313, F313, G313, A313, Bb313, C314, D314, E314, F314, G314, A314, Bb314, C315, D315, E315, F315, G315, A315, Bb315, C316, D316, E316, F316, G316, A316, Bb316, C317, D317, E317, F317, G317, A317, Bb317, C318, D318, E318, F318, G318, A318, Bb318, C319, D319, E319, F319, G319, A319, Bb319, C320, D320, E320, F320, G320, A320, Bb320, C321, D321, E321, F321, G321, A321, Bb321, C322, D322, E322, F322, G322, A322, Bb322, C323, D323, E323, F323, G323, A323, Bb323, C324, D324, E324, F324, G324, A324, Bb324, C325, D325, E325, F325, G325, A325, Bb325, C326, D326, E326, F326, G326, A326, Bb326, C327, D327, E327, F327, G327, A327, Bb327, C328, D328, E328, F328, G328, A328, Bb328, C329, D329, E329, F329, G329, A329, Bb329, C330, D330, E330, F330, G330, A330, Bb330, C331, D331, E331, F331, G331, A331, Bb331, C332, D332, E332, F332, G332, A332, Bb332, C333, D333, E333, F333, G333, A333, Bb333, C334, D334, E334, F334, G334, A334, Bb334, C335, D335, E335, F335, G335, A335, Bb335, C336, D336, E336, F336, G336, A336, Bb336, C337, D337, E337, F337, G337, A337, Bb337, C338, D338, E338, F338, G338, A338, Bb338, C339, D339, E339, F339, G339, A339, Bb339, C340, D340, E340, F340, G340, A340, Bb340, C341, D341, E341, F341, G341, A341, Bb341, C342, D342, E342, F342, G342, A342, Bb342, C343, D343, E343, F343, G343, A343, Bb343, C344, D344, E344, F344, G344, A344, Bb344, C345, D345, E345, F345, G345, A345, Bb345, C346, D346, E346, F346, G346, A346, Bb346, C347, D347, E347, F347, G347, A347, Bb347, C348, D348, E348, F348, G348, A348, Bb348, C349, D349, E349, F349, G349, A349, Bb349, C350, D350, E350, F350, G350, A350, Bb350, C351, D351, E351, F351, G351, A351, Bb351, C352, D352, E352, F352, G352, A352, Bb352, C353, D353

* 장연군에서는 수심가, 난봉가를 많이들 불렀다 (정소아).

$\text{♩} = 150$

타 관 - - 하 한 객 리 밍

를 로 나 힌 음 이 히 야

고 생 이 아 니 며 현

유 랑 객 이 로 호 우 오 나 앙 이 -

생 각 으 를 하 니 -

잊 어 버 름 날 없 어 서 어 허 며

살 지 못 타 리 로 오 호 - 라 -

옛 종진군 용유면

자진 난봉가

정소아 (1920장 엄군출생.여,
33세에 백령도로 피난 나옴.
37세부터 용유면 거주) 장
素 87-8-11-1 A

1. 노자 노자 노자 젊어서 노자,
늙어 백발이 되면 나는 못놀 갔네,
애하 디야 어려허 니가 날 살려라
2. 예수나 믿었더면 천당에나도 가지,
시아바이 아들 믿었다가 알고생을 하노나

♩ = 50 ~ 60 * 리듬은 <SR>

3. 살림 의 — — — 살 이 — — —

할 지 말 지 하 — 안 데

호 호 박 의 박 념 클 은 — —

을 파 주 후 만 념 는 — 다

옛 용진군 용유도

몽금포 타령

정소아 (1920년 장연군 출생, 여.
37세부터 용유도 거주) 장
素 87-5-22 B 플

○ 장산곶 밀레서허
북소리 나더니
<금> 일도 상봉에헤
임만나 보겠네

♩ = 46 ~ 50

장 사 한 바 구 주 니 - - 히 - -

살 기 만 좋 - 아 앓 지 히 -

문 든 낭 놀 아 하 세 헤 - -

난 못 살 겠 구 - 나 - -

○ 바람새 줄다고
곰돌지 말구요 호오,
몽금이 개암포
들렀다 가려마 허아

- * 장산곶 돌아면 생돼지 잡아 고사지내고 갔다.
물이 시퍼런게 빙글빙글 돌아 가운데로 빠지는 곳이였다.
- * 몽금이 개암포 라는 동네가 있었다.
- * 정소아는 이 노래를 어릴 때 유성기 판에서 듣고 배웠다.
장연군 대구면에서 태어나, 16세에 장산곶이 있는 장연군 해안면으로 시집갔다.
33세에 해안면에서 가까운 백령도로 피난갔다.

〈부록 23〉

옛옹진군 용유면
을왕3리

고사덕담

정춘홍 (1915년생.남.토민)창
素 87-8-11②A

고사 고사 고사로다
국태 민안이 범 윤자
시화 연풍 돌아 들고
년년이 돌아 든다,

이씨 한양에 등국시에
삼각 산천이 기봉하야
<봉학 놀러> 대궐을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육조 앞엔 <오 영문>
<각도 각읍을 마련할 때> 왕십리 청룡이,
동구재 만리재 백호로다,

한강수 깊은 물에,
해보 용마 난단 말,
오늘날도 금일이요
어젯날도 금일이요,

기밀 기밀이 기밀이로다
사바는 세계로다,
남<선은 부주>잡고,
해동 대한은 조선국,

경기 허구두 영성내
(*있었다고 중단함)

옛옹진군 용유면

산염불

정소아 (1920년생,여,
37세부터 용유 거주) 창
素 87-5-22 B

* 정소아는 장연군 대구면 출생. 16세에 해안면으로 시집감.
33세에 백령도로 피난 갔음. 46세에 남편 사망후 노래로 세월을 이겨냄.

(후렴) 해 해 해에 해해, 어헝 어마미
타항 허허야 불이로 다하

(본문) ○ 이산 저산, 양 산 중에,
올고 나니 꼭산이라

♩ = 150

(후렴)

해 해 해에 해해 어헝 어마미

타 항 허 허 야 불이로 다 하

(본문)

태 사 한 준 령 을 신작 로 삼 고

어 느 누구 를 바 라 고 여 허 게 왔 나 하

○ 산에 올라, 옥을 캐니,
이름이 좋아서 산옥이라하

아하모, 어헝 어미
타항 허야 불이로다하

○ 세월이 가서야, 늙는 줄 알았지,
유정님 이별에 늙어 산다하

옛 동진군 풍유면
울왕 3리

1. 평길 운상
2. 오르막 운상

이의 강 (1918년생, 남, 토민)창
素 87-8-11-2A

1.

(메) ○ 인생 —, 백년 하직을 하고,
천당 행선, 배를 타시고
공동, 산천, 돌아갈 시,
처량 허기가, 짝이 없네
에 —, 에에, 메 에에 메 —

(받) 에 — 에에, 메 녕차 념, 아

$\text{♩} = 150$

(메)

간 다 간 다 나 는 간 다

공 동 산 천 내 가 간 다

지 끄 가 며 는 언 제 나 을

내 년 이 때 — 다 시 나 오 — 마

메 녕 차 념 — 아

(메) ○ 산두 설구 물두 설어,
 산천 경개 구경을 갈까,
 지상 백년, 돌아를 가니,
 사방조차 뿌엿구나

(받) 어 능, 차 느 마

2.

♩ = 87



〈부록 26〉

창원군 대구면, 해안면
웅진군 백령도, 용유면

달구

정소아 (1920대구면출생, 여,
37세부터 용유면 거주) 창
素 87-8-11-1 A

* 용유에서는 회담는 경우가 없더라고 함.

♩ = 150

(받)

네 제 4박
1마디

매 해 — — 달 구 야

(매) ○ 산 지 조 종 은 곤 료 산 이 요
수 지 조 종 은 활 해 수 라

〈부록 27〉

인천광역시
도림동, 선학동

1. 자장가 2. 도라지

최옥순(1919년 도림출생. 여.
17세에 선학동 공용덕께
시집옴) 창
素 88-8-1A

1. 은자동아 금자동아 잘두 잔다,
우지말구 잘두 잔다

은을 주면 너를 사라
금을 주면 너를 사라
은자동아 금자동아 잘두 잔다

2. 도라지 도라지,
산천 초목에 백도라지,
한 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가 사리살살 나는데
지화자자 좋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부록 28〉

인천광역시
선학동

노랫가락

공용덕(1918년생.남.토민)창
素 88-8-1A

* 모내는 작업 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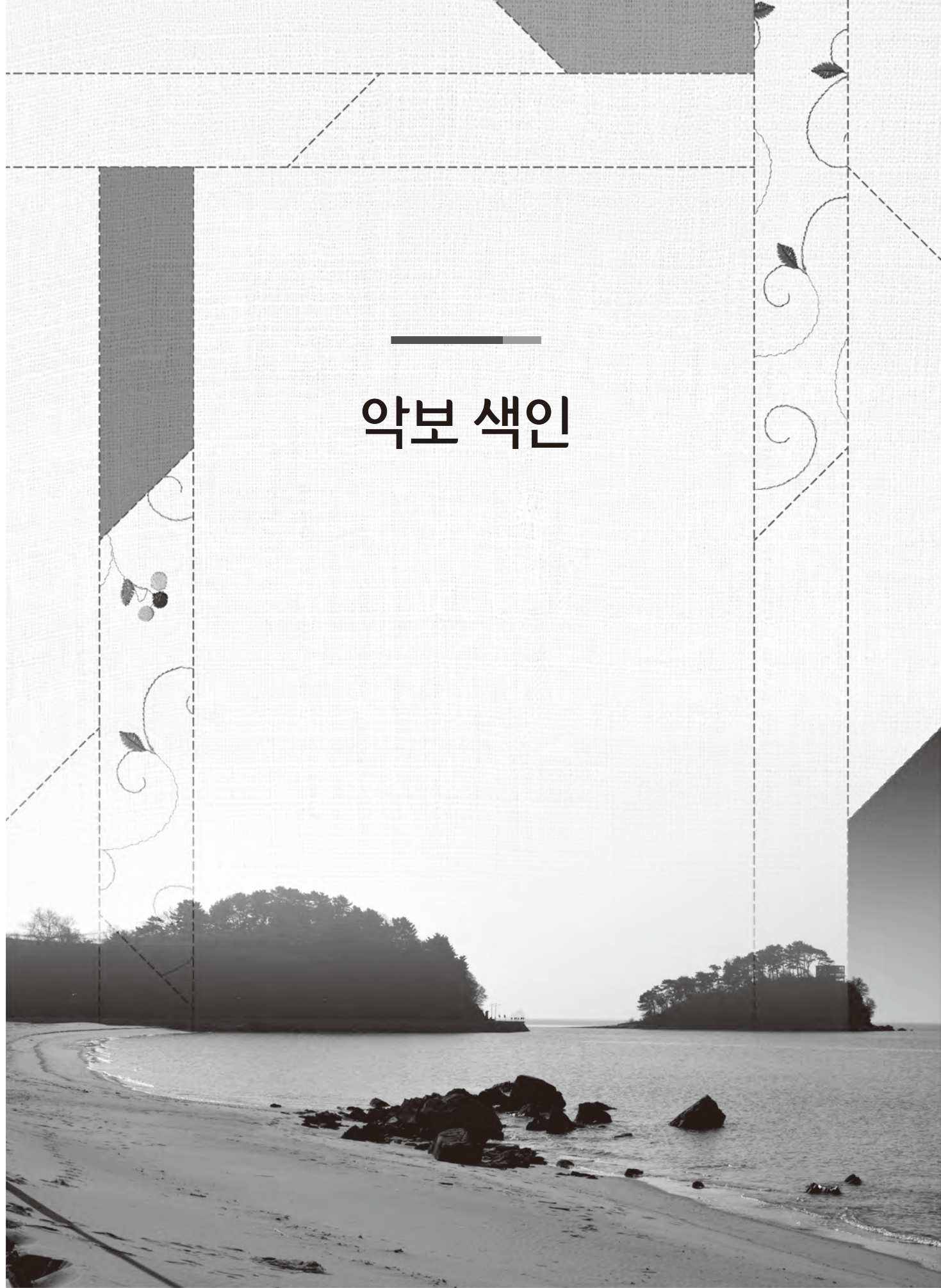
※ 운상소리는 "어히 넘차 너허"이다.

노세 젊어만 놀아
늙어지며는, 못 노나니,
하무는 십일홍이요
달이 둥굴면, 기우나니,

인상 일장 춘몽인데,
<인생>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악보 색인



* 악보 차례

〈웅진 1〉	영흥 논매기 1.긴 소리 2. 상사 3. 몬돌 4. 에 혈쭈 덩어리 5. 잣은 알카덩어리	영흥면 내4리(김기선, 박상석, 김인환, 김기순)
〈웅진 2〉	논매기(방아)	영흥면 외1리(김종만)
〈웅진 3〉	논매기	영흥면 (김기동)
〈웅진 4〉	밭매기	영흥면 내4리(김인환)
〈웅진 5〉	나무꾼	영흥면 내4리(김인환)
〈웅진 6〉	모심기	영흥면 (김기동)
〈웅진 7〉	모심기	자월면, 용유면(강준여)
〈웅진 8〉	모심기	북도면 신도2리(김봉윤)
〈웅진 9〉	논매기	북도면 신도2리(김봉윤, 라만석)
〈웅진 10〉	논매기	북도면 장봉도(김재환)
〈웅진 11〉	방아(논맴)	북도면 신도2리(전원실)
〈웅진 12〉	1.소부림말 2.베틀가	북도면 장봉도(박명규)
〈웅진 13〉	소부림말	덕적면 서포2리(이재운)
〈웅진 14〉	논감매기	덕적면 서포리(오정금)
〈웅진 15〉	밭매기	덕적면 서포리(오정금)
〈웅진 16〉	밭매기	덕적면 서포2리(문인예)
〈웅진 17〉	나무꾼	덕적면 서포2리(문인예)
〈웅진 18〉	나무꾼	덕적면 북2리(최윤열)
〈웅진 19〉	나무꾼(울 어매)	덕적면 소야2리(서윤예)
〈웅진 20〉	밭매기	자월면, 용유면(강준여)
〈웅진 21〉	사춘성님	자월면, 용유면(강준여)
〈웅진 22〉	사춘성님	자월면 이적, 대부도(김화분)
〈웅진 23〉	1.삼삼기 2.밭매기	자월면, 용유면(강준여)
〈웅진 24〉	베틀가	자월면, 용유면(강준여)
〈웅진 25〉	농사노래(자월고사2)	자월면 자월2리 동촌 (천용우, 남진섭, 김영민)
〈웅진 26〉	청춘가곡풍(나무하기, 굴따기)	자월면 승봉리(김월랑)
〈웅진 27〉	울어머니는	덕적면 서포리, 소야리(서재옥)

〈용진 28〉 모찌기

〈용진 29〉 모심기

〈용진 30〉 모심기, 논매기

〈용진 31〉 논매기

〈용진 32〉 감내기

〈용진 33〉 노젓는 소리

〈용진 34〉 그물당기는소리

〈용진 35〉 배치기

〈용진 36〉 배치기

〈용진 37〉 배치기

〈용진 38〉 배치기

〈용진 39〉 배치기

〈용진 40〉 배치기

〈용진 41〉 배치기

〈용진 42〉 청춘가곡풍(굴따기)

〈용진 43〉 1.굴따기 2.나무꾼

〈용진 44〉 1.굴따기 2.밭매기

〈용진 45〉 잠자리

〈용진 46〉 1.잠자리 2.이거리

〈용진 47〉 새야

〈용진 48〉 새쫓는소리

〈용진 49〉 이거리

〈용진 50〉 한울대

〈용진 51〉 한알대

〈용진 52〉 한알대

〈용진 53〉 자장가

〈용진 54〉 자장가

〈용진 55〉 자장가

〈용진 56〉 자장가

〈용진 57〉 자장가

해주 부근인 동강면 덕현리,

용진군 북도면(임성복)

동강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동강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동강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동강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북도면 장봉도(박명규, 김창식)

북도면 시도(백기열, 최원식)

연평도,북도면 시도(최원식)

덕적면 서포2리(인권옥)

덕적면 서포2리(문인예)

덕적면 북2리(문송준)

덕적면(이정옥)

덕적면 소야리(배병운)

북도면 장봉도(박명규, 김창식)

덕적면 북2리(최윤열)

덕적면 진2리(이윤호)

덕적면 소야리(서운예)

자월면 자월2리 동촌

(1. 김요지 2.배춘난)

자월면 승봉리(강기열)

덕적면 서포2리(문인예)

덕적면 서포2리(문인예)

북도면 시도(백탐실)

연백군,북도면 시도(최원식)

영흥면 내4리(1.임평택 2.태동철)

자월면 자월2리(김요지, 최종열)

덕적면 북리(최윤열)

덕적면 소야2리(서운예)

덕적면 서포2리(문인예)

북도면 장봉도(김재환)

자월면, 용유면(강준여)

〈용진 58〉 1.달강류 2.불아
 〈용진 59〉 1.창부타령곡풍 2.자장가
 〈용진 60〉 달아

자월면, 용유면(강준여)
 영흥면 선재리, 대부도(임옥희)
 덕적면 서포2리(문인예)

〈용진 61〉 꼬닥 꼬닥
 〈용진 62〉 노랫가락곡풍
 〈용진 63〉 노랫가락
 〈용진 64〉 담방구
 〈용진 65〉 담방구
 〈용진 66〉 1.난봉가 2.방아타령
 3.담방구
 〈용진 67〉 군밤타령
 〈용진 68〉 둥기둥기둥 내사령
 〈용진 69〉 범벅타령
 〈용진 70〉 변강수타령
 〈용진 71〉 1.청춘가 2.창부타령
 〈용진 72〉 봄
 〈용진 73〉 1.봄배추 2.나물먹고
 〈용진 74〉 1.신세타령 2.봄이 왔네
 〈용진 75〉 1.높은 산에 2.소나무는
 〈용진 76〉 1.청춘가 곡풍 2.창부타령
 〈용진 77〉 1.창부타령
 2.뱃놀이 3.어랑타령
 〈용진 78〉 1.도라지 2.창부타령곡풍
 3.담방구 4.청춘가
 〈용진 79〉 1.도라지 2.창부타령곡풍
 3.아리랑 4.날 곱게 길러
 〈용진 80〉 1.남물이 들었네
 2.석탄 백탄
 〈용진 81〉 박연폭포
 〈용진 82〉 1.박연폭포 2.양산도
 〈용진 83〉 연당 앞에
 〈용진 84〉 진국명산
 〈용진 85〉 몽금포타령
 〈용진 86〉 건드령타령

덕적면 서포리(오정금)
 자월면 승봉리(강금숙)
 북도면 신도2리(김봉윤, 라만석)
 자월면, 용유면(강준여)
 북도면 장봉도(김창식)
 북도면 신도2리(라만석, 김봉윤)
 덕적면 서포리(문분김, 오정금)
 덕적면 북리(최윤열)
 덕적면 서포리(오정금)
 동강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북도면 신도2리(김봉윤, 라만석)
 덕적면 소야2리(서윤예)
 덕적면 서포리, 소야리(서재옥)
 덕적면 서포2리(문인예)
 영흥면(김기동)
 덕적면 북2리(이정열)
 자월면 승봉리(강금숙)
 덕적면 서포리(오정금)
 덕적면 서포2리(문분김)
 자월면 이적, 대부도(김화분)
 덕적면 북리(김태심)
 덕적면 서포2리(인권옥)
 자월면, 용유면(강준여)
 자월면 승봉리(김월랑)
 동강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동강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용진 87〉	자진 난봉가	동강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용진 88〉	1.긴 산염불 2.짧은 산염불	동강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용진 89〉	곱새치기	북도면 신도2리(라만석)
〈용진 90〉	곱새치기	북도면 장봉도(박명규)
〈용진 91〉	곱새치기	덕적면 북2리(문송준)
〈용진 92〉	곱새치기	동강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용진 93〉	고사덕담	영흥면 내4리(박상석)
〈용진 94〉	고사소리 1	자월면 자월2리 동촌(천용우)
〈용진 95〉	삼신 비손	덕적면 서포리(오정금, 문분김, 문인예)
〈용진 96〉	1.널 들어올림 2. 문지방 나감.	영흥면 내4리(김기수, 임평택)
〈용진 97〉	발인축	영흥면 내4리(박상석)
〈용진 98〉	발인축	영흥면 외2리, 내4리(김기수)
〈용진 99〉	상부소리	영흥면 내4리(박상석, 김인환, 김기선, 김기순, 이상원)
〈용진 100〉	가래질소리	영흥면 내4리(김인환, 박상석)
〈용진 101〉	1.남세 2.하직인사	영흥면 내4리(박상석, 김인환, 김기선, 김기순)
〈용진 102〉	운상소리	영흥면 내4리(김기수, 임평택)
〈용진 103〉	달고	영흥면 내4리(김기수, 임평택)
〈용진 104〉	1.초혼 2.운상소리 3.달고소리 4.뗏간	자월면 승봉리(김인화, 정귀진, 정인수, 김인국)
〈용진 105〉	상부소리	자월면 자월2리 동촌(남진섭, 천용우)
〈용진 106〉	상부소리	덕적면 소야리(배병윤)
〈용진 107〉	상부소리	덕적면 북2리(문송준)
〈용진 108〉	상부소리	덕적면 서포2리(김현쇠)
〈용진 109〉	1.운상 2.달고	덕적면 서포1리(장석진, 임배진)
〈용진 110〉	1.운상 2.달구	북도면 신도2리(라만석, 김봉윤)
〈용진 111〉	1.운상 2.달고	북도면 신도2리(전원실)
〈용진 112〉	1.운상 2.달궁	북도면 시도(백기열)
〈용진 113〉	1.운상 2.달궁	북도면 시도(백광식)
〈용진 114〉	1.운상 2.달구	연평도, 북도면 시도(최원식)
〈용진 115〉	1.운상 2.달궁	북도면 장봉도(박명규, 김창식)

〈부록 1~28〉

〈부록 1〉	모심기	영종면 운남5리(김기안)
〈부록 2〉	모심기	영종면 운소리, 중산6리(차국환)
〈부록 3〉	모심기	영종면 운서8리(차연환)
〈부록 4〉	배치기	영종면 중산2리(김동수)
〈부록 5〉	곱새치기불림	영종면 운남5리(김기안)
〈부록 6〉	굴쩌러 가는 노래	용유면(정소아)
〈부록 7〉	모심기	용유면 을왕3리(이인강)
〈부록 8〉	모심기	용유면 을왕3리(이의강)
〈부록 9〉	모심기	대구면, 용유면(정소아)
〈부록 10〉	모심기	용유면 무의리, 을왕리(차순분)
〈부록 11〉	밭김매기	대구면, 용유면(정소아)
〈부록 12〉	고사리 꺾기	용유면(정소아)
〈부록 13〉	망질노래	대구면, 용유면(정소아)
〈부록 14〉	베틀노래	대구면, 용유면(정소아)
〈부록 15〉	감내기	대구면, 용유면(정소아)
〈부록 16〉	지경소리	용유면 을왕3리(이의강)
〈부록 17〉	지정소리	대구면, 용유면(정소아)
〈부록 18〉	자장가	용유면(정소아)
〈부록 19〉	청춘가	용유면(정소아)
〈부록 20〉	수심가	대구면, 용유면(정소아)
〈부록 21〉	자진 난봉가	대구면, 용유면(정소아)
〈부록 22〉	몽금포타령	대구면, 용유면(정소아)
〈부록 23〉	고사덕담	용유면 을왕3리(정춘홍)
〈부록 24〉	산염불	대구면, 용유면(정소아)
〈부록 25〉	1. 평길 운상 2. 오르막 운상	용유면 을왕3리(이의강)
〈부록 26〉	달구	대구면, 용유면(정소아)
〈부록 27〉	1. 자장가 2. 도라지	인천 도림동, 선학동(최옥순)
〈부록 28〉	노랫가락	인천 선학동(공용덕)

* CD (총 56:57)

01.〈웅진 1〉	영흥 논매기 1.긴 소리 2. 상사 3. 문돌 4. 에 혈쭈 덩어리 5. 잣은 얼카덩어리	영흥면 내4리(김기선, 박상석, 김인환, 김기순) (06:51)
02.〈웅진 5〉	나무꾼	영흥면 내4리(김인환) (00:20)
03.〈웅진 7〉	모심기	자월면, 용유면(강준여) (00:13)
04.〈웅진 8〉	모심기	북도면 신도2리(김봉윤) (00:22)
05.〈웅진 14〉	논김매기	덕적면 서포리(오정금) (00:18)
06.〈웅진 20〉	밭매기	자월면, 용유면(강준여) (00:37)
07.〈웅진 22〉	사춘성님	자월면 이적,대부도(김화분) (00:28)
08.〈웅진 23〉	1.삼삼기	자월면,용유면(강준여) (00:26)
09.〈웅진 25〉	농사노래(자월고사2)	자월면 자월2리 동촌 (천용우, 남진섭, 김영민) (01:39)
10.〈웅진 26〉	청춘가곡풍(나무하기, 굴따기)	자월면 승봉리(김월랑) (00:36)
11.〈웅진 32〉	감내기	동강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01:39)
12.〈웅진 33〉	노젓는 소리	북도면 장봉도(박명규, 김창식) (00:53)
13.〈웅진 34〉	그물당기는소리	북도면 시도(백기열, 최원식) (00:09)
14.〈웅진 35〉	배치기	연평도, 북도면 시도(최원식) (00:43)
15.〈웅진 36〉	배치기	덕적면 서포2리(인권옥) (01:07)
16.〈웅진 38〉	배치기	덕적면 북2리(문송준) (00:32)
17.〈웅진 45〉	잠자리	자월면 자월2리 동촌 (00:10) (1. 김요지 2.배춘난)
18.〈웅진 48〉	새쫓는소리	덕적면 서포2리(문인예) (00:28)
19.〈웅진 49〉	이거리	북도면 시도(백탐실) (00:09)
20.〈웅진 51〉	한알대	영흥면 내4리(1.임평택 2.태동철) (00:10)
21.〈웅진 62〉	노랫가락곡풍	자월면 승봉리(강금숙) (01:12)
22.〈웅진 64〉	담바구	자월면, 용유면(강준여) (02:56)
23.〈웅진 70〉	변강수타령	동강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05:16)
24.〈웅진 77〉	1.창부타령	자월면 승봉리(강금숙) (00:51)
25.〈웅진 85〉	몽금포타령	동광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01:27)
26.〈웅진 87〉	자진 난봉가	동광면, 북도면 장봉도(임성복) (01:21)
27.〈웅진 89〉	곶새치기	북도면 신도2리(라만석) (00:40)
28.〈웅진 93〉	고사덕담	영흥면 내4리(박상석) (03:52)

29. <웅진 104> 1.초흔 2.운상소리
3.달고소리 4.뗏간
30. <웅진 96> 1.넬 들어올림
2. 문지방 나감.
31. <웅진 97> 발인축
32. <웅진 115> 1.운상 2.달궁
33. <웅진 100> 가래질소리
34. <웅진 99> 상부소리

자월면 승봉리(김인화, 정귀진,
정인수, 김인국) (01:53)

영흥면 내4리(김기수, 임평택) (00:08)

영흥면 내4리(박상석) (00:11)

북도면 장봉도(박명규, 김창식) (02:18)

영흥면 내4리(김인환, 박상석) (00:41)

영흥면 내4리(박상석, 김인환
김기선, 김기순, 이상원) (16:03)



* Index

[The Ethnic Folksongs of Ongjin-gun, Korea] -Bukdo · Deokjeok · Jawol · Yeongheung Islands-

by Sora Yi.

**The writer studied Korean traditional music at the graduate school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ad worked as a consultant of the committee f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at the Administ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had taught cultural theory in Cheongju University and Baeje University. She studied American Indian Songs as an exchange professor in Arizona State University for 2007-2010. She opened a private, Ethno-Music Institute in 2003 and continues to write and to study the ethnic songs of every nation.

She has surveyed the folksongs of Korea through a convergent field-work since 1983 and recorded especially the songs for weeding rice paddies in every town in South-Korea and the folksongs of some districts in North-Korea during that period.

She also has done field-work in Japan, China, Myanmar, Vietnam, Philippines, Cambodia, India, Indonesia, Hungary, Mongolia, Bhutan, Slovakia, Kenya, Tanzania, Peru and USA etc.

She has written over 65 books including [The Songs sung when Weeding a rice paddy in the Jeonbuk area, Korea],[North American Indian Music and Culture] etc.

She received a Cultural High Decoration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in 2017.

(e-mail: minjokeumak@hanmail.net)

Bukdo(북도) · Deokjeok(덕적) · Jawol(자월) · Yeongheung(영흥) Islands of Ongjin-gun are situated in the western sea of Korean peninsula.(cf. <map 1>)

Some of their ethnic folksongs are unique (〈score 1①,5,36,89,99,106④〉 etc.), but show influences the western Geonggi area(ex. 〈score 1③,7,8,26,51,62,77〉), or the northwestern Chungnam area (ex. 〈score 1⑤〉), or the Hwanghae area of North Korea (ex. 〈score 66①,87〉).

The field work of this book for the Ongjin-gun area was executed mainly in 1987 and 1988. And in this year this writer visited Jawol Island and Seungbong Island of Jawol-myeon, and Yeongheung-myeon for field work.

* * *

CD [total 56:57]

01. 〈Score Ongjin-웅진 1〉 The songs sung when weeding a rice at Naesa-ri Yeongheung-myeon. [6:51]
02. 〈S. 5〉 The song sung when going up a mountain in an A-frame rack on one's back at Naesa-ri Yeongheung-myeon. [0:20]

03. 〈S. 7〉 A song sung by Mrs. Gang, Jun-yeo when planting rice. [00:13]
04. 〈S. 8〉 A song sung by Mr. Kim, Bong-yun when planting rice, in Bukdo-myeon. [00:22]
05. 〈S. 14〉 A song sung when weeding a rice or a dry field at Seopo-ri of Deokjeok-myeon. [00:18]
06. 〈S. 20〉 A song sung by Mrs. Gang, Jun-yeo when weeding a dry field. [00:37]
07. 〈S. 22〉 A song sung by Mrs. Kim, Hwa-bun about an old sister leading a hard married life. [00:28]
08. 〈S. 23①〉 A song sung by Mrs. Gang, Jun-yeo when making thread from hemp. [00:26]
09. 〈S. 25〉 A song sung when planting rice or when performing the village-ceremony of January, at Dongchon village of Jawol-myeon. [01:39]
10. 〈S. 26〉 *Cheongchunga*, a kind of 20C. new folk song for pleasure, but the women of Seungbong-ri, Jawol-myeon sang also this one when going up a mountain carrying A-frame rack on one's back, or when catching oysters. [00:36]
11. 〈S. 32〉 *Gamnaegi*, a song sung when driving an ox-cart in Hwanghae Province of North Korea. [01:39]
12. 〈S. 33〉 A paddling song sung by the singers of Jangbong Island, Bukdo-myeon. [00:53]
13. 〈S. 34〉 A song sung when taking out a fishing net from the sea. [00:09]
- 14~16. 〈S. 35,36,38〉 A song sung when letting merchant ships or villagers know of a big catch. [00:43] [01:07] [00:32]
17. 〈S. 45〉 A children's song about a dragonfly. [00:10]
18. 〈S. 48〉 The shouting sound when driving out birds from grain. [00:28]
19. 〈S. 49〉 *Igeori*, a children's song sung during a game in which children sit stretching their legs and count them. [00:09]
20. 〈S. 51〉 *Hanalda*, a children's song sung during a game in which children sit stretching their legs and count them. This type is found well in the Gyeonggi area. [00:10]
21. 〈S. 62〉 The *Noraetgarak* type, a folk song based on a shaman song of the Gyeonggi area. [01:12]
22. 〈S. 64〉 A folk song about tobacco. [02:56]
23. 〈S. 70〉 A folk song of long texture about an ill-natured person, Mr. Byeon Gang-su. [05:16]

24. 〈S. 77〉 *Changbu Taryeong*, a folk song based on singing at shaman ceremonies in the Gyeonggi area. [00:51]
25. 〈S. 85〉 *Monggeumpo Taryeong*, a folk song about the harbor, Monggeumpo situated near Jangsangot of North Korea. [01:27]
26. 〈S. 87〉 *Nanbongga* sung in a fast tempo. The cultural center of *Nanbongga* is Hwanghae Province, North Korea. [01:21]
27. 〈S. 89〉 *Gobsaechigi*, A song sung while gambling which uses a tool made by folding Korean paper and smoothing it with oil, or which uses flower cards. [00:40]
28. 〈S. 93〉 A kind of hymn in the village ceremony at Naesa-ri, Yeongheung-myeon. [03:52]
29. 〈S. 104〉 1. Invocation of the spirit of the deceased.
 2. Songs sung at Seungbong-ri Jawol-myeon when carrying a bier.
 3. The ritual and working songs sung at Seungbong-ri Jawol-myeon when treading upon the earth over the coffin after it has been buried in the grave. [01:53]
30. 〈S. 96〉 1. A call when beginning to move the bier out of the room for funeral rites.
 2. A shouting when passing a door sill with the bier for funeral rites. [00:08]
31. 〈S. 97〉 A ritual speech indicating the bier's departure from the house. [00:11]
32. 〈S. 115〉 1. A song sung at Jangbong Island of Bukdo-myeon, when carrying a bier.
 2. A song sung when treading upon the earth over the coffin after it has been buried in the grave, at Jangbong Island of Bukdo-myeon [02:18]
33. 〈S. 100〉 A song sung when shovelling earth for making a tomb at Naesa-ri, Yeongheung-myeon. [00:41]
34. 〈S. 99〉 Funeral songs of Naesa-ri, Yeongheung-myeon.
 The singers are Mr. Bak Sang-seok, Mr. Kim, In-hwan, etc.[16:03]

웅진섬 민요집

근해도서편 (북도 · 덕적 · 자월 · 영흥면)

인 쇄 2019년 11월 25일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발행인 웅진문화원장 태 동 철

집 필 이 소 라

발행처 웅진문화원

[22332]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4

Tel : 032) 891-2131 / Fax : 032) 891-8131

E-mail : ongjin@kccf.or.kr

인쇄처 (주)애드파워 042) 862-9607

※용도에 따라 악보의 기보가 달리 될 수 있는 관계로 무단 사용을 금(禁)합니다.

ISBN : 978-89-88852-78-1 (93670)

비매품